

〈田來童話〉

농어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 농식품부의 서울 촌놈 사무관 열다섯

2011년 12월, 농어민의 행복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들어온 지 어언 한 달. 농어촌의 미래는 내 손 안에 달려 있을 것 같았지만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한 날들의 연속.

대부분 시골출신은커녕 부모님들 고향까지도 촌(村)과는 거리가 멀어서 농사일이고 시골생활이고 그 어떤 것도 몸으로 느껴보지 못한 15명의 수습들.

이대로는 농식품부에 근무하는 사무관들 체면이 안 선다며 일단 한번 떠나보자고 우격다짐을 하게 되었다.



비매품



9 788996 201649 ISBN 978-89-962016-4-9

### 아련한 고향의 추억 꿈엔들 잊힐리아

우리가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다녀왔던 가시리 마을, 아홉굿 마을, 개실마을, 백자골 마을, 이슬촌 마을, 하니마을, 구메농사마을, 안덕마을, 송천 떡마을, 바람마을, 임실치즈마을, 재오개 마을, 앵강다숲권역. 이 13개 마을은 우리에게 추억 그 이상을 만들어 주었다.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두 팔 걷고 나서는 촌(村) 전도사가 될 것이다.

한글서체

〈田來童話〉

농어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 전래 이야기



12

안성 구메농사마을



32

송천떡마을



52

평창 의아지 바람마을



06  
prologue

70

충주 하니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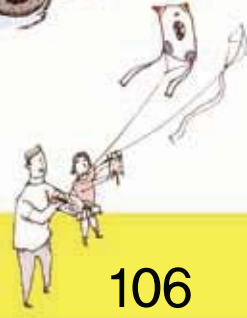
124

남해 앵강다숲마을



106

고령 개실마을



88

청양 알프스마을



144

임실치즈마을



162

완주 안덕마을



180

장흥 백자골마을



198

나주 이슬촌마을



214

제주도 가시리마을



232

제주도 아홉굿마을



250  
epilogue

전라북도

2011년 12월, 농어민의 행복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농림 수산식품부에 들어온 지 어언 한 달. 농어촌의 미래는 내 손안에 달려 있을 것 같았지만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한 날들의 연속.

대부분 시골출신은커녕 부모님들 고향까지도 촌(村)과는 거리가 멀어서 농사일이고 시골생활이고 그 어떤 것도 몸으로 느껴보지 못한 15명의 수습들.

이대로는 농식품부에 근무하는 사무관들 체면이 안 선다며 일단 한번 떠나보자고 우격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래 직접 농어촌 마을에 가서 이런 저런 체험도 해보고 일손도 도와드리면서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해보는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속의 고향을 만들고 오는거지! 회사만 1사 1촌 하란 법 있나. 우리는 농어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농식품부 새싹이니까 1사무관 1촌을 맺어보자. 그래서 자기의 애정어린 고향 마을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찾아가서 농사일도 도와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귀여운 손자손녀가 되어보는 거야!’

## 농식품부의 서울 촌놈 사무관 열다섯

# 01

## 마을을 향한 웬지 모를 끌림

# 02



고향. 푸근한 이미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파스해지는 그 곳. 오죽했으면 고향을 그리지는 마음이 사무치면 병이 되어 ‘항수병’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중한 마음의 고향을 찾아 떠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느낀 소중한 감정들을 가감없이 써내는 기행기를 통해 기념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의 기행기 프로젝트가 시작 된 것이다. 일명 ‘서울 촌놈 농식품부 사무관들의 고향찾아 삼만리’. 우리는 일단 자신의 고향을 각자 선택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책, 주위 분들의 소개 등 많은 경로를 통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가장 끌리는 마을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마을 수는 4만여 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고를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각 도별로 2~3개 마을로 선택지를 좁혔고 최종 결정은 각자의 선택에 맡겼다. 그 선택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요, 그 누구의 강요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성 이 아닌 감성이 작용했던 마을 선택의 과정.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이것이 우리들이 각자의 고향을 선택하게 된 기준이다. 즉,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우리들의 고향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향을 만들러 왔다고 하면 마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며 반겨주실까?’, ‘괜히 도와 드린다고 해놓고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며칠 머물렀다고 그 마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걱정이었다. 이번 마을 기행기가 단순히 고향찾기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다 보니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우린 젊다! 패기 하나로 승부를 해 보자며 마을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두근두근 설레는 우리들의 마을 체험은 각자 자신의 고향이 될 마을짱이 인솔하고 나머지 세네명은 그 마을을 느껴보는 여행객이 되어보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았다. 이렇게 각 마을마다 한 팀씩 함께 꾸려져서 우리의 고향찾기가 시작되었다.

### 03 가자 고향으로!



## 04



### 촌(村)스리워 고마워요

사무실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보며 포근함을 느끼니 그동안의 피로가 저절로 풀리는 듯했다. 빌딩 숲이 가로 막지 않는 들판에서의 바람은 살을 에는 듯 매서웠지만 우리의 따스한 마음에 퐁퐁열은 추위도 조금은 녹는 듯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들판과 소 축사에서 풍겨오는 거름 냄새 그리고 된장국과 시금치 나물로 차려진 소박한 시골밥상을 즐기며 여태껏 시골하면 떠올리던 물 좋고 인심 좋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 모습 그대로의 시골을 경험했다. 아울러 깨끗하게 꾸며진 한옥 민박집과 현대식 화장실, 체험공간은 도시의 그 어느 휴양시설 못지 않은 정갈함을 느끼게 했다. 소박하고 인심좋은 옛 정, 뜨끈한 구들 방과 아랫목, 끝없이 펼쳐지는 논밭과 푸르른 들 그리고 이름모를 풀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의 모습 그대로이되 옛날 그대로는 아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움. 이는 도시인의 감성과 외국관광객들을 잡기에 충분하다.

이때 우리는 깨달았다. ‘그래, 여기에 우리 농어촌 마을의 미래가 있구나!’

# 05

## 아련한 고향의 추억 꿈엔들 잊힐리아

우리가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다녀왔던 가시리 마을, 아홉굿 마을, 개실마을, 백자골 마을, 이슬촌 마을, 하니마을, 구메농사마을, 안덕마을, 송천 떡마을, 바람마을, 임실치즈마을, 재오개 마을, 영강다숲권역. 이 13개 마을은 우리에게 추억 그 이상을 만들어 주었다. 빨주노초파남보의 서로 다른 7가지의 색깔이 각기 자기의 빛깔을 내면서도 하나로 모여 아름다운 무지갯빛이 되듯 우리의 농어촌 마을들도 그런 매력을 가진 듯하다. 우리가 본 마을들은 각기 자신만의 영롱한 색깔을 빛내고 있었지만 따스한 고향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두 팔 걷고 나서서 촌(村) 전도사가 될 것이다.

2012. 4. 25

농식품부 수습사무관의 목소리를 모아서 김 고 은





경기 안성 구메농사마을

## 福이 넘치는 생태체험마을

글 정미영



서울에서 버스로 약 1시간, 차창 밖으로 작은 논과 밭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류장 표시가 불분명한 곳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시작한다. 타고 온 버스가 동네버스 처럼 느껴질 무렵, 낮고 작은 건물들과 고향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린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다. 안성시 죽산면 죽산시외버스터미널이다. 자그마한 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차로 10여 분을 달렸을 때 작은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우리의 목적지인 구메농사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 # 도심에서 가까운 고향, 안성

마을을 들어서면 마을을 둘러싼 산과 논길, 연못 등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기존에 시행됐던 전국 농산어촌 경지정리에 반대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옛날 논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 이러한 산 속의 다락논, 청정자연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서울에서 가깝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묘지나 수련원 같은 시설이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마을을 지켜냈죠.” 마을 사무장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마을의 가치를 알고 마을을 지키고자하는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정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 # 천년을 이어온 다락논이 어우러진 마을

마을입구에는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복조리가 방문객들을 맞는다. 구메농사마을은 복조리마을로도 유명한데 마을을 지칭하는 이름이 3개나 있다. 원래 지리적 이름인 ‘신대마을’, 농촌관광사업 준비 시 농촌관광 컨설팅을 받을 때 마을 테마와 함께 지정된 이름인 ‘구메농사마을, 마을 특산물인 ‘복조리마을’이라는 이름이 그것이다.

마을 초입에 있는 ‘구메농사마을’ 정보센터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주민들이 직접 농촌





1. 마을의 자랑인 황토방 2. 불을 지피며 난방을 하는 구조. 체험객들이 직접 장작을 때고 아궁이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을수도 있다 3. 따끈~따끈 아궁이에서 막 구워낸 군고구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회의장소로도 이용되는 곳이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컴퓨터 시설이 있는 방이 나오는데 컴퓨터 교육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화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정보센터 앞에는 체험객들의 숙소이자 주민들의 휴식처인 황토 짚질방이 있다. 이름 그대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전통 난방 형태로 저녁에는 마을 어머니들께서 직접 불을 지펴준다. 맛있는 고구마와 함께 따뜻한 방 안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쉼터다.

### # 청정자연을 이용한 생태체험, 도시사람을 불러 모으다

황토방 앞에서 어머니들과 헤어지고 마을 둘러보기에 나섰다. 사무장님의 인솔하에 마을 둘레길을 걸으며 전체적인 마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황토방 앞 공터는 마을 행사 때 쓰이는 곳으로 마을축제인 '농산물 호롱 복조리 축제'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기도 한다. '농산물 호롱 복조리 축제'는 2008년부터 주민 스스로가 준비하고 운영하는 마을 축제로 매년 가을, 마을 주민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된장, 매실 등 마을 특산물들을 판매하며,

**tip 01** **농산물 호롱 복조리 축제**

2008년부터 주민 스스로가 준비하고 운영하는 마을 축제.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이 축제에는 먹거리, 볼거리 등 체험이 풍부하며 마을 주민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된장, 매실 등 마을 특산물들을 판매한다.



여러 체험을 제공하는 마을의 청정 연못 연꽃이 화려한 여름철 연못 전경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활동을 선보인다.

공터를 지나면 비교적 큰 규모의 연못이 나온다. 마을 주민들은 몇 해 전부터 연못밭을 가꾸는데 여기서 자란 연잎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연잎공예, 연잎차, 연잎밥) 체험객들에게 친환경 웰빙식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연못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만든 '진짜 둘레길'이 나온다. 마을 둘레길은 칠현산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다. 둘레길 이름 역시 '칠장산 둘레길'이며,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둘레길은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도록 마을을 크게 감싸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이했다. 둘레길을 걷다보면 오른편으로 자그마한 얼음구덩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메농사마을이 자랑하는 친환경 다락논이

다락논 겨울전경



다. 이 논은 구메농사마을이 체험마을을 준비할 때 컨설팅에 의해 천년구렛들을 생태논으로 전환한 것인데, 그 모양이 매우 독특하다.

“겉보기에는 별거 없지만 청정 자연생태를 간직하고 있어 버들치, 미꾸라지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말처럼 구메농사마을의 생태논은 습지와 농지의 모습을 모두 갖고 있으며 각각의 논은 두령을 따라 서로 연결된다. 이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청정수로 따뜻한 날에는 미꾸라지 잡기 체험 등 생태체험 장소로 체험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천연생태환경을 지니고 있어 철새나 오리들의 흔적도 보인다. 생태논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자 마을 전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고즈넉한 마을을 잠시 감상해 본다.



연못길을 따라 걸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만든  
친과 돌레깡이 나와요!





몸균형 잡기 체험장. 스텝만점의 멋진 기구

두근두근 슬라이드. 다가올 여름이 기대가 된다.

생태논을 지나 칠현산 정상으로 향하는 갈림길 밑에는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험장이 있다. 이름하여 ‘몸균형 잡기’ 체험! 그네를 여러개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타보면 보기와는 달리 어렵다. 위태위태하니 스릴도 있고 옆 사람에게 경쟁심도 생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칠현산 정상 갈림길에서 마을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산 능선을 따라 정비해 놓은 수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썰매’라고 한다. 그

길이와 크기가 대형 놀이기구 못지 않은데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도착지점에는 물웅덩이를 파서 여름에는 물을 이용한 워터슬라이드로, 겨울에는 눈썰매로 이용할 예정이라는 게 마을 주민의 설명이다.

“일본에서 한 가족이 마을에 놀러왔던 적이 있어요. 같이 왔던 아이들이 시험 삼아 탔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한 번 타고서는 일정 내내 썰매 타러 가자고 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올 여름 놀러오는 손님들에게 선보일 예정인데 기대가 큼니다.”

슬라이드 주변에는 가재잡기체험장이 있었다. 가재는 1급수의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로 가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구메농사마을의 깨끗한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재체험장을 지나 내려오는 중에 스틸형 펜션이 보였는데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숙소로 여름에 물놀이를 온 가족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구메농사마을을 찾는 유명대학 교수 한 분이 이 펜션 한 채를 장기 대여하여 본인과 주변인들이 머물다 간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이 직접 심은 감나무길을 걸으면서 마을 곳곳에 묻어있는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 지역에 이렇다 할 시설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마을 환경 자체를 활용하여 이토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감탄스러웠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이 곳을 찾는 체험객들이 농촌 고유의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재체험장



구메농사마을의 가재들



tip 02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향, 안성 구메농사 마을

명절 때가 되면 근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메농사마을을 찾는다. 연휴지만 고향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니 같은 처지의 동료들끼리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명절에도 체험객을 받고 음식도 나눠 먹으며 명절을 보낸다고 한다.

# 전설이 흐르는 그 곳, 칠장사

안성 구메농사마을에 위치한 칠현산에는 천년 고찰 칠장사가 있다. 마을에서 사찰까지 등산코스로도 좋으니 날씨가 좋은 날에는 걸어서 가볼 것을 추천한다(마을 내 산책길에서 이어진다). 칠현산의 본래 이름은 아미산이지만 과거 해소국사가 일곱 명의 악인을 교화하여 현인을 만들었다는 연유로 산 이름을 칠현산으로 고쳐 불렀다. 그래서 칠장사(漆長寺) 역시 칠장사(七長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다. 칠장사에 들어서자 일주문 뒤로 보이는 오르막길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다. 녹음이 무성한 계절에는 가로수가 장관을 이룬다고 하나, 안타깝게도 추운 겨울이어서 상상으로만 만족하며 길을 걸었다. 한참 걸어 올라가니 '어사 박문수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표지판이 보였다. 박문수가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면서 칠장사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후 과거에 급제했다는 내용이였다. 계단을 다 올라가니 칠현산의 절경이 펼쳐졌다.

칠장사 대웅전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로 칠장사 창건 이래 전란과 화재로 인해 중건과 중수를 거쳤는데, 현재의 건물은 1703년(숙종29년)에 중수하였다고 한다. 건물 외벽의 바랜듯한 오묘한 빛깔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본래 이 지역에는 몇백 개의 절이 있었으나 대부분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한다.



약수를 퍼주는 불상



칠현산 전경



칠장사 대웅전

tip 03

'칠현산 칠장사' 라고 쓴 현판과 일주문

칠장사 초입에는 '칠현산 칠장사'라고 쓴 현판과 일주문이 우리를 맞는다. 일주문이란 사찰에 들어서는 산문(山門) 가운데 첫 번째 문으로서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부처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는 먼저 지극한 일심(一心)으로 부처나 진리를 생각하며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tip 04

어사 박문수의 전설

박문수가 몇 번의 과거를 보았지만 낙방을 거듭하던 어느 날,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가던 길이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칠장사에 들러 부처님께 유과를 올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과거시제의 답 8줄 가운데 7줄을 가르쳐주고 사라지셨다 한다. 이에 박문수는 시험장에 도착하여 꿈속의 7줄을 쓰고 나머지 한 줄을 써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후로 과거시험을 보려는 선비들이 용인 수원을 거쳐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칠장사에 들러 하룻밤을 묵으며 과거급제를 빌었다고 한다.



소원을 담은 등. 모두 이루어지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격을 비나이다**

대웅전 옆으로 난 산죽길을 올라가니 1칸 짜리 작은 전각이 하나 보였다. 칠장사 전설에 등장하는 7인의 현인을 모신 나한전이였다. 나한전 뒤로는 수령 600년이 된 소나무가 나한전을 덮을 듯이 서 있었다.

나한전은 기도효험이 높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박문수가 이 곳을 통해 과거급제를 이루었듯이 자식의 급제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국의 어머니들이 저마다의 절실함을 안고 기도를 하러 온다고 한다.

“수험철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요. 여기서 기도를 드리려고 추운날씨에도 저 아래까지 줄지어서 기다리는데 참...”

마을 주민의 말을 입증하듯 전각의 천장에는 합격을 바라는 작은 등들이 빼곡하게 달려있다.

**트집잡다?**

나한전 뒤편으로 지금은 다니지 않는 길이 있는데 과거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갈 때 이용되던 길이라고 한다. 선비들이 모이는 만큼 선비들의 갓 수선하는 안성의 기술자들로 인해 구전되는 이야기가 바로 ‘트집잡다’의 유래이다. ‘트집’이란 선비들이 쓰는 갓의 벌어진 틈을 뜻하는데, 특히 이 지역 기술자들의 갓 수선 솜씨가 뛰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갓을 수선하면서 흠이 난 트집을 많이 발견하여 수선비를 비싸게 받았다는 것이다. ‘조그만 흠집을 들추어내거나 없는 흠집을 만들다’는 뜻의 ‘트집을 잡다’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칠장사를 내려오는 길에 절을 지키는 지강스님과 따뜻한 차를 하게 되었는데, 스님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다.

“칠장사를 세운 혜소국사께서는 이 곳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여 나눔의 의식을 중요시 했습니다. 이 지역은 나눔과 소통의 맥이 흐르는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소박한 털신 한 켤레가 시선을 끈다

지강스님과 함께 한 따뜻한 차

## # 소원을 빌어 하늘로 올린다

“풍등이 뽀지 아세요?”

사무장님이 우리를 불러 큰 종이꾸러미를 나눠 주면서 앞부분에 소원을 적으라고 한다. 어리둥절한 채 일단 각자의 소원을 적었다.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길...’

각자 소원을 쓴 정체불명의 종이꾸러미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무렵의 마을에는 어느새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져나온 종이꾸러미를 펴기 시작했다.

“두 분이 양 쪽 끝을 잡아주세요. 잠시만요. 불을 붙여야 해서요.”

종이꾸러미를 서서히 펼쳐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봤던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 연료에 불을 붙이니 은은한 황색 불빛이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다. 잠시 후 종이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점차 하나의 등불 모습을 갖추었다.

“흔들리지 않게 동시에 올려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하나의 등을 위로 밀어 올렸다. 소원을 담은 풍등은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다. 연달아 두개의 풍등을 더 올렸을 무렵,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은 하늘의 별처럼 까마득히 올라가 있었다. 별이 되어가는 풍등을 보면서 수십 개의 풍등이 한꺼번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은  
하늘의 별처럼  
까마득히 올라가 있었다.



소원을 적어넣은 풍등 날리기 준비

하늘높이 올라가는 풍등



나도 날고싶다  
T.T...꼬꼬댁꼬꼬



### # 복조리의 마을, 소득 창출과 체험 마을로 거듭나다

“조선시대부터 복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복조리만으로 한해 몇억씩 벌었죠. 지금은 중국이나 베트남산이 들어와서 매출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마을은 국내 최고의 복조리 생산지입니다.”

마을 주민의 말처럼 구메농사마을은 조선시대 때부터 마을 뒷산인 칠현산에 자생하는 질 좋은 산죽으로 복조리를 만들어 왔다고 한다. 산죽 1개를 4개로 쪼개어 복조리를 만드는데 현재 사용하는 재료들은 칠현산 산죽 중 1년생 산죽 위주로 골라 잎을 따고 잘게 쪼갠 뒤, 말려 저장해 놓은 것들이다. 대형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가구마다 재료를 저장해 두었다가 복조리체험이나 제품 납품 시에 사용한다. 복조리 체험 지도자는 대부분 한평생 복조리를 만들어 온 마을 어르신들이다. 마을 어르신들은 구메농사마을과 1사1촌을 맺은 법무부 장

관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우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들은 내공이 상당히 보이는 할머니와 어머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 두 분이였다. 어머니는 바로 옆 마을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오빠 친구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이 마을에 정착하셨다. ‘연애고 뭐고 그때는 그런거있나, 그냥 나이가 차고 주변에서 다들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거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작은 복조리 한 쌍이 탄생했다. 사실 우리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굵든 작업을 보다 못한 할머니께서 번개 같은 속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은 작은 복조리 한 쌍을 만드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매년 11~1월이 복조리 출하 시기로 가장 바쁜 때이다. 체험마을을 하기 전에는 복조리만으로 2~3억

복조리 기본모형. 손바닥만 한 복조리가 탄생한다



오늘의 복조리 스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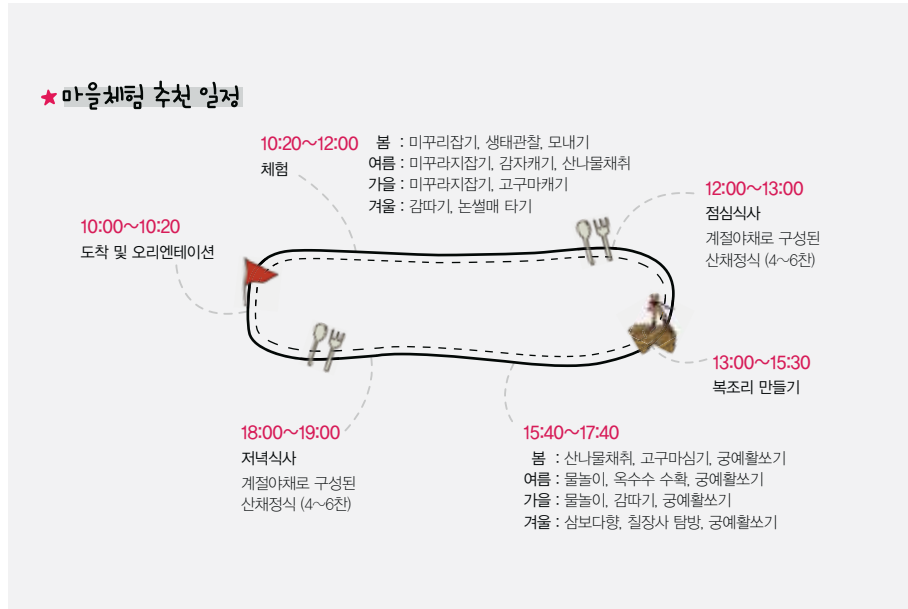


원을 벌었다고 한다. 소득 규모를 떠나 다른 농어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메농사마을 고유의 훌륭한 농외 소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매년 명절 즈음에는 복조리마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 마을을 촬영하러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워낙 언론에 자주 비춰지다 보니 인터뷰 질문, 화면에 멋지게 나오는 곳 등 방송 시스템을 훤히 알고 있어, 마을 어르신들이 오히려 취재기자에게 조언을 할 정도란다.

“어이구, 거기서 찍으면 안돼, 찍고 나면 잘 안 나와. 거기 말고 저~기 쪽 들어오면서 해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테니 그걸 찍어.”

마을을 떠나는 날, 어느새 바깥에는 눈송이가 날리고 있었다. 복이 많은 마을에 왔으니 복을 많이 받아가라며 커다란 복조리를 건네 주는 마을주민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가까운 고향, 구메농사마을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얻어간다.



**★ 구메농사마을까지 가는 법**

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대마을까지 마을버스가 다니지만 하루에 3회만 운행한다. 버스 시간표를 잘 알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앞이 택시정류장이므로 택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소수(5명 이하) 방문객은 미리 연락하면 마을 사무장님이 픽업도 해준다.

**★ 숙박정보**

체험객들을 위한 숙소로는 황토방, 마을회관 2층, 마을 윗편 펜션형 스텔하우스 여러동이 있다. 황토방과 마을회관 2층(방2개)은 넓어서 방 1개 당 6명 이상 숙박가능하다. 펜션형 스텔하우스는 규모가 작아 2~3명 정도가 적합하고 물놀이 할 때 많이 이용된다.

**★ 먹을거리**

사전에 예약한 단체방문객들은 마을 부녀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며, 마을 정보센터에는 취사시설이 있어 라면 등 간단한 끼니 해결도 가능하다. 소수로 왔을 때에는 마을 근처 칠장사 가는 길에 음식점과 카페도 있어 이를 이용하면 좋다.

**★ 체험프로그램**

**농산물 호랑 복조리 축제**

2008년부터 주민 스스로가 준비하고 운영하는 마을 축제로 매년 가을에 열린다. 이 축제에는 먹거리, 볼거리 등 체험이 풍부하며 마을 주민이 직접 농산물은 농산물과 된장, 매실 등 마을 특산물들을 판매한다.

**칠장사**

칠장사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찰로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이며 경기도 문화재 자료 25호로 지정되어 있다. 구메농사마을을 등산로를 통해 다녀올 수 있다.

**칠장사 어사 박문수 백일장**

천년고찰 칠장사와 공동으로 어사 박문수의 '몽중등과시(夢中登科時)' 전설을 토대로 하여 2009년부터 매년 어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 강원도 송천 떡마을

### 고소한 떡 냄새, 푸근한 사람 냄새

글 조은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민속떡 가공장에 들어서자 고소한 떡 냄새가 코 끝을 자극한다. 눈을 감고 코를 벌렁거리고 있는데 내 맘을 어떻게 아셨는지 먹음직스럽게 생긴 취미지떡과 약식을 큼지막하게 썰어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내어 주신다. 큼직한 떡들이 금세 입안으로 사라졌다. 입안에 까끌까끌한 질감이 남아 있는데도 계속 혀가 돌아가고 입맛이 다셔진다. 송천 떡을 맛보면 다른 떡은 못 먹는다고 하던데 아마 송천 떡만의 쫄깃함과 쌀알이 입안에서 굴러 다니는 이 오묘한 질감 때문인듯싶다. 마을사람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을 보면 허물없이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이 정겹다. 떡을 먹으니 배도 부르고, 엄마들의 옛날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예 가공장에 눌러 앉는다.

## 쿵~덕 쿵~덕, 떡 마을이 된 사연

『삼국사기』 신라본기 백결 선생조를 보면, 신라 자비왕대 사람인 백결 선생이 가난하여 한 해가 끝날 무렵인 세모에 떡을 치지 못하자 거문고로 떡 방아 소리를 내어 부인을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송천 떡마을에는 매일 새벽녘이면 실제로 쿵덕쿵덕 신나게 떡방아 찧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송천 산골마을에 무슨 일이 있기에 새벽마다 떡방아를 찧게 된 것일까?



시원한 동치미와 큼직한 떡에서 느껴지는 떡 마을의 정



'내가 바로 송천떡의 원조' 연화엄마

### # 송천떡의 원조, 연화 엄마 떡 훑쳐 먹은 이야기

“옛날에는 나무가 하도 우겨져서 하늘도 안 보일 지경이었지. 콧구멍이고 귀구멍이고 구멍이라고 생긴 데에는 온통 먼지가 들어가서 난리도 아니었어.”

하얀 머릿수건과 빨간 앞치마의 엄마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1950년대, 6·25 한국전쟁 이후 잿더미가 되어버린 송천 마을로 남편의 얼굴도 모른 채 시집 왔던 엄마들은 임시로 지은 집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1970년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창 애들을 키워야할 때 도저히 학비를 댈 수가 없었다. 산골이라 부지가 좁아 농사도 잘 안됐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주변 관광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행상이었다.

새벽 3시에 낙산사까지 걸어가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루 종일 옥수수 장사를 하다보면 반은 겨우 팔고 남은 쉬어서 팔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남은 옥수수를 버리고 올 수도 없어 다시 머리에 이고 와 소여물로 주곤 했다.

낙산과 조산을 오르내리는 게 힘에 부치자 엄마들은 오고가기 덜 힘들고 그들도 있는 오색약수터 쪽으로 행상 장소를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오색약수터에서는 이미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떡 장사가 성황이었다. 찹쌀과 오색약수를 같이 먹으면 위장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 인기가 좋았던 것.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송천 마을의 연화 엄마가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서 감추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게 뭘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 하고 있던 어느 날, 연화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보자기를 두고 간 사이 하도 궁금했던 마을 사람들이 몰래 보자기를 풀어봤더니 보자기 안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떡!

마을 사람들이 연화 엄마 떡을 훑쳐 먹어보니 맛도 좋고 게다가 장사도 잘 돼 마을사람들이 ‘옛다 모르겠다, 우리도 떡을 하자!’ 한거지. 그 이후로 옥수수는 때려치우고 밤 1시만 되면 온 동네가 떡치느라 난리 난거야, 쿵덕쿵덕~”

## # 망녕고개를 넘어 오색 약수터로 행상 다니던 시절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만든 떡을 머리에 이고 망녕고개를 넘어 다니는 게 젊은 엄마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뱀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혼쫓이 난 적도 많았다. 힘들지 않았냐는 물음에 엄마들은 그때는 그냥 한다는 생각으로 했지,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마을이 우리에게 맥을 못 취. 장사가 잘 됐거든.”

다른 마을은 콩가루를 묻힌 인절미만을 팔았지만 송천 엄마들은 손재주가 좋아 색색깔의 고물을 넣은 여러 가지 떡을 팔았다. 무엇보다 전통 방식 그대로 시루에 찹쌀을 찌고 떡메를 쳐서 만들었기에 맛이 좋았다. 그 덕분에 관광객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단골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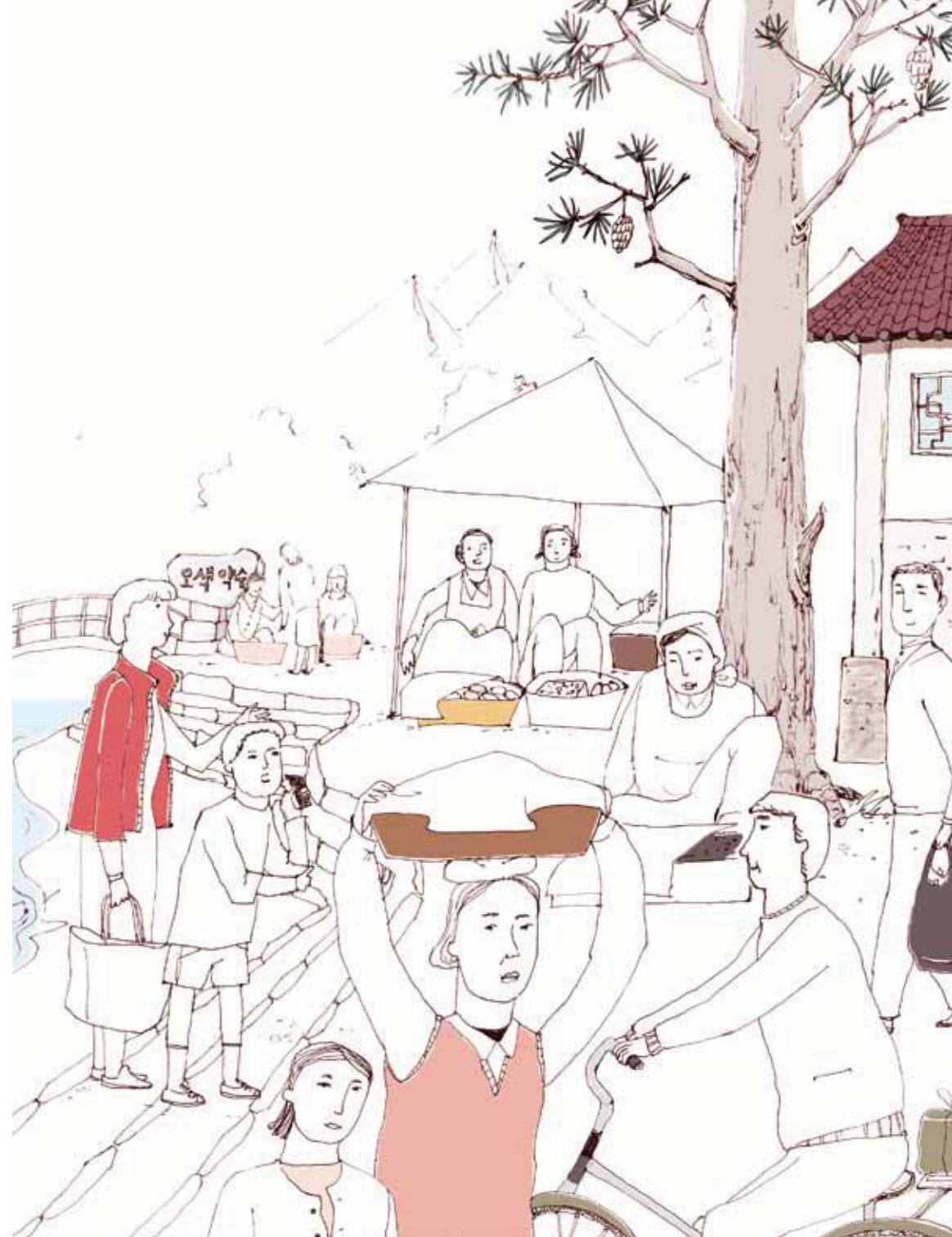
“등산객들이 송천 누구 엄마를 찾아와서 그 떡을 다시 사먹고 그랬다니~.”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에서 자부심이 묻어난다.

젊은 엄마들이 장사를 하자니 가뜩이나 20대 수줍은 나이로 입도 잘 안 떨어지는데다 장난을 치는 손님도 더러 있어 처음 몇 년간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떡 팔러 다닐 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 팔다가 저 가서 울고 앉았으면 여인숙 할매들이 달래주곤 했지”

이야기가 끝난 후 엄마들이 떡을 팔러 다녔다는 오색 약수터에 가 길목을 바라보니 떡 바구니를 두고 쪽 늘어앉아 하루 종일 수줍게 떡을 팔며 때로는 눈물도 훔쳤을 엄마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행상 다니며 업어 키운 아기들도 이제는 어른이 된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어떻게 그 시절을 잊을까.





겨울 찬 바람에 휘날리는 '망녕고개길'

망녕고개를 넘어 행상 다닐 때에는 고갯길 중간에 있는 마을 성황당에 들러 큰 나무 옆에 옥수수고 떡이고 장사하러 가져가던 물건을, 여의치 않을 때는 돌이라도 하나씩 놓아두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 그리고 그 옥수수와 떡은 야생동물의 뱃속으로, 그리고 지금은 마을 이장님이 된 동네 아이들의 입속으로 소옥 들어갔다. 힘든 행상 중에도 장사가 잘 되길 기원하며 귀한 떡을 두고 가던 소박한 마음에 가슴이 아련하기도 하지만, 두고 간 떡을 주워 먹으며 행복해 했을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니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망녕고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마을 할아버지와 함께 성황당까지 올라가 보았다. 어찌나 나무가 뻥뻥한지 환한 대낮에도 사방이 어두웠다. 경사도 가파르고 길이 좁아 금세 숨이 차오른다. 겨울 찬바람에 휘날리는 '망녕고갯길'이라고 쓰인 작은 천 조각을 보며 이 길을 매일 올랐을 엄마들의 마음을 생각해본다. 아직 해도 잠을 자고 있을 새벽녘, 젊은 여자들끼리 떡을 한 바구니씩 이고 고갯길을 넘는 모습을 상상하니 안쓰러움과 존경심이 동시에 든다.

그 때 갑자기 고개 앞쪽에서 후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 정신이 번쩍 든다. 또 다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라 할아버지께 여쭙보니 근처에 멧돼지 다섯 마리가 있다. 큰 놈 두 마리와 세끼 세 마리. 빨리 사진을 찍으라고 재촉하신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길도 좁은데 혹시나 우리 쪽으로 달려오면 어떡하나, 여기서 죽는 건 아닌가, 다시 내려가야 하나'**

셔터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내 얼굴에 서려있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읽으셨는지,

**"멧돼지는 일자로밖에 못 달리니까 이리 오면 옆으로 뛰어"**

하시고는 나를 안심시키시려는 듯 큰 돌멩이 두 개를 양 손에 드시고는 앞장서 걸으신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찌나 멋있고 든든하던지 다시 살금살금 오르다 보니 멧돼지들은 고개를 넘어간 듯 곧 사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망녕고갯길' 천 표식을 따라 이십여 분을 오르니 어느덧 길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여 한 눈에도 성황당이 앞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나무가 어찌나 굵은지 네 명이 기둥을 안아도 모자랄 것 같다. 나무의 굵은 가지들이 기묘한 모습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어 성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나도 돌 하나를 얼른 올려놓고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다. 난생 처음 가까이에서 멧돼지도 보고, 흔치 않은 기운을 받았으니 꼭 이루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돌멩이를 주워들고 앞장서 걸으시는 할아버지의 든든한 뒷모습



## # 잡상인 금지? 마을로 고객을 불러들이자!

온 마을 사람들이 관광지로 나가 떡을 팔다보니 저절로 송천떡이 홍보되어 단골고객도 늘고 떡 장사에도 재미가 붙던 찰나, 위기의 바람이 불어왔다.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행상을 다니던 중, 주변 상인들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잡상인을 근절시켜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등산 후 배가 출출해진 등산객들이 간식으로 떡을 사먹으니 배가 든든해 주변 식당을 찾는 발걸음이 끊긴 것. 식당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 돈도 안내고 손님을 빼앗아가는 행상인들이 곱게 보였을 리 없다. 얼마 되지 않아 「잡상인 금지」라는 팻말이 붙고 행상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했다. 송천 떡마을 엄마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나가서 행상을 할 수 없다면 사서 고생하지 말고 고객을 마을로 불러들이자고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다. 1997~1998년에 떡마을 엄마 10여 명이 공동으로 100만 원을 출자하고 마을 땅을 임대했다. 그 땅에 나무로 떡집을 짓고 마을 입구에는 천막을 내서 마을 앞을 지나 다니는 외지인을 상대로 떡을 팔았다. 행상 시절부터 떡을 사먹던 단골이 꽤 있어 찾는 사람이 많았다. 양양시나 속초시에서도 결혼식, 돌잔치 떡 주문이 많이 들어와 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상을 하던 젊은 엄마들이 '마을로 고객을 끌어 온다'는 역발상을 하는 것은 웬만한 자신감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떡을 인 채 두려움도 잊고 고개를 넘던 강인함과 떡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기와로 맛을 낸 민속떡 가공장



### tip 01

#### 떡 하나 주변 안잡아먹지~

망녕고개 뒤편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와 범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골짜기가 있다. 밤이 되면 이 곳에 호랑이가 자주 나와 100여년 전에는 실제로 사람을 물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호랑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놓아두고 무사기원을 빌곤 했는데, 호랑이가 떡을 좋아해서 이 마을이 자연스레 떡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전통적 마을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날개를 달다

2012년, 송천 떡마을은 유달리 끈끈한 협동심을 바탕으로 주민 전체가 마을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농림수산물부 농어촌마을대상 마을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다른 마을이 모두 부러워하는 지금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많은 갈등을 거쳐야 했다.

### # 한 번 떡 사는데 세 번 기분 좋은 마을



행상을 잡고 마을로 고객을 불러 들이면서 다시 판로를 개척해 나가려는 엄마들의 의지를 성향 당에서도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얼마 되지 않아 행운이 찾아왔다. 2001년 아름마을 시범사업의 강원도 대표마을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공동 시설을 짓게 된 것.

“이 사업도 기가 막혀. 당시 한 공무원이 마을을 지나가다 떡을 사먹었는데 **큼지막한 떡을 싼 값에 사서 기분 좋고, 맛있어서 기분 좋고, 게다가 떡까지 주니깐 또 기분 좋고, 한 번 떡 사는데 세 번 기분 좋다고 추천해 지원받게 됐지.**”

사실 처음 마을에 떡집을 짓고 공동사업을 시작했을 때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 번거롭다 보니 개인적으로 떡을 파는 엄마들도 많았다. 그러다 아름마을 시범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공동시설을 짓게 되자 처음 공동사업을 추진했던 엄마들은 개인적으로 떡 장사를 하던 엄마들을 설득했고, 이 엄마들이 마을을 위해 개인장사를 포기하고 들어오면서 인원이 15~16인으로 늘게 되었다. 공동사업 인원이 늘다보니 고객층이 늘어 홍보도 수월하고 매출도 늘었다.



시집은 지 얼마 안 된 막내 엄마

눈에 보일 정도로 쌀알이 많이 들어간 취미지

### # 매출이 올라가는 동시에 갈등도 증가하다

마을 가구 중 절반 정도가 공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매출은 점점 올라갔지만 불평도 조금씩 새어나왔다. 사업비가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 떡을 공동으로 만들어 파는 일부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 받아 지은 공동시설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니 마을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저런 불평이 나오자 공동 시설에서 떡을 만드는 엄마들은 부족한 시설이나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이 공동 사업에 새로 들어오고 싶어도 이미 있던 사람들이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문턱이 높아져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을 내부에서는 점점 갈등이 많아졌고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와 참여하지 않는 가구가 반으로 나뉘어 마을 사람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 # 영농 법인을 만들어 마을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다

갈등이 해결을 해갈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강원도 새 농어촌 건설 사업에서 송천 떡마을이 우수마을로 뽑혀 또 한 번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반복하며 지쳐있던 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모든 주민이 10만 원씩 출자하는 방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조합 수익의 10%를 마을에 적립하는 대신 개인 투자는 받지 않았고, 사업수익을 통해 모두에게 처음 출자한 1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돌려주었다. 그러자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고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다.

영농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민 전체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주인의식이 생겨났고 마을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모든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과 '제 몫은 분명히!' 챙겨주는 두 가지 원칙이 갈등 해결의 비결이라는 탁상기 위원장님은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무 것도 안 하면 갈등도 안 생기지. 갈등은 변화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을에는 좋은 거야. 갈등을 겪어봐야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서로 다시 뭉쳤을 때 양보하게 되는 것 같아.”

눈웃음이 멎지 않는 탁상기 위원장님



마을 입구를 지키는 머릿돌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마을은 외부에 알려질까 봐 쉬쉬하고 어떤 마을은 갈등을 외면해 오랜 이웃끼리 등을 돌리기도 한다. 사실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 나가느냐에 있다.

송천 떡마을은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갈등을 통해 마을의 미래를 보았다.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은 뒤에는 다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때로는 이권을 포기하면서 조금씩 양보했다. 그렇게 푹푹 뭉쳐 이제는 다른 마을이 부러워하는 마을로 발돋움한 송천 떡마을. 모든 마을 주민의 참여와 지지라는 튼튼한 양 날개를 달고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 공판장에서 팔고 있는 농산품이 정겹다.



### tip 02

#### 누구든 와서 일하고 무엇이든 파시오

마을에서는 떡, 농산물, 표고재배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각각 하는 일은 달라도 운영 체계는 동일하다. 마을 시설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작목반 형태로 와서 일을 한다. 인건비는 사업장별로 정산해서 일한 만큼 가져간다. 누구든지 농산품을 팔 사람은 마을 입구 공판장에 이름만 써서 가져오면 위탁 수수료 10%를 받고 팔아준다.



## 고소한 떡 냄새, 푸근한 사람 냄새

떡을 짓을 만드는 마을이라 그런지 유달리 정이 넘치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았던 송천 떡마을. 고소한 떡 냄새만큼이나 푸근한 사람 냄새가 넘치는 이 곳의 소소한 일상을 들여다보니,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마을이다.



익살스러운 듯 당당한 풍채로 마을을 지키고 선 장승들

## # 여인천하, 떡 만드는 건 엄마들 몫



“엄마, 우리 꼭 깨워서 데리고 가야 해요! 꼭이요!”

전통 방식대로 떡 만드는 것을 보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민박집 엄마에게 꼭 데려갈 것을 몇 번이나 부탁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새벽 세시! 세수만 겨우 한 얼굴로 부녀회장님을 따라 가공장으로 향했다. 가공장에서는 이미 빨간 앞치마와 하얀 머릿수건을 차려입은 엄마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수다를 떠시며 벌써부터 찹쌀떡을 빚고 계신다. “오늘은 주문이 많지 않아서 벌써 끝났는데 어쩐다니~”

갑소사. 무려 3시에 일어났는데 벌써 끝났다니. 아쉬움에 머뭇거리는데 아직 바람떡은 안했다고 기다려 보라신다. 곧 엄마 십여 분이 소주잔을 하나씩 챙기신 후 떡판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으신다. 그 모습이 재밌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구경하는데, 떡을 밀고 고물을 넣고 한 겹을 덮은 후 소주잔으로 미는 동작이 생활의 달인에 나올법한 솜씨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문량을 다 만들어 버리신다. 엄마들이 떡을 빚는 모습을 지켜보니 떡을 반죽할 때마다 무언가를 손에 찍어 바르신다. 물어보니 꿀을 내리고 난 벌집을 기름에 볶고 들기름을 넣은 것으로, 손에 바르면 떡끼리 붙지도 않고 냄새도 배지 않는다고 한다. 바람떡을 다 만든 후에 들기름을 발라주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고소한지 몸이 절로 따라간다. 그 모습에 엄마들이 맛 보라며 한 움큼씩 남겨 주신다. 통통하게 생긴 떡 안에 공기가 차있어 씹는 재미가 있다.

tip 03

바람떡? 공갈떡?

바람떡은 소주잔으로 떡을 밀 때 공기가 들어가서 지어진 이름인데 통통한 모양과는 달리 씹으면 안이 비어 공갈떡이라고도 한다. 안에 들어간 고물은 직접 농사를 지은 팥의 껍질을 까서 만든 것으로, 두 주먹에 조금씩 쥐어 찜 쎌이를 하며 만든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적절한 양을 집어 적절히 힘을 주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tip 04

송천떡 맛보기!

송천에서는 인절미, 찹쌀떡, 바람떡, 썩버무리, 찰 멥쌀이, 절편 등을 맛볼 수 있다. 송천떡은 찹쌀 100%로 만든다. 전분가루와 설탕을 많이 넣어 빨리 질리는 여느 떡과는 달리 송천떡은 쌀알을 많이 넣기 때문에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식감이 좋아 감칠맛이 난다. 하나 먹으면 두 개 먹고 싶고 두 개 먹으면 세 개 먹고 싶은 떡이 바로 송천떡! 홈페이지(<http://songcheno.invil.org>)를 통해 맛있는 송천떡을 당일 택배로도 구매할 수 있다.



# 남자가 살기 제일 편한 마을?

마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송천 떡마을이 남자가 제일 살기 편한 마을이라는 것. 마을이 가난했던 시절부터 떡마을로 유명해진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녀회가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떡을 만드는 것도 엄마, 망녕고개를 넘어 팔러 다닌 것도 엄마, 심지어 사무장님도 엄마! 그럼 마을 남자들은 다들 무슨 일을 하나하는 우리의 낯익은 질문에 “남자들도 다 하는 일이 있지~ 떡메도 치고 김치도 담그고, 새벽에 남자들이 떡메를 쳐야 되는데 전날 술 먹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짜증나잖아. 그래 떡메를 살살 쳐야 되는데 불만 표시하려고 괜히 세계 쳐서 떡이 팍 터지고 그랬지. 히히히”라며 웃으신다.

아버지들의 소심한 반항을 들으며 함께 웃는다. 길으로 보기에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마을이지만, 뒤에서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남편들이 있어 엄마들의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

# 쫄득~한 떡보다 더 쫄득쫄득한 情

마을에 머물렀던 날들은 하필이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동안 손발은 물론 얼굴도 쫄쫄 얼어버렸다. 마을 입구 공판장에서는 어떤 농산품을 파는지 한창 둘러보고 있는데 공판장 옆 송이슈퍼 엄마가 손 좀 녹이고 가라며 부르신다. 가장 따뜻한 난로 옆 자리를 내주시고는 커피를 타주시는데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다. 엄마들이 공판장에서 떡과 농산품을 파시다가 몸도 녹이고 손님들이 들어와서 간단한 안주거리를 먹을 수도 있는 곳이다. 정겨운 손글씨의 메뉴판 중 특히 돼지껍데기가 눈에 띄어 ‘떡 말고 돼지껍데기도 드시나?’ 하는 생각을 스치듯 한 다음날, 옛날이야기를 들으러 간 노인회관에서 그 돼지껍데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쌀과자와 홍삼캔디를 사두고 노인회관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보인 것은 소주와 맥주를 적절히 섞은 폭탄주. 모여 계시던 어르신들이 우리를 반겨주시면서 창고에서 맥주를 서너 병 꺼내와 따라주신다. 안주는 바로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돼지껍데기. 할머니들은 편히 앉아 할아버지가 해주신 돼지껍데기를 맛있게 드신다. 남자가 살기 편한 마을이라고들 하지만 남자가 하는 일이 참 다양하다.

“인 단 만 원씩 내고 먹어~ 4명이니까 깎아서 2만 원만 내.” 농담을 건네시는 할아버지께 과자 사왔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돼지껍데기를 입안에 넣으니 갓 볶아서 그런지 부드럽고 적당히 쫄쫄해 안주로는 딱이다. 식으면 굳어서 맛이 없으니 얼른 먹으라신다. 떡마을에 와서 다양한 종류의 떡에다 돼지껍데기까지 맛을 봤으니 배가 아주 호강이다. 옛날이야기를 듣고 성황당에 가보려고 나서는 우리에게 요리사 할아버지가 따라 나와 배웅해주시며 한 마디 남기신다.

“돈 안 받을 테니까 먹고 싶으면 또 와서 먹어. 정말로!”

종종 생각나곤 하는 쫄득한 돼지껍데기

요리사 할아버지, 노인회장님과 함께



새벽부터 고되게 일을 하는 만큼 마을에는 어둠도 빨리 찾아온다. 민박집 엄마가 해주신 이른 저녁밥을 먹은 후, 아버지가 나무를 때주신 덕분에 지글지글 끓는 방바닥에 등을 지지며 생각에 잠긴다.

서울에서만 살았던 나에게 송천 떡마을은 농촌다움을 제대로 느끼게 해 준 곳이었다. 마을을 둘러싼 자연을 꼭 닮아 송천 사람들은 소탈하고 정이 넘친다. 겨울철 비수기라 오래 비워둬 냉기가 감도는 방을 데우려고 추운 날씨에 우리가 오기 하루 전부터 나무를 때웠다는 황토민박 아버지와 끼니 마다 다른 반찬을 해주시면서도 반찬이 없어 어찌냐고 미안해 하시던 엄마. 간식거리를 나눠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귀찮게 하는 우리에게 떡과 정을 나눠주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내 엉덩이를 두드리시던 엄마들. 우리가 돌아오면 꼬리를 치며 반기던 민박집 멍멍이.

2박 3일 동안 쫄깃한 떡만 큼이나 쫘득쫘득한 사람 사는 정을 많이 느끼고 간다.

마지막으로 공판장에서 떡을 사가려는데 마침 연화엄마가 당번이다. 벌써 가냐고 아쉬워하시며 떡 값도 깎아주시고 덤까지 주신다. 한 번 떡을 사니 정말 세 번 기분이 좋아지는 곳, 송천 떡마을. 맛있는 떡과 함께 마음 가득 정을 품고 버스에 오른다.

민박집 엄마, 아빠, 위원장님과 함께



★ 찾아가는 길

강원도 양양군 서면 떡마을길 107

1. 대중교통 이용 시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혹은 동서울터미널에서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약 3시간) 도착 후 갈천행 시내버스를 타고 서림리 하차(시내버스 1시간 간격)

2. 자가용 이용시

구룡령으로 올 경우 : 50번 국도를 따라 구룡령을 넘어 갈천리와 미천골자연휴양림을 지나면 마을입구 표지석

한계령으로 올 경우 : 44번 국도를 따라 한계령을 넘어 오색약수를 지난 후 구룡령과의 갈림길에서 구룡령 방면으로 진입 후 양양발전소사거리를 지나 서림리 도착

★ 주변관광지

송천 계곡

남설악 주전골로부터 송천리를 둘러 흐르는 송천계곡은 물이 차고 맑아 여름이면 고기잡이와 물놀이를 하려는 피서객으로 민박집엔 남는 방이 없을 정도



양양 5일장

매달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열리는 5일장에서는 설악권에서 가장 좋은 양양 농특산물을 가장 싼 값에 구입하면서 넉넉한 인심과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오색약수터

주변에 다섯가지 을 가진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 오색약수터라 불린다는 이곳의 약수는 철분이 많고 위장에 좋아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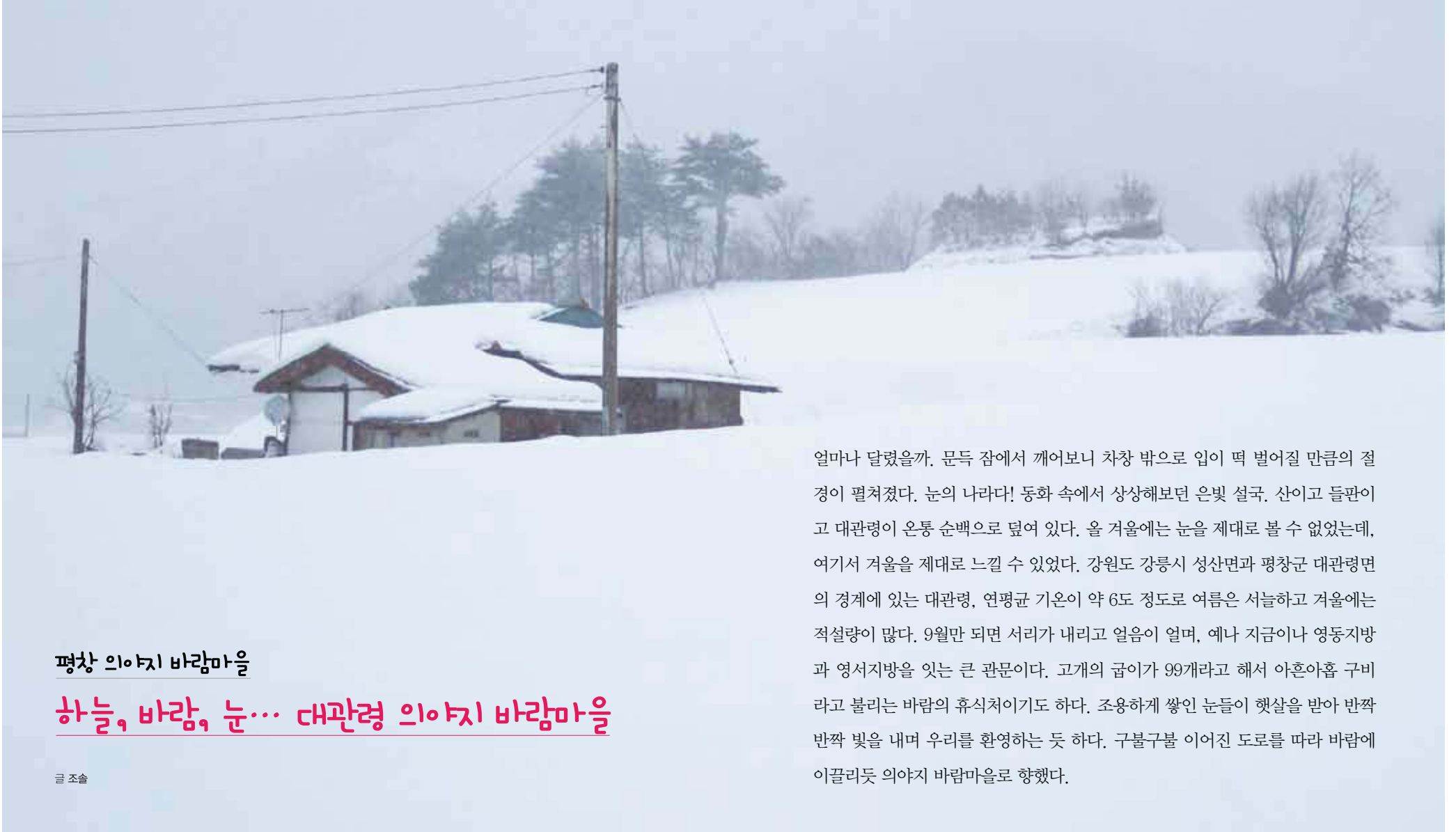
★ 체험프로그램

송천 떡 만들기

송천 떡마을에서는 직접 떡메를 쳐서 인절미와 찹쌀떡을 만드는 체험이 가능하다. 10인 이상일 경우 진행되며, 1일 6회 체험 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1. 송천의 청정 계곡수로 자란 쌀을 2시간 동안 물에 불린다.
2. 다 불린 쌀을 채로 건져 물기를 뺀 후 시루에 넣고 1시간 동안 찌낸다.
3. 잘 찌진 찹쌀을 양반(떡판)에 놓고 떡메로 쿵덕쿵덕 찧기있게 찧는다.
4. 잘 찌진 찧떡에 팔고물을 묻힌다.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

하늘, 바람, 눈... 대관령 의야지 바람마을

글 조슬

얼마나 달렸을까.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차창 밖으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절경이 펼쳐졌다. 눈의 나라다! 동화 속에서 상상해보던 은빛 설국. 산이고 들판이고 대관령이 온통 순백으로 덮여 있다. 올 겨울에는 눈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 겨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과 평창군 대관령면의 경계에 있는 대관령, 연평균 기온이 약 6도 정도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다. 9월만 되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며, 예나 지금이나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잇는 큰 관문이다. 고개의 굽이가 99개라고 해서 아흔아홉 구비라고 불리는 바람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조용하게 쌓인 눈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 반짝 빛을 내며 우리를 환영하는 듯 하다.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를 따라 바람에 이끌리듯 의야지 바람마을로 향했다.



## # 바람의 언덕

바람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평창 눈꽃축제가 반갑게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평창의 '대관령 눈꽃축제'는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었다. 3번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눈꽃축제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계절 산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의아지 바람마을이 있다. 해발 750~800m에 위치해 있으며 겨울이면 가장 깨끗한 눈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마을. 하늘아래 첫 동네로 우리나라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마을.

도시에서만 살던 나에게 대관령 산촌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광활한 눈밭과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가까워진 하늘을 보며 나의 자잘한 모든 걱정들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

바람마을의 원래 명칭은 '의아지(義野地) 마을'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바람마을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행여 날아갈까 조심조심. 대관령 산골짜기에서 몰아치는 바람에 머리카락이며 옷자락이 신나게 춤을 추었다. 마을 명칭이 바람마을이니 기왕이면 바람개비 모형이나 바람과 관련된 조각상들로 마을을 디자인하면 어떨까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해보았더니,

**“그렇지 않아도 바람개비 모형을 이것저것 세워보았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몽땅 다 날아갔어요.”**

이처럼 바람이 사랑하는 이 곳은 바람이 가져다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독특한 향기를 말할 수 있다. 봄에는 향기로운 꽃냄새가,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빛 풀향기를, 가을에는 태백산맥이 가져다 주는 알록달록한 단풍잎의 향기를, 겨울에는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것 같은 상쾌하고 순백의 눈의 향기를 안겨준다.





지난밤에  
눈이 소—복히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윤동주, '눈'〉

### # 고랭지밭, 겨울이면 눈꽃동산으로 변신

바람마을엔 지난번에 내렸던 눈이 녹지도 않고 숨이불 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다. 이상하게 눈이 차갑지 않고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다. 윤동주의 「눈」에서처럼 눈이 바람마을이 있는 이곳에 길이랑 밭이랑 지붕 위에 이불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러 왔는가 보다.

바람마을의 눈은 나에게 설렘의 감정을 가져다 줬다. 새하얗게 끝없이 펼쳐진 눈밭을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다.

바람마을 체험장에서 눈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바람마을은 산간지역이라는 자연환경 덕택에 겨울에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도 바람마을 체험장인 '스노우파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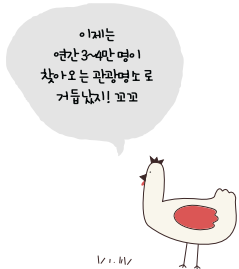
사시사철 여름 날씨인 태국과 싱가포르 관광객들은 하얗고 차가운 눈에 매료되어 있었다.



눈을 처음 봐서인지 신기한 눈빛으로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눕기도 하는 등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한국의 겨울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타고 자란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금 깨달았다.

썰매를 빨리 타보고 싶은 마음에 같이 온 동료들과 함께 한걸음에 달려가 한손에 튜브썰매를 쥐고 긴 터널을 오르기 시작했다. 썰매에 앉아 약간 긴장한 듯 손잡이를 나도 모르게 움켜잡았다. 하지만 내려가는 관광객들의 긴 환호성에 '에라 모르겠다. 출발이다!' 하고 내려왔다. 언제 겁먹었냐는 듯 바람마을의 눈썰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었다. 거의 15년 만에 탄 눈썰매라 그런지 감회도 새롭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눈 언덕을 오르내렸다.

사실 바람마을의 드넓은 눈밭은 바로 고랭지 밭이다. 산촌마을인 이 곳에서 주민들은 고랭지 농사를 짓는다. 면적이 147ha나 되는 농토에 감자, 당근, 딸기 등을 심는데, 이 널따란 밭이 겨울이 되면 전부 눈으로 뒤덮이고 마을 사람들은 6개월이라는 긴 농한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것이 바로 체험마을이다. 비록 시작이 서투르고 실패도 경험했지만 이제는 연간 3~4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 # 다함께 치~즈!

정신없이 썰매를 타다 보니 어느새 배가 출출해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간질였다. '치즈체험장'이라고 크게 써진 목조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장소에 테이블이 빼곡히 차있다. 치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수연 선생님도 이 곳에서 32년째 살고 있는 바람마을 주민이다. 체험 활동은 최 선생님의 치즈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옛날에 고대 아라비아 행상이었던 카나나(Kanana)가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고파 양의 위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염소의 젖을 먹으려고 보니 흰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먹어보니 말랑말랑하고 고소하며 맛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치즈였답니다.”

우유가 새하얀 덩어리의 치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국내의 관광객들은 연신 '우와~!' 하며 감탄사를 쏟아냈다. 완성된 치즈에 비타민C를 결들이기 위해 레몬 파우더를 솔솔 뿌린 뒤 형형색색의 꽃을 장식했다. 걸모습과 질감은 두부와 비슷했으며, 맛은 담백하면서 고소했다. 한입 두입 어느새 한 그릇을 금방 비웠다.

### tip 01 치즈의 효능

원활한 소화 · 흡수, 충치 예방, 숙취 해소, 꿀맛 같은 잠, 다이어트, 그 외에 피부미용, 발암물질 억제 등에 효능이 있다.

\* 치즈는 온도와 습도 등 숙성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치즈의 맛과 향기가 만들어진다. 숙성기간은 1~12개월까지이며 치즈종류에 따라 다르다.





### # 양들의 침묵? NO~ 양들의 울음소리!

치즈체험장 옆에는 양들이 한가롭게 쉬고 있었다. 순진하게 생긴 귀여운 얼굴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먹이주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양들이 우리를 향해 애절한 눈빛을 발사한다. “메에~~메에에~~”하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들이 뭐가 그리 급한지 울타리를 짚고 일어서서 누구보다 먼저 먹이를 먹기 위해 애타게 우리를 부른다. 어찌나 힘이 센지, 먹이를 주자 행여나 빼앗길까봐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하마터면 먹이통을 놓칠 뻔했다.

“양은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면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그칠 때까지 서 있어요. 그 광경이 신기해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무장님의 말에 장마철에 다시 이 곳을 찾아 시간이 멈춘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졌다. 양들은 전방 1~2m도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나쁘다고 하니, 아마도 비가 오면 앞이 안보여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이유야 어찌됐든 시간이 멈춘 그 신비로운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 순간 하얀 양 떼 속에 까만 양 한 마리가 홀로 노닐고 있었다. 양은 원래 무리지어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까만 양은 혼자였다. 이 검은색 양은 말하자면 돌연변이. 미운오리처럼 양무리에서 얼굴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 그렇지만 마스크에 20번이나 나온 인기스타. 비록 양 친구들은 적을지 몰라도 검은 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이 곳을 찾는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알까.

“까망아,  
건강하게 자라다오!”



## # 멧돼지가 나타났다!

강원도 속담에 ‘강원도 포수’라는 말이 있다. 강원도는 위낙 산이 높고 험해 사냥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빗대어 소식이 없거나 온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을 보고 ‘강원도 포수’라고 부른다. 그만큼 강원도는 산이 험한 산촌지역이다. 그렇다 보니 해발 700m가 넘어 바깥과 왕래가 별로 없는 산촌마을의 겨울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한 겨울에도 토끼나 멧돼지를 잡았다고 한다. 그냥 걷기도 힘들 만큼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사냥을 했을까? 이동수단은 바로 설피였다. 설피는 무릎까지 눈에 푹푹 빠지는 바람마을의 겨울철 주요 이동수단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어두운 물체의 움직임이 보인다.

“멧돼지다! 저 날카롭게 솟아있는 송곳니를 조심해야한다.”

다행히 우리네가 먼저 발견을 했다.

## “선창이요!”, “재창이요!”, “삼창이요!”

꺽기에 어디선가 멧돼지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가장 날쌔고 힘이 좋은 아버지가 재빠르게 다가가 ‘휘이익’하고 정확하게 돼지의 급소를 찌른다. 뒤이어 다음 사람이 창을 힘껏 던진다. 멧돼지는 250kg로 짐채만 하다고 비유하셨는데 그 크기가 나오서는 짐작이 안됐다.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기도 했다가 겁먹어 도망치는 멧돼지가 되기도 했다.



## # 절경 그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마을

아뽀싸, 큰일이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자그마한 마을을 기대하고 왔는데, 한집을 한참 건너야 한집이 나타났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풍경을 뒤로 하고 허기진 배를 달래러 마을 안의 음식점에 들어섰다. 우리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설 명절 바로 직전. 분주하고 활발한 분위기가 벌써 설날인 것 같았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건드린다. 주인 아주머니가 설 명절 떡을 만들고 있었다. 요즘엔 직접 떡을 하는 집이 드물어 보기 힘든 광경이라는 사무장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바로 꺼낸 떡이라 김이 모락모락 나고 들기름을 둘러 고소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홈메이드 떡의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의야지 바람마을의 설날은 어떤 모습일까? 바람마을은 특별한 설날 풍습이 있다. 설날 당일 아침 10시에 마을회관에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세배를 한다. 세배 순서는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께 전부 세배를 하고 그 다음 나이순으로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세배를 하고 맛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놀이를 하루를 보낸다. 바람마을 자체가 한 가족인 셈이다. 오후 2시쯤 우리는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다. 거기서 마을 노인회장님을 만났는데,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김충경 할아버지께 듣는 효 이야기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할아버지는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평생마음에 남아있던 아버지였기에 할아버지는 60세가 되던 날, 요즘 세대에는 거의 없어진 부모님 삼년상을 치르기로 결심 하셨다. 부모님을 추억하는 상이라는 뜻인 '추상(追賞)'을 치렀다. 환갑잔치도 하지 않은 채, 상 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상막을 모셨다.

“부모님께 잘해야 해. 효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 주는 것이지. 지금도 마중 나와 나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아른 거려.”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을 이어갔다.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간 부모님 께 투정을 부리고 속상하게 해드린 일 등이 화살이 되어 내 심장을 아프게 했다.

어느새 2박 3일의 일정이 지났다. 아쉬움을 남긴 채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랐다. 이곳에서의 2박 3일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을 것이다. 한가롭고 여유롭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람마을. 보고 듣고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고요하게 내 마음을 일렁였고, 때로는 거대한 돌풍이 되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지금도 코 끝이 차갑도록 시원한 바람마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한가롭고 여유롭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람마을

★바람마을 주변 관광지



대관령 양떼목장    봉평 허브나라    대관령 삼양목장    알펜시아 리조트    오대산 국립공원    용평 리조트

★바람마을 특산물



대관령 눈서리 시래기    대관령 한우 육포

★찾아가는 길

1. 대중교통 이용 시

횡계시외버스터미널→의아지 바람마을회관까지 택시로10분 정도 소요  
(택시요금 약 5,000원, 횡계터미널 033-335-5289)

2. 승용차 이용 시

영동고속도로에서 횡계IC → 횡계 톨게이트에서 우회전 → 횡계방면 → 횡계로터리에서  
대관령 삼양목장 방면으로 좌회전 → 횡계교를 건너서 좌회전 → 작은 다리를 건너면  
의아지 바람마을 표지판

★체험프로그램

- 여름 : 여름꽃체험, 감자캐기, 딸기따기, 풀설패타기, 양털공예
- 가을 : 당근밭체험
- 겨울 : 스노우파크, 튜브설패타기, 불슬레이썰매, 딸기잼만들기
- 연중체험 : 양목장체험, 비누만들기, 치즈만들기, 사료ATV타기, 감자체험



충주 하니마을

## 재오개마을, 달콤한 하니마을로 재탄생

글 이수현

도심을 벗어나 충주에 도착하는 데 2시간 30분이면 충분했다. 충주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사과나무 가로수 길이었다. 사과와 도시답게 마을로 향하는 길에는 사과나무가 늘어서 있다. 가을에 오지 못한 것이 한없이 아쉬울 뿐이다. 가을이 되면 새빨강게 익은 사과들이 풍성하게 달려 길에서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한다. 사과나무 가로수 길을 지나고, 복상(복숭아의 충청도 사투리)밭을 지나 굽이진 신매고개를 넘었다. 신매고개는 계명지맥을 넘는 고개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무로만 가득했던 건조한 겨울풍경에 변화가 생겼다. 오른쪽 차창 밖으로 충주호의 풍광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충주호와 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월악산이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마주하는 마을은 어떨까하는 기대감을 가득 안고 길을 재촉했다.



이 마을 주민의 95%가 사과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꿀벌을 키우는구나!



### # 재오개마을, '하니마을'로 다시태어나다.

전체 주민의 95%가 사과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꿀벌을 키우는 하니마을은 이름만큼이나 달콤한 마을이다. 2008년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후 마을 자체의 사과, 벌 농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과수 수확기에 마을을 방문하면 사과 밭에서 직접 사과를 딸 수 있고, 꿀이 한창 많이 나는 봄에는 벌집을 열고 로열 젤리를 직접 채취할 수도 있다. 다른 마을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곳이 하니마을만의 자랑거리다.

####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하니마을

처음부터 지금의 하니마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어느 마을이나 그러하듯이 지금의 하니마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갈등과 위기 상황이 있었다. 사과와 꿀벌 농업 사이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마다 꽃이 피는 봄이 되면 분쟁이 일어났다. 사과 농사를 짓다 보면 농약을 뿌리게 되는데 꿀벌이 수분을 하러 이 사과 꽃에 앉게 된다. 그러

다 보니 벌에 농약이 묻게 됐고, 많은 수의 벌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꿀벌 농가는 멀리 이동하였다가 꽃이 지면 다시 돌아와야 했고, 과수 농가는 화분매개를 하는 꿀벌이 없어졌다.

마을주민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마을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았다. 꿀벌이 수분하는 시기에는 농약을 적게 뿌리거나 해가 저서 벌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만 살포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농약을 이용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이유로 분쟁이 많아 사과 농업과 벌 농업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했던가. 하니마을에서는 마을 사람 모두 조금씩 양보하면서 화합을 이루며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다른 마을에서 견학을 오

독특한 모양의 하니마을 체험장



는 선진 마을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우리 마을은 달콤한 꿀과 과일이 많이 나는 마을이에요. 이 곳을 다녀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달콤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장님이 하니마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본래 이 마을의 이름은 재오개였다. 재오개라는 이름도 충분히 매력 있지만 귀에 쏙 들어오거나 기억에 잘 남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08년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고, 2009년에 법인 지정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마을주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면서 고민을 하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하니마을’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국에서 최초로 꿀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을 운영하는가 하면 양봉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 #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마을

가장 먼저 하니마을의 대표적인 체험활동인 꿀벌생태체험을 시작했다. 체험에 앞서 유철영 위원장님을 만났다. 유 위원장님은 꿀벌에 관한 한 손꼽히는 전문가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여왕벌 인공교배 기술 보유자다. 식사를 할 때에도 거의 말쑥이 없던 위원장님은 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자 눈빛이 달라졌다. 꿀벌생태체험은 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벌은 크게 숫벌, 일벌 그리고 여왕벌로 나눌 수 있어요. 일벌과 여왕벌은 같은 유정란인데, 알이 부화되는 순간부터 3일 동안 로열젤리를 먹이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연과 생활 수업시간에 와있는 것만 같았다. 꿀벌의 생활, 꿀벌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 봉산물의 소개 등 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실제로도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설명이 끝나고 우리는 위원



노란 스티커가 붙은 여왕벌



형형색색의 양봉장

장님의 개인 실험실로 이동했다.

그 곳에는 커다란 유리 벌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꿀벌의 생태를 연구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설치한 것이었다. 투명한 유리 벌통 덕분에 우리는 벌집과 벌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설명해주신 대로 꿀벌의 배에서 나온 노란색 밀랍이 유리벽에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벌집의 모양은 정확하게 육각형이었다. 여왕벌의 등에 스티커를 붙여두어서 여왕벌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생태체험을 마치고 밀랍초 만들기 체험을 시작했다. 체험장 곳곳에 귀여운 양초와 장식품들이 놓여있었는데, 모두 밀랍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밀랍은 벌집의 재료로 쓰이는 성분으로 일벌의 배 아래쪽의 각 마디에서 분비되는 노란색 물질이다. 일벌은 이것으로 꿀을 모으고 알을 놓아두며 벌집을 만든다. 꿀을 수거하고 난 후에 벌집을 녹이고 여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뒤 압착하여 밀랍을 얻을 수 있다. 체험은 밀랍을 큰 주전자에 끓여서 녹인 다음 각자 원하는 주형틀을 선택하여 밀랍을 붓고, 식히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주형틀만 봐서는 실제로 어떤 모양의 양초가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밀랍을 굳히는 시간이 길게

tip 01

수수부꾸미란?

찰수수가루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빚어 기름에 지진 다음 여러 가지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지진 떡이다. 화전이나 주악처럼 기름에 지지는 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소를 넣고 반을 접어 다시 지진다는 점이 다르다. 수수에는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준다. 또한, 타닌과 페놀 성분이 항산화작용을 하여 항암효과가 있으며 소화촉진, 성장발달 효과도 있다.



만 느껴졌다. 밀랍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고, 또 쉽게 굳기 때문에 입김으로 살짝만 불어도 표면이 굳으면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문을 열고 상쾌한 산들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는 동안 밀랍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조선시대에는 밀랍초를 황초라고 불렀는데, 밀랍 특유의 누런 색깔 때문이라고 한다. 왕의 하사품 중 하나일 정도로 매우 귀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파라핀초가 들어오면서부터 밀랍초를 찾는 사람이 점점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웰빙 추세에 따라 밀랍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사무장님께서 밀랍초를 태우면 다른 양초와 다르게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밀랍에는 면역증강의 효능이 있는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가 포함되어 있어 세균번식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가운 겨울바람 덕분에 밀랍초는 금방 굳어졌고 우리는 강아지, 꽃을 입에 문 송아지, 엄마 고릴라와 아기 고릴라 등 다양한 모양의 밀랍초를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꿀을 이용해 수수부꾸미를 만드는 체험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밤새 내린 눈 때문에 마을 위쪽에 사는 체험 담당 아주머니가 마을 체험장까지 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아쉽긴 했지만 이런 것도 이 산골마을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았다.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 유철영 위원장님



우리들이 직접 만든 밀랍초

tip 02

꿀벌이 준 또 하나의 선물,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집을 만들 때 수목의 싹이나 껍질에서 채취한 수액과 꿀벌 자신이 분비하는 타액을 섞어서 만들어낸 물질로 벌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천연의 항생물질로 알려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온갖 질병에 사용되어 왔는데, 실제로 생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주며 항알레르기작용, 진통작용을 한다. 이외에도 암을 비롯하여 당뇨병, 고혈압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굽이굽이 고갯길 따라 이야기가 흐르는 마을

## # 情 이 넘치는 마을

사무장님께서 직접 처마 밑에 말리신 꽃감을 따주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보여드릴게요.”

충주호와 월악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정자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사무장님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따라나섰다. 하니마을 체험장과 마을회관이 있는 곳을 조금 벗어나니 도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로 비포장 고갯길이 옛날 모습 그대로 끝없이 굽이져있는 모습이였다. 아무리 시골마을이지만 요즘에도 아직 이렇게 비포장 옛길이 남아있다니! 길게 이어져 있는 옛길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다.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차는 설새 없이 흔들렸고 엉덩이도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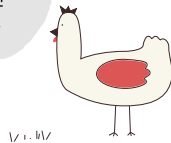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옛길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 역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 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었다. 역시나 고갯길 한참 마다 집이 듬성듬성 있었다. 고개를 넘으며 마을 한 바퀴를 다 둘러면 만나질은 걸릴 것이라는 사무장님의 말씀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 한참을 달리자 마을의 끝에 다다랐고 재오개마을의 마지막 집을 볼 수 있었다. 이 마



새잡는 시범을 보이시는 아저씨

을의 비포장 고갯길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역사가 그대로 서려 있는 듯 했다. 마을의 맨 끝자락에 위치한 집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저씨는 계곡수를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하는데 날이 추워서 자꾸 얼어 며칠씩 물이 안 나온다고 한다. 이어 비포장 길 때문에 어디 한번 나가려면 아주 힘들다는 푸념도 하였다.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관광코스가 주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있어 속상했다. 따뜻한 메밀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다음 일정 때문에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집을 나서는데 마당 앞에 나무막대로 고정시켜 놓은 큰 키가 보였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자 아저씨께서 키를 이용해 직접 새잡는 시범을 보여줬다. 바로 새를 잡는 용도였다. 가끔 새를 잡는다는 아저씨께 새는 잡아서 뭐하느냐고 묻자 “뒤편, 먹지”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마을의 역사가 서려있는  
길을 따라 걸으며  
옛정취를 물씬  
느껴 보세요~!



## # 아기장수 전설이 서려있는 마을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오래된 느티나무와 서낭당이 보였다. 백 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대들보에 날짜가 새겨져 있다. 충주댐 건설로 아랫마을이 수몰될 때 그 곳에 있던 서낭당을 마을사람들이 지고 올라 왔다고 한다. 사무장님은 지금도 이 곳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며 마을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 마을은 본래 충주군 살미면 지역으로 다섯 개의 고개 밑에 있어 재오개(才五介)라고 했다. 옛날에 경주 이씨 두 가구가 상경하다가 산수가 좋아 여기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와야 겨우 볼 수 있는 산촌마을이지만 과거에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때는 경상도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을 갈 때 항상 거쳐야 하는 마을이었고, 그 길을 따라 주막들이 늘어설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동제를 지내는 마을의 서낭당

아기장수 전설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마을에 왕기를 타고난 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석달 만에 말을 하고, 재주도 비상하여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았다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 두려워하여 군사를 보내 금봉산 줄기와 재오개 고개의 혈을 끊었고 아기장수는 결국 죽고 말았다. 그 후 마을에 흉흉한 일들이 발생하였고 동제를 지낸 후에야 비로소 나쁜 일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재오개라는 지명의 유래는 재주있는 아기장수가 다섯 살에 죽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때문에 재오개마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정월 보름과 칠월 보름 경에 적당한 날을 선정하여 1년에 두 차례 동제를 지낸다고 한다. 세대주와 자손들까지도 소지를 올리며 가정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동제 다음날 아침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고향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 # '고려장은 없었다',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

'다섯 개의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오개마을은 수많은 골짜기들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그 덕분인지 이 마을은 포근하고 고요한 느낌이 든다. 수많은 골짜기 중, 정략결혼을 하던 시절에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죽었는데도 혼자 시집을 와 평생을 외롭게 살다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애잔골'과 할머니가 혼자 사셨다는 '할미골'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개 하나하나 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재미있고 특이했다. 고개에 대한 전설을 들으면서 마을 어귀를 둘러보았다.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 걸을수록 그 경치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것이 이 마을의 매력인 듯하다.

이때 사무장님께서 조금만 더 가면 고려장의 현장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넓은 사과밭을 지나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가파른 산턱을 오르다 보니 한 무덤이 보였다. 다른 무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무덤이었다. 무덤 아래쪽에는 작지만 깊은 굴이 낙엽에 가려져 있었다. 이 작은 굴은 무덤의 주인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수저나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아끼던 보물 등을 함께 매장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같은 매장 문화에서부터 고려장의 잘못된 역사가 시작되었다.

'고려장'은 늙고 쇠약한 부모님을 산에 버렸다는 장례풍습이다. 그런데 이 고려장은 고려시대 어떤 역사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없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죽은 사람의 생활용품이나 보물을 함께 묻었는데, 이러한 장례 문화를 알고

“저기 보이는 저 구렁이 할미구렁이고,  
저기 저 구렁이 애잔구렁이에요.”



있던 일본이 무덤 속 보물들을 강탈하기 위해 거짓 풍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고려장설화(기로설화)가 설화집과 동화책 등에 소개되면서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실제로 이 마을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려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주보고 있는 할미꽃과 애잔골



고려장 체험 현장



고려장 풍습은 일제시대 때 왜곡된 역사 중 하나예요. 원래는 옛날 장례식 풍습 중 하나였어요.



**tip 03** 기로설화

70살이 된 늙은 아버지를 풍습대로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중에 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손자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지고 온다며 그 지게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자,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 지성으로 봉양했다. 이후 고려장 풍습이 없어졌다는 설화이다.

일명 역사 바로 잡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고려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나마 고려장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이런 체험을 통해 사람들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장님은 산을 내려오며 고려장체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잡고 선조들의 효 사상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고려장체험은 의미가 남달랐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들이 더욱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수몰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을을 떠나는 길, 작은 고개를 넘는데 고개 정상에 정자가 세워져있다. 우리는 잠깐 차를 세우고 망향정으로 올랐다.



다섯 고개 황톳길  
五年 세월 흘러도 잊지 못할 그리움  
등곡산에 떠오르는 해  
월악산이 지켜주던 黃金沃畝  
여기 있었으니 그 이름 망향정  
愛鄉의 옛정 강물로 흐르려네

망향정 앞의 망향석에 새겨져 있는 여섯 줄의 시구가 망향정의 의미를 알게 해줬다. 충주댐 건설로 아래 마을이 수몰되면서 이들의 사연을 담아놓은 정자였다. 유년의 추억이 담긴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의 사연이 더해져 있어선지 충주호의 아름다움이 더욱 깊어 보였다. 굽이굽이 고갯길마다 이야기가 있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하니마을.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는 아쉬움을 충주호의 아름다움으로 위로 받으며 서울로 향했다.

### ★ 찾아가는 길

####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 승용차 이용 시

충부내륙 고속도로 과산IC - 19번 지방도로 - 10분 후 수안보 방향 - 50m지나 신호등에서 좌회전 - 예비군 훈련장 이정표 방향 - 예비군훈련장과 설운리 마을을 지나 언덕을 넘어 신매리 - 신매리 마을 끝에서 좌회전

### ★ 주변관광지

#### 월악나루

월악나루는 관광선을 이용하여 천상의 130리 뱃길로 월악산, 단양팔경을 여행할 수 있다.

#### 칼바위폭포

시원하고 빠른 물살이 30m 높이의 뾰족뾰족 솟은 웅장한 칼바위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와 뒤엉켜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 탁영대

강진 앞 강가에 있는 바위로 영남지방 선비들의 과거길 통로였으며 우암 송시열 선생이 바위에 새긴 '탁영대' 라는 글씨가 지금도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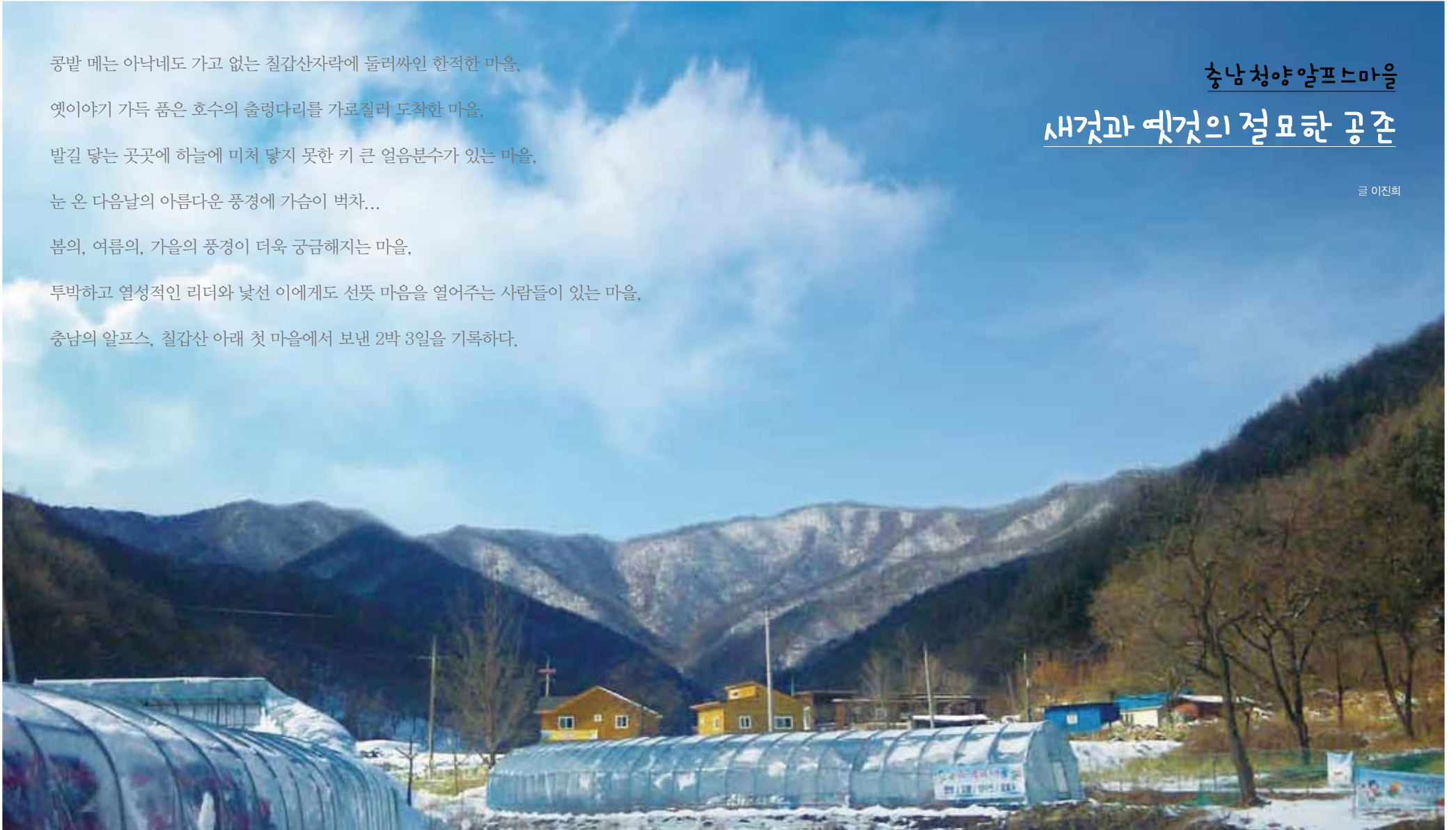
### ★ 체험프로그램

- 봄** 꿀벌생태체험 : 꿀벌의 생태를 유리관과 직접 벌통을 열어서 하는 체험으로 나누어 실시
- 로열젤리 채취 : 로열젤리를 직접 체험하고 맛을 볼 수 있는 체험
- 토종닭 체험 : 토종 닭장에서 토종알을 꺼내어 삶은 뒤 알꾸러미 만들기
- 여름** 물고기 잡기 :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체험으로, 숙박객의 경우 잡은 물고기로 직접 매운탕을 끓여 먹을 수 있음
- 가을** 사과 따기 : 가을철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체험
- 겨울** 고려장 체험 : 역사 바로잡기 체험으로 왜곡된 고려시대의 매장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체험
- 연중** 밀랍인형초 만들기 : 벌집을 녹여 정제된 밀랍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 꿀수수부꾸미 체험 : 전통 수수부꾸미에 꿀을 첨가하여 만드는 체험

콩밭 메는 아낙네도 가고 없는 칠갑산자락에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  
옛이야기 가득 품은 호수의 출렁다리를 가로질러 도착한 마을,  
밭길 닿는 곳곳에 하늘에 미처 닿지 못한 키 큰 얼음분수가 있는 마을,  
눈 온 다음날의 아름다운 풍경에 가슴이 벅차...  
봄의, 여름의, 가을의 풍경이 더욱 궁금해지는 마을,  
투박하고 열성적인 리더와 낯선 이에게도 선뜻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아래 첫 마을에서 보낸 2박 3일을 기록하다.

## 충남청양알프스마을 새것과 옛것의 절묘한 공존

글 이진희



## # 포근하게 대지를 품은 어머니 산, 그 아래 첫 마을

“얘야, 천장리까지 가려면 배름빳을 박박 기어서 한참을 가야 한단다.”

“40년도 더 전에 첩첩 산골로 시집가는 내게 우리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여.”

천장리는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의 행정리(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이다. 2007년 ‘알프스마을’로 명칭을 정하기 전까지 이 마을은 지붕처럼 높은 곳에 자리잡았다하여 천장리로 이름 붙여졌다.

알프스마을로 향하는 청양·정산행 고속버스를 타고 두 시간여를 달려 정산면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 그 아래 알프스마을이 있다.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눈 덮인 산 아래 펼쳐진 비경을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버스에서 내리니 입구도 잘 찾을 수 없는 작은 대합실과 외지로 나가는 시외버스 몇 대가 보이는 한적한 풍경이 펼쳐졌다.

올라오는 차편을 알아보기 위해 대합실로 들어섰다. 예닐곱 명이 겨우 앉을 만한 의자가 마련된 좁은 공간 벽면에 차 시간과 운임표가 빼곡히 붙어있다. 들어서자마자 한 어르신께서 “여기, 은산까지 가는 거 두 장만 끊어줘 봐.” 라며 천 원짜리 몇 장을 내미신다. 차표를 끊어다 드리니, 친근하게 말을 건네신다. 이런 저런 물음에 대답하며 몇 마디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웬지 모르게 긴장됐던 마음이 탁 풀렸다. 마을 내에 슈퍼마켓이 없다는 말에 먼 내에 있는 마트에서 이것저것 장을 본 후 본격적으로 알프스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에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알프스마을로 향하기를 십여분, 사방이 칠갑산 봉우리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드디어 만났다. 반갑다, 알프스 마을. 청양 알프스마을은 충남의 대표적 명산으로 불리는 칠갑산 정상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다. ‘콩밭 메는 아낙네야~’로 시작하는 가요 ‘칠갑산’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 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완만하게 난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니, 높고 험하지는 않으나 깊고 웅장한 산세의 칠갑산이 왜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지 이해가

되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조용히 내려다보는 포근한 어머니와 같은 산이다.

‘칠갑산’이란 이름은 백제시대에 지어졌다고 한다. 백제는 칠갑산을 사비성 정북방의 진산으로 여겨 제천행사를 지냈는데, 만물생성의 7대 근원인 七(칠)자와 짝이 되는 시작의 의미를 지닌 甲(갑)자를 합해 만물의 시원인 ‘칠갑산’이라고 붙였다는 것. 또한 금강 상류의 지천을 굽어보는 일곱(七) 장수가 나올 갑(甲)자형의 일곱 자리 명당이 있어 ‘칠갑산’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칠갑산을 끼고, 마을 뒤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조금 걷다보니 탁 트인 호수가 펼쳐졌다. 마침 눈이 많이 온 터라 얼어붙은 호수 표면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로 유명한 천장호다. 청양명승 10선에 꼽힐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사랑하는 천장호는 TV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천장호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는 청양의 특산물인 고추와 구기자를 형상화한 기둥을 시작으로 황룡과 호랑이상이 있는 반대편 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조용한 산세에 너무도 선명한 색의 황룡과 호랑이 상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여기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아주 옛날 칠갑산에 살던 심술꾸러기 호랑이의 사소한 장난으





천장호 출렁다리 끝자락에서 천장호를 내려다 보고있는 칠갑산의 영물 호랑이.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처럼 생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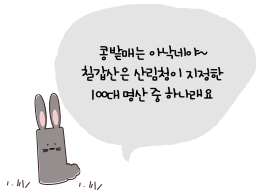
호수 위의 하얀 눈발을 가르는 천장호 출렁다리를 직접 건너본다. 흔들흔들, 국내 최장(最長)의 출렁다리다.

로 어린아이가 물에 떠내려 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마침 천년의 수련을 마치고 승천을 기다리는 황룡이 작은 연못을 파고 마지막 수련을 하다가, 아이를 구하느라 그토록 염원하던 승천의 기회를 놓쳤다. 이를 본 호랑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후 선행을 행하며 칠갑산을 지키는 영물이 되었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용이 수련하던 곳에는 천장호가, 아이를 구했던 곳에는 출렁다리가 생겼고, 황룡과 호랑이가 이 다리를 굽어보고 있다는 것이다(참조 : <맑고 푸른 청양 이야기여행>, 한국여행 작가 협회 지음).

황룡과 호랑이 상을 지나 한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 용호장군 잉태

바위가 나왔다. 옛날에 아이가 없던 사람이 바위에서 칠백일 동안 정성들여 기도를 하니 수호신이 정성에 감탄해 바위를 떼어내어 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아기가 훗날 용호장군으로 장성해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바위를 일컬어 용호장군 잉태바위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는 곳마다 재미있는 설화들이 가득했다. 이 설화들이 진실이든 허구든, 혹은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텔링에 의해 급조된 이야기든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보인다. 웅장한 칠갑산과 산의 영험함을 오롯이 담고 있는 천장호, 그리고 그 옆의 작은 알프스마을에서는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백에는 이따금씩 칠갑산 신라왕이 지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네요

### # '암표 있는 마을축제' 들어 보셨어요?

알프스마을에 찾아오면 제일 먼저 들르게 되는 것이 마을 중심에 있는 도농교류센터다. 도농교류센터에 내리니 며칠 전에 막 끝난 '칠갑산얼음분수축제'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나무 위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물을 뿌려 열린 웅장하고 기괴한 모양의 얼음분수 조각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직도 분수 조각의 꼭대기에서는 물줄기가 뿜어 나오고 있었다. 한 달 여가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진 얼음분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산골 마을의 차가운 겨울 공기와 마을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만들어진,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인 것이다.

도농교류센터 옆 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축구장도 눈에 띄었다. 눈으로 덮여있긴 했지만, 곳곳에 보이는 초록의 인조잔디며, 그 크기까지 범상치 않아 보였다.

**“어서들 와요. 시골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얼른 짐 갖다 놓고 이 옷으로 갈아입고들 나와요.”**



● 충청남도 청양 알프스마을

마을식당 메뉴인 떡국으로 허기를 채우고, 짐을 미처 다 풀기도 전부터 재촉이 심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을 운영위원장인 황준환 위원장이다. 천장리가 고향인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귀향한 후 지금의 알프스마을이 있기까지 십여 년 동안 그 여정을 고스란히 함께 해왔다.

위원장님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갈 계획이었으나 눈이 많이 내려, 대신 밤을 나눠 담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 자루에 가득 담긴 밤을 작은 비닐봉지에 각각 나눠 담았다. 이 밤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데, 모닥불에 직접 구워주는 밤이 큰 인기란다. 이런 조용한 산촌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동안 이 작은 산골마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알프스마을은 마을 면적 중 90% 이상이 임야인 전형적인 산촌이다. 37가구 103명이 마을 주민 전체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대부분 논밭에서 쌀이나 콩, 고추 같은 작물들을 재배하며 살았다. 그러나 최근의 마을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전체 마을 소득 중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의 2배 이상이 되었고, 농업과 다른 일을 겸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증가다. 2011년 한해에만 무려 20만여 명이 마을을 다녀갔다.



알프스마을이 있기까지 그간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황준환 위원장



얼음분수 조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무렵. 작은 나무위의 물줄기가 얼어 뭉집이 붙어내면 아래의 얼음분수 조각이 된다

한달이 지나면 작은 나무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독특한 모양의 얼음조각들이 된다.



“혹시 압표 있는 마을축제 들어봤어요?”

밤 담는 일을 마친 후, 불판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을 사이에 두고 황준환 위원장이 물었다.

“올해 얼음분수축제에 한 달 동안 12만 명이 왔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축제장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권을 모아 압표로 파는 사람이 있었죠.”

황 위원장의 말대로 알프스마을에서는 겨울과 여름이 한창일 무렵 큰 축제가 벌어진다. 겨울에는 ‘칠갑산얼음분수축제’, 여름에는 ‘칠갑산세계조롱박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한 달 여의 얼음분수축제 기간 동안 마을 안에 있는 축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또 축제장 내에 있는 눈썰매나 얼음 봅슬레이 등 놀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유이용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산골 마을 축제에 입장료를 받고, 더구나 그 입장권 때문에 압표까지 생겼다니, 확실히 다른 마을 축제와는 달랐다. 주민 백여 명의 작은 마을 축제에 입장료를 내고 구경을 온다는 것은 그만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다는 것이리라. 그래서인지 올해만도 전국 수십 개의 자치단체와 유명한 놀이공원 등의 대기업에서 축제를 벤치마킹하기위해 견학을 오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것도, 하루아침에 지금의 축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마을축제는 최근 몇 년간 알프스마을이 변화를 위해 걸었던 걸음들의 열매인 셈이다.

축제 기간 중에 직접 구워먹는 밤과 고구마는 인기가 많다.



같은 장소에서 여름에는 세계조롱박축제가, 겨울에는 얼음분수축제가 열린다.

### # 아직 끝나지 않은 축제

우리가 찾았을 때에는 마을 곳곳에 아직도 축제의 흔적이 가득 남아있었다. 축제장 여기저기를 돌아보니 이들이 좋아할 법한 눈 조각이며, 얼음 조각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같은 캐릭터와 실제 얼음벽돌을 켜켜이 쌓아 만든 이글루, 다양한 동작의 사람 모양이 음각으로 새겨진 얼음벽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들이 많았다. 얼음벽의 한 편에는 ‘농촌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문구가 조각되어 있다. 이 문구를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한다. 평범한 새해 인사를 새길까 하다가,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농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를 바라며 새겨 넣은 문구이다. 얼음분수와 많은 조각들을 돌아 올라가니 아이들이 더욱 좋아할 만한 장소들이 나왔다. 바로 다양한 종류의 눈썰매장과 봅슬레이 코스, 마을 수영장을 이용한 빙어 낚시장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눈이 반짝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기 시작했다. 눈썰매장 언덕 맨 위에서부터, 끌고 간 큰 튜브를 깔고 뱃다 몸을 날린다. 슈우욱~ 하얀 눈에 쌓여 고요하던 마을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묘한 중독성이 있어, 평균 연령 서른셋의 우리 일행은 몇 번이고 튜브를 깔고 언덕 위를 다시 올랐다. 온통 하얀 눈밭에 몇 개의 어지러운

줄이 그려진 이후에야 튜브를 정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봅슬레이장을 찾았다. 긴 비닐하우스 터널(여름에는 세계조롱박축제의 축제장으로도 활용된다고 한다)을 재활용한 봅슬레이코스는 생각보다 완만해 과연 속도감이 날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직접 타 보니 예상외로 속도가 빨라 깜짝 놀랐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에는 마을 수영장을 이용한 얼음 빙어낚시, 이양기 썰매, 직접 모닥불에 구워먹는 군밤과 군고구마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축제 초기에는 소가 끄는 소썰매가 인기였는데, 때마침 구제역이 발생하여 소썰매를 대체할 것을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만든 것이 바로 이양기 썰매라고 한다. 도시에 있는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들이 훨씬 빠르고 화려한 기능들을 지녔음에도 촌에서 즐기는 촌스러운 놀잇감은 뭔가 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단순히 놀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터에 만들어진, 생활이 녹아있는 체험이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축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마을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마을을 취재하기 위해 온 공중파 방송국 관계자와 신문기자들, 졸업여행을 위해 온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기를 들고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연인, 저~기 멀리서 동네분들과 놀러 왔다고 수줍게 웃으시던 어머님... 알프스마을 축제장의 눈 조각과 얼음분수 조각은 축제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고, 봄이 되어 자연스럽게 녹을 때까지 놓아둔다. 산골 알프스마을의 봄은 겨울동안 시끌벅적했던 화려한 축제의 흔적들을 녹이며 그렇게 찾아온다. 하지만, 그 전까지 알프스마을의 축제는 계속된다.



얼음벽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재경 사무관



예상보다 빠른 속도감으로 스릴 만점이었던 봅슬레이장



## # 천장리가 알프스마을이 되기까지

전형적인 산촌인 천장리가 변화하게 된 계기는 농림수산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이것이 시행될 무렵에 귀향한 황 위원장과의 만남에 있다.

처음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마을주민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거부감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이 심했다. 결국 2006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전국 꼴찌'의 성적을 얻어 1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알프스마을로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준비한 제1회 얼음분수축제 마저 1,8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그야말로 위기였다. 마을주민들 간 불신과 갈등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농사만 짓던 촌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자조 섞인 체념도 팽배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다. 그간의 실패 경험과 주민들 간의 부딪힘은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우선 마을의 주요 결정들이 마을회의를 통해 이뤄지게 되었다. 마을법인인 천장리영농조합법인에도 마을의 37농가 전체가 참여했다. 마을기업의 사업소득은 마을 발전기금 10%와 출자배당금 70%, 사업적립금 20%의 분배 원칙을 지켰다. 실패인 줄 알았던 첫 번째 축제는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고, 그 결과 축제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외부 상인의 출입은 금지되며, 모든 먹거리를 즐길거리들이 마을주민들에 의해 판매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순전히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축제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을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축제는 마을주민들의 일차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수십 명의 인력이 고용되었고, 연간 매출의 30% 이상이 마을주민

들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축제 시기에는 마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주민들이 축제 도우미가 된다고 한다. 나무 담당 아저씨, 어묵 판매 담당 아주머니, 마을의 마스코트인 하이디 소녀들(아이들도 마을 축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일당을 받는다)과 같이 담당하는 역할도 다양하다. 마을 축제가 성공하고, 마을의 기반이 잡혀가면서 4가족 11명이 새롭게 알프스 마을의 주민이 되기도 했다.

처음 알프스마을과 축제를 만들 무렵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느 마을과는 다른 알프스마을만의 독창성이었다. 마을주민들에게는 일터이자 삶터인 공간이지만, 여행객들은 자연을 느끼고,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곳에 온다는 사실을 변화의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도농교류센터, 국제규격의 축구장과 수영장, 워크숍과 캠프와 이어 공간 등을 마련하고 출향인사 등의 투자를 받아 외부와의 교류를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웰빙체험농원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는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세계조롱박축제도 열었다. 이런 변화들 덕분에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도농교류농촌사랑 대상 등에서 많은 상들을 수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프스 마을은 아직도 변화를 꿈꾼다. 마을 야구장 개장과 폐교를 이용한 농촌체험형 유학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마을 어른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근의 마을의 변화에 대해 물었다. 수십 년을 이 마을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지. 외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니... 하지만 다 좋아할 수 있나? 옥에도 티가 있는 법이니~ 우리 마을이 잘 되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지~.”

### tip 0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란?

농림수산물부가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권역으로 지정되면 권역 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40~70억(2013년부터는 50억) 원이 지원된다. 주민참여형 상향식사업으로 2010년부터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알프스 마을의 마스코트 하이디 소녀들





숙소에서 바라본 칠갑산. 밤새 내린 눈에 칠갑산 자락은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 # '젊은이들 한판만 더 허구 가~'

창밖으로 환한 햇빛과 함께 떠들썩한 소리가 들린다. 산 아래 첫 마을인 알프스마을에 아침 해가 들고, 하루가 시작됐다. 도농교류센터 2층에 있는 숙소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창을 여니 밤새 눈이 더 내려 축제장의 얼음 분수와 칠갑산의 모습이 장관이다.

서둘러 채비를 하고 마을을 둘러본 후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회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준비해 간 주전부리를 한 손에 들고 조심스레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니 어르신 대여섯 분이 모여 윷놀이에 한창이다. 직접 나뭇가지를 깎아 만든 투박한 윷가락과 청홍의 장깃돌 말이 달리고 있는 말판이 인상적이었다. 어디서 왔냐는 짧은 물음 뒤에 같이 하자며 여기저기서 권하신다. 얼떨결에 우리 일행은 윷놀이 판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서로 내가 쓰는 말이 맞다, 혹은 왜 한 칸 더 가냐며 말을 쓰는 내내 티격태격하신다. 상대방이 말을 잘못 쓰게 하려고 옆에서 교란작전을 펴는 어르신의 장난기에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진다. 윷가락을 던지는 방식에서도 저마다의 연륜이 묻어 나온다. 윷놀이를 하는 중에도 한분 두 분 회관으로 발걸음하신 어르신들 덕에 대여섯 명으로 시작했던 윷판은 어느새 두 배가 되었고, 두런두런 이야기꽃도 피었다.

“우리 동네의 최고 고령자인 구십팔 세 된 양반은 별명이 한일(一)자여. 젊었을 때 직업이 죽(竹) 세공인데, 대나무가 곧거든, 직업따라 아직도 꼳꼳하게 걸어나. 그 마나님은 올해 구십 하나여. 근디 여태 둘이 손 붙잡고 다녀. 병원 원장이 거기 오는 사람들에 본보라고 아주 칭찬혀~”

한창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신명이 나신 어르신 한 분이 집에서 담은 비장의 무기인 가양주 한 병을 들고 오셨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독특한 맛이 혀를 툭 쏘았다. 마을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 마을에서 태어났거나, 인근 마을에서 이 마을로 시집와 수십 년간 살았다고 한다. 원래 창원 황씨 집성촌(지금은 약 절반 정도의 가구가 창원 황씨라고 한다)이어서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조카나 삼촌, 고모다.

윷놀이판은 시계 바늘이 여섯시를 가리킬 무렵 저녁식사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자리를 뜨시고서야 파했다. 우리 일행이 자리를 뜨려고 할 때마다 “젊은이들 한판만 더 하. 이기든 지든 상관없으니까~.”라며 한사코 잡으시던 어르신들은 자리를 파하며 돌아가실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주고, 맛난 과자도 사다주고 참 고마워. 시골이 이랴~. 우린 윷놀이밖에 안해서 별로 얻을 것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자주 와.”라며 손을 잡고 헤어짐을 아쉬워하신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동안 몇 마디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정이 듬뿍 들었다. 알프스마을에 오는 누구라도 문을 두드리면 푸근하게 맞아주는 인심이 거기에 있었다.



올해 여든 다섯이라는 어머니는 윷판에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보이셨다.

## # 새로운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마을

2박 3일의 일정을 마친 뒤 떠날 준비를 하였다. 마을 입구에 있던 작은 정자와 축제장 알림판, 마을길을 따라 올라오며 보았던 논밭과 시골 풍경, 도농교류센터 주변의 얼음축제 흔적, 마을 뒤 천장호와 칠갑산 등산로까지 그동안 보았던 마을 풍경들이 다시 한 번 스쳐지나갔다. 마을에 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던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첫날 도착했던 정산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렸다.

서울행 버스에 올라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새겨 보았다. 여름과 겨울, 큰 축제를 할 때마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알프스마을을 찾는다. 혹은 체험농원을 찾아 농촌 사람들의 삶을 잠깐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우리가 며칠간 방문해서 본 알프스마을은 다른 어느 농어촌 마을에 비해 생기가 넘쳤다. 하지만 우리는 마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았다.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체험이 아닌 삶의 현장으로 알프스마을은 계속 거기에 있다.

요즘 우리의 촌(村)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개발과 전통,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며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산어촌이 살아남기 위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청양 알프스마을은 오늘도 새로운 변화와 그림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어느새 버스가 서울의 터미널에 멈춰섰다. 알프스마을 체험의 여운을 간직한 채 터미널밖을 나오니 높고 깨끗한 건물,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혼잡한 거리가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 ★찾아가는 길

#### 1. 대중교통 이용 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호남선)에서 정산 . 청양행 버스 이용(1시간 40분 소요)

#### 2. 승용차 이용 시

공주서천고속도로(서천방향) → 청양IC → 정산방향 / 36번 국도의 칠갑산 휴게소에서 알프스마을까지 2km정도

### ★주변관광지

#### 칠갑산 등산 코스

험하지 않고 완만한 산세를 자랑하는 칠갑산은 산장로(철쭉로), 사철로(송림로), 천장로(호수로) 등 7개의 등산 코스가 있어 알맞은 등산로를 선택하여 등산 할 수 있다.

#### 장곡사와 장승공원

장곡사는 신라문성왕 12년(850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천년 사찰이다. 특이하게 대웅전이 2개(상대웅전과 하대웅전)이며,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구에는 장승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지천구곡

칠갑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지천의 물굽이가 기묘하고, 기암괴석이 아름다워 지천구곡이라 불린다. 까치네와 물레방앗간 유원지는 물 흐름이 완만하고, 깊지 않아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 칠갑산 천문대(스타파크)

일반인을 위한 천문우주테마과학관. 국내 최대 구경의 굴절망원경과 반구형 슬라이딩 돔, 다양한 망원경, 국내 최초의 FULL 돔, 5D입체 영상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비오는 개실마을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문정희 '흙' 중에서〉

자, 받으세요, 꽃바구니를.  
이월의 프리지아와 삼월의 수선화와 사월의 라일락과  
오월의 장미와 유월의 백합과 칠월의 갈라와 팔월의 해바라기가  
한 오아시스에 모여 있는 꽃바구니를.

〈나희덕 '꽃바구니' 중에서〉

### 경북 고령 개실마을

## 아름다운 봄의 마을, 개실

글 김지혜

개실마을에서는 흙냄새가 났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길가에서 스멀스멀 마음을 녹여 내리는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흙처럼 개실이 마을에 차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봄이, 그리고 꽃이 기다려졌다. 나비가 노닐고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계곡 마을. 보지 않고도 보이는 아름다운 봄의 마을, 개실.

### #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3시간 반 버스를 타면 고령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이 곳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간 후 드디어 개실마을에 도착했다.形形色색 다양한 언어로 새겨진 ‘환영합니다’ 팻말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긴다.

그 다음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마을의 조상 김종직 고택이다. 고택을 들어서는 솥대 문에는 문턱이 없다. 가마가 쉽게 드나들 수 있기 위함인데, 이는 사대부 이상의 가문에만 있는 대문이라 한다. 대문을 들어서면 고택의 청아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반듯하면서도 소박한 가옥은 우리 전통가옥의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저택 정면에 있는 기둥들은 보통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둥근 모양이었다. 옛날에는 나무가 귀해서 목재를 통째로 쓸 수가 없도록 나라법에 정해져 있었기에 보통 기둥을 네모나게 잘라붙여 만들었다. 하지만 기둥 중 하나 정도는 나라의 법도에 빗겨나서 둥근 나무통 그대로를 썼다고 한다. 일탈의 흔적, 유쾌한 엇나감의 모습에서 왠지 기분 좋은 웃음이 나왔다.

그 옆에 있는 사랑방은 작년에 돌아가신 종손 어르신을 위한 것으로 기둥이 짚으로 돌돌 말려 있었다. 이를 여막(廬幕)이라 하는데, 여막은 전통 장례 때 상주가 탈상할 때까지 머물면서 돌아가신 어르신께 제를 올리는 것이라 한다. 개실마을에는 지금도 이러한 전통의식이 일상의 한 곁에서 살아 숨쉰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실마을의 따스하면서도 엄격한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방 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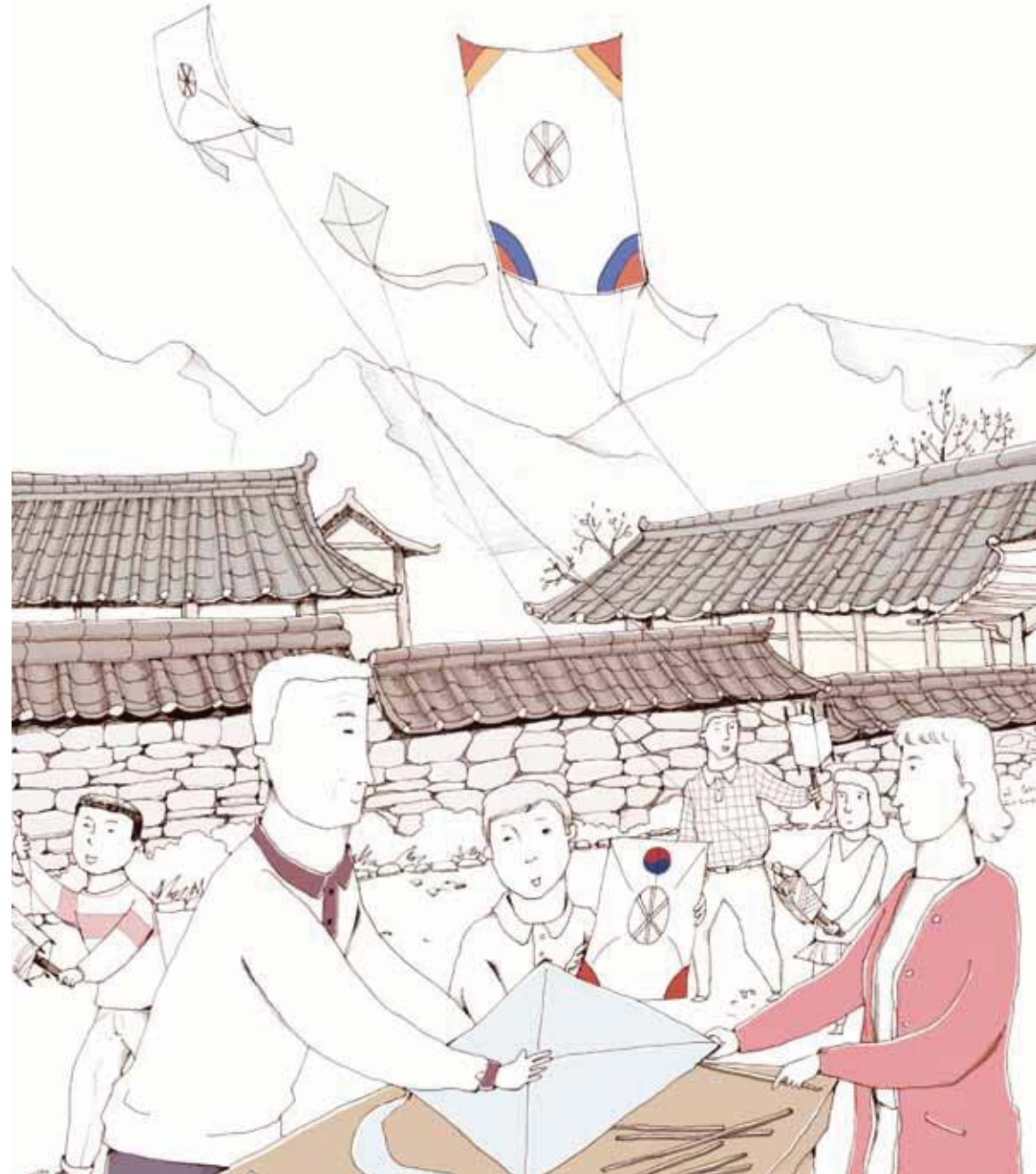


## #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된 곳이다. 흑자는 앞날을 어찌 도모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던지기도 한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개실마을의 김병만 위원장님은 ‘우리 마을에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마을 외부 사람들은 마을 후계자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말할 하지만, 마을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온다.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다섯 살 꼬마들도 마을에 찾아와서 재잘거리고,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묵어가며, 청년들은 이 곳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을 나누며 간다. 우리가 도착하는 날 오후에는 어느 유아원에서 대여섯 살배기 아이 서른 명이 와서 연 만들기 체험을 했다. 가위질도 잘 못하고 풀질도 서툰 아이들에게 연 만드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실타래에 연을 묶어 연 날리는 것을 보여줄 때면 어른들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매년 청년들의 국제회의가 열려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청년들이 마을에 머물다 간다고 한다. 그들은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민박집에서 마을 어른들의 정을 느끼고 간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에 와서 체험놀이도 하고 예절교육도 받는다. 온가족이 함께 예절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로 고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처음에는 마을에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외출을 해야 하는 변화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을 지도자들이 마을의 어른들을 설득했다. 서비스 교육을 받게 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새로운 내용을 접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이러한 변화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평생을 내 마을과 내 집 마당에서만 지내던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이제 마당 밖으로 외출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마을의 좋은 점을 다른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마을에서 배울 점을 얻어 우리 마을에 적용하기도 한다.





1. 유과반죽 말리기      2. 두 번 튀기기  
3. 앞으로      4. 뒤로      5. 푹푹

또한 여행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통 엿을 만들고 마을 대대로 전해오는 한과와 유과 만들기 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낀다.

### # 유과도 만들고, 마을 일손도 돕고

우리는 세밀 준비로 바쁜 마을을 돕기 위해 일손을 거들기로 하였다. 마을의 주요 판매상품인 유과 만들기를 돕기로 했다. 유과와 한과는 개실마을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낼 때 만들던 방식을 적용하여 만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상품화를 위해 삼성 에버랜드의 조언을 구하고, 상품 판매를 위한 포장 용기 디자인은 제일기획의 도움을 받았다. 1사1촌 운동의 효과는 이렇게 직접 마을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으로 만든 유과는 몇 년 전부터 백화점에서 판매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금도 매년 명절이면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인기품목이라고 한다. 실제로 세밀의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과를 차례 상에 올리기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과는 이미 다 팔리고 없다는 말에 손님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개실마을의 유과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모양이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넓적하고 어떤 것은 조그맣다. 네모 반듯하기도 하고 마름모 모양이 나오기도 한다. 유과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다림의 과정이다. 유과는 멍쌀이 섞이면 튀길 때 부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찹쌀만을 이용해 보름 동안 푹 삭힌다. 삭힌 찹쌀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 뒤 살살 채친 다음 콩물 등을 넣어 반죽을 만든다. 반죽을 얇게 편 다음 초등학교 아이 손바닥만하게 네모 모양으로 잘라 말린다.

말린 반죽은 두 번 튀긴다. 처음에는 80~90도의 낮은 온도에서 튀겨 유과 반죽을 약간 부

풀게 한다. 이것을 누르개로 눌러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만든 뒤, 180~190도의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다시 튀긴다. 이 때 유과는 원래 모양의 두 세배 가량으로 몸집을 불린다. 통통하게 떠오르는 유과를 껌싸게 누르개 밑으로 눌러서 살살 앞뒤로 눌러준다. 이렇게 해야 차례 상에 올라가는 넓적한 유과가 된다. 그 후 넓적해진 것을 얼른 건져 기름기를 쫓 빼주면 바삭바삭한 과자가 된다.

유과의 하이라이트는 조청에 담갔다 빼서 쌀 부스러기를 묻히는 것이다. 이 때 재빠른 손놀림은 필수다. 적당히 찰진 감이 있는 조청에 과자 몸통을 풍덩 넣는다. 앞뒤로 맨질맨질하게 단물이 들면 쌀 부스러기가 있는 소쿠리로 얼른 옮겨 놓는다. 그리고는 단물이 마르기 전에 빠른 손동작으로 쌀 부스러기를 묻히는 것이다. 빈틈 없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흰 쌀 보푸라기를 붙인다.

“요래 살살 쌀 보푸라를 덮고 툇툇 털어, 뒤로 요래 뒤집어서 또 툇툇 덮어. 요래 살살 털면 돼.” 마을 어르신들의 가르침대로 요래 만든 유과가 이제 흰 옷을 입었다. 그냥 먹으면 별 맛이 없는 쌀 부스러기가 유과와 만나면서 보드랍고 입에서 살살 녹는 별미로 변신한 것이다. 마지막은 포장이다. 포장은 직육면체 상자에 유과를 정성스레 담은 것이다. 상자의 모양은 정해져 있지만, 유과는 제각각이다. 따라서 상자에 유과를 맞추어 넣어야 한다. 생각보다 섬세한 손길과 눈썰미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 자리에 딱 맞는 유과를 빈틈없이 넣어야 배달 과정에서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다.

유과와 옛 만들기를 도우면서 아쉬웠던 점은 옛과 유과를 만드는 재료가 숙성되는 과정을 설명으로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별로, 혹은 날짜별로 찹쌀 등이 삭혀지는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설명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옛 만들기 ●

우리는 잠시 맛보기로 옛 만들기 체험을 하기로 하였다. 개실마을의 옛은 다른 곳에서 파는 옛과는 다르다. 입안이나 이에 들러붙지 않는다. 맛이 고소하고 달달하지만, 과하지 않고 적당하다. 개실마을 옛은 찹쌀과 조청, 물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푹 삭혀서 만든다. 예전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 옛물을 삭혔는데, 지금은 옛 체험객이 많다 보니 커다란 전기밥솥에서 며칠만 삭힌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맛도 일정하게 뽑아낼 수 있고, 쉽게 대량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쌀을 씻고 밥솥에 안쳐서 옛기름을 만드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다 삭힌 옛기름을 아주 곱게 간 쌀가루 위에 적당량 얹는다. 이 때 옛기름은 뜨겁기 때문에 잠시 식힌 뒤, 두 사람이 양쪽에서 옛기름을 오른 손에 잡고 왼 손으로 주욱 늘어지는 옛가락을 접어나가기 시작한다. 손가락으로 잡는 옛가락은 처음에는 뜨거운 줄 몰랐으나, 갈수록 열기가 올라왔다. 손가락을 떼면 뜨거운 옛 때문에 물집이 잡힐 수 있어서 가만히 잡고 있어야 한다. 손놀림이 서툴러 우리 중 몇몇은 엄지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야 말았다. 처음에는 손만 떼도 줄줄 늘어서 바닥으로 떨어지던 옛가락이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가면서 질기고 단단해진다. 설탕 녹인 물같이 짙은 나뭇가지 색이던 옛가락은 점점 흰 빛을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옛을 당길 때 점점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 더 이상 옛을 당기기 힘든 때가 되면 옛은 이제 희열고 불투명하게 변한다. 이 때 옛은 셀 수 없는 실낱같은 무늬를 띠고, 딱딱하게 굳는다. 이런 옛을 먹기 좋은 크기로 툇, 툇 하고 자르면 끝. 우리가 만든 옛이 예쁘게 나오자, 체험 선생님이신 아주머님은 우리에게 일손을 도와달라 청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옛을 만들어 상품으로 만들었다.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나 고민하였는데, 생각 밖의 솜씨로 마을 일손을 도울 수 있게 돼 뿌듯했다.

## # 머무는 곳, 석정댁의 푸근함

좁고 씻을 곳도 없는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시골 민박집. 요즘 시골은 다르다. 편안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꾸민 민박집이 많아졌다. 우리가 묵은 민박집은 석정댁 민박집이다. 마을 이장님 댁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장님 내외가 기거하는 본채와 민박을 주는 별채로 이루어져 있다. 열린 초록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좌측으로 너른 풀빛 마당과 소담스런 장독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개실마을은 민박집을 도시인들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

평균 연령이 70대인 마을에서 이러한 마을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을 사람들의 원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는 변화는 이들에게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즐거움이었을 것 같다. 우리가 묵은 석정댁 민박집 별채의 이불장에는 창호지가 다 찢려 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손가락으로 찌셔댄 것이다. 또 어떤 집은 군불로 난방을 하는데, 애들이 신기해서 땀감을 많이 집어 넣어 장판이 다 타기도 했단다. 이러저러한 일에 화도 날 법한데 어르신들은 그저 즐겁다는 듯이 크게 웃는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느껴진다.

‘본채에서 만난  
뽀얀 미소의 아주머니.’



면박집 장독대



이장님의 부인인 석정댁 아주머니는 이장님의 “내 안사람 참 이쁘지 않소”라는 말에 발그레한 홍조를 띠며 온 몸으로 화사하게 웃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음에도 서로를 아끼고 더 없는 배우자라 칭하는 노부부의 모습에 마음이 찡하였다.

아주머니는 김, 김치, 나물, 찌개로 짭조름한 밥상을 준비해 주셨다. 거기에 황태포를 잘게 찢어낸 반찬을 생선과 함께 내놓으셨다. ‘개짜반’이라는 이 반찬은 황태포와 조기, 갈치 등 구운 생선을 함께 내놓는 것으로, 귀한 손님이 오거나 며느리가 처음 시부모님께 칠첩반상을 차릴 때 내놓는 것이라 하였다. 반찬에 대한 설명을 하시며 아주머니는 작년 12월에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예단으로 들고 온 칠첩반상기를 곱게 펴 보이셨다. 부엌 한켠에는 며느리가 칠첩반상기와 함께 들고 온 찹쌀 등이 든 복주머니, 노리개가 걸려 있었다. ‘예쁘지 않냐’는 말과 함께 창녕에서 온 석정댁 아주머니는 자랑스레 복주머니를 쓰다듬으셨다. 본채에서 만난 석정댁 아주머니는 뿌얀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 # 푸짐한 옛 이야기 한 판이 벌어졌네

저녁식사 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조출한 술자리를 가졌다. 이장, 전 부녀회장, 마을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의 지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여서 딱딱한 자리를 예상하였으나 우리의 생각은 빗나갔다. 동네 근처 음식점에서 가져온 ‘주취주’를 훌쩍훌쩍 마시면서 어르신들은 조금씩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주취주는 주취라는 약초로 빚은 술이다. ‘디딜방아’라는 음식점에서 직접 빚는 술인데, 향이 은은하고 15도 정도로 순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마시기 좋았다. 나중에 고령에 오면 주취주를 다시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개실마을은 김종직 선생의 후손이 귀향길에 정착한 곳이다. 원래 후손들이 자리잡은 터는 지금의 개실마을보다 ‘위쪽’에 있는 곳이었었는데, 어느 날 김종직 선생의 아들이 산 위에 있는 굴에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꿈을 꾸었다. 꿈이 하도 신기해 굴로 찾아가니 정말로 금

은보화가 가득했다. 이것을 밑천으로 후손들은 아랫마을을 사서 지금의 보금자리에 안착하였다는 것.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웃었다. 이장님은 이어 도깨비에 홀린 사람 이야기도 전해줬다. 이장님의 친척형님이 동네 앞 주막에 들렀다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 나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단다. 놀란 동네 사람들이 사방을 뒤졌더니, 오르기 힘든 절벽 위에 사지가 뻗뻗해진 채로 앉아있더라. 사라진 연유를 물어도 답이 없어 주막에 가보니, 마당에는 오래된 싸리 빗자루만 있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 빗자루를 태우고 나서야 형님은 정신이 돌아왔다고 한다. 형님은 웬 여인들이 주막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갔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없더라. 실제로 보고 겪은 사실이라면서 도깨비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어쩌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미신 같은 소리다. 요즘 사람들은 믿을 것 같지 않은 말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실제라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현실일테다. 마을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계자가 없다, 고령화가 심각하다, 다음을 준비할 원동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은 희망을 말한다. 마을을 찾아와서 왈자지껄하게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마을은 언제나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이 또 다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누구에게는 도깨비 같은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는 현실이자 다가오는 미래의 그림이다.

“사실일 수도 있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야.”

## # 귀농귀촌인 새마을지도자 새로운 삶을 열다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5년 전 이 마을로 귀촌한 새마을지도자. 그가 어릴 적부터 자란 개실마을로 다시 돌아오자 아내의 반대가 많았다. 아내의 반대에도 차근차근 땅을 사서 축사를 짓고,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새로 지으면서 불편했던 아궁이 시설과 화장실을 고쳤다. 결국 아내도 나중에는 “대구 아파트가 답답해 죽겠다”며 못이기는 척 따라왔다고 한다. 그는 농사철에는 벼농사를 짓지만, 체험교실을 운영할 때면 연 만들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의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귀농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개실마을만 해도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서로 친척이고 식구다. 이러한 곳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그는 귀농귀촌의 최선은 도시로 떠난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을의 보수성이 옛보이기도 하나, 생각해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한다.

그는 도시서 노력하는 것만큼 시골에서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또 체험마을은 농외소득으로 하고, 주업은 농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명을 가지고 똑심있게 땅을 부치고 소를 키우면서 농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 #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 곳

어느덧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을에 정이 들었다. 이장님 댁에서 짐을 정리한 후 밖으로 나왔다. 마을 입구로 가는 길에 한과 만드는 아주머니들을 보았다. 자그마한 리어카에 한과 재료를 싣고 경로당으로 향하는 아주머니들은 가던 길을 멈췄다. “**벌써 가는 가, 다음에 또 놀러와, 정이 벌써 많이 들었네**”라는 말과 함께 손을 놓지 않았다. 또 눈길도 거두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단 하루며, 그 속에서 함께 지낸 시간은 단 몇 시간도 되지 않았다. 이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었다. 이러한 것이 시골의 마음이며, 고향의 인심이고 사람냄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 곳, 개실마을은 이제 우리의 고향이다.



### ★ 찾아가는 길

#### 서울 → 대구 (기차 이용 시)

KTX : 약 1시간 40분 소요, 새마을호 : 약 3시간 소요, 무궁화호 : 약 3시간 50분 소요

#### 서울 → 고령 (버스 이용 시)

남부터미널 1일 5회(10:08, 12:00, 14:00, 15:00, 16:45) 4시간 10분 소요

#### 대구 → 고령 (버스 이용 시)

서부정류장 시외버스(배차 5~10분 간격, 30분 소요)

#### 대구 → 고령 → 개실마을 (버스 이용 시)

서부정류장 시외버스(합천 방면) (배차 30분 간격, 40분 소요)

#### 고령 → 개실마을 택시이용 10분 소요

#### 고속도로이용

중부내륙 → 동고령IC → 88고속도로 → 고령IC

대진 → 88고속도로 고령IC(쌍림면) → 좌회전(고령읍 방면, 1km) → 고곡삼거리 좌회전(합천 방면, 3km) → 귀원삼거리 직진(합천 방면, 다리건너기) 1km → 합거리 개실마을 도착

#### 국도이용

국도26 → 국도33 대구 → 국도26호선(고령) → 쌍림 귀원삼거리 → 국도33호선(합천방면) → 합거리 개실마을 → 합천

### ★ 주변관광지

고령 대가야 박물관(054-950-6071), 고령 대가야 왕릉전시관

### ★ 체험프로그램

연 만들기, 엿 만들기, 유과 만들기, 한옥체험, 예절교육, 대나무 물총, 딸기수확 등

## 경남 남해 앵강다숲마을

# 남해 다섯 개 마을이 모여 앵강다숲을 이룬다

글 이지연

기어를 2단으로 놓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간다. 고개를 다 올라왔다 싶어 숨을 고르는데 난데없이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바다가 깊숙이 들어와 움푹한 만을 형성하고, 그 앵강만 주변 들판에는 듽성듬성 뽕족한 나무들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다. 세상에 이런 곳에도 숲이 있고, 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리스 지중해의 산토리니 섬이 연상되는 짙은 청록색의 바다는 햇빛에 닿아 보석처럼 반짝인다. 금산과 설흘산이 에워싼 고요하고도 신비한 느낌의 마을, 앵강다숲마을을 다녀왔다. 해외에 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정취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곳, 바닷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 남해의 앵강다숲마을을 샅샅이 둘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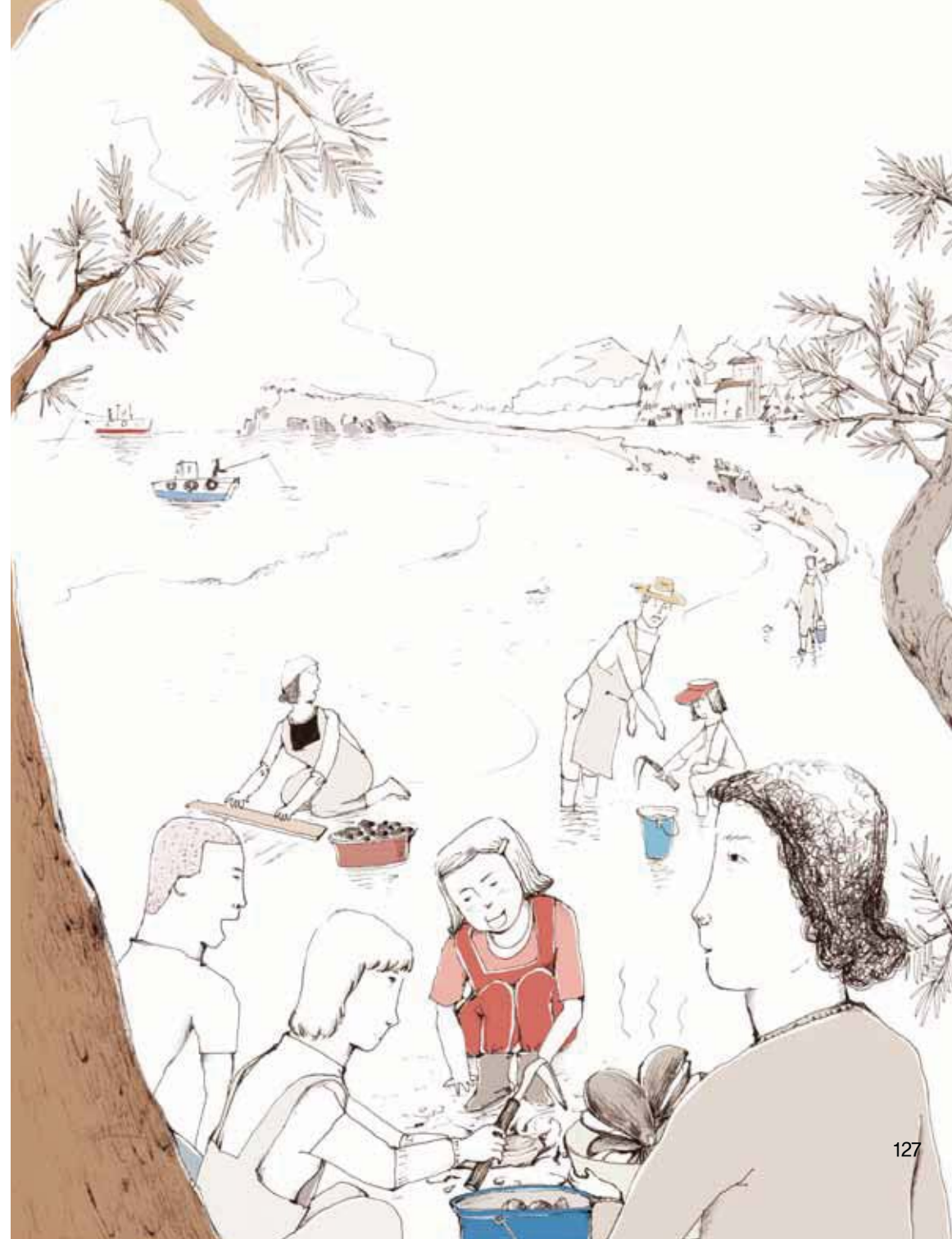
## # 남해 그리고 앵강다숲

대한민국 남단에 위치한 남해도는 물 맑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섬으로 육지와 아주 가까이 붙어있다. 남쪽 저 멀리 위치한 남해가 서울에서만 살아온 나로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네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생각만큼 먼 곳은 아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자주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버스 창밖으로 바라본 남해 풍경이 참 신기하다. 산과 들과 바다가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 있다. 고쟁이 바지를 입고 시금치를 한 아름 끌고 가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진짜 농촌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앵강다숲마을에 도착하니 어머니들이 오징어며 홍합이며 해물폭탄을 맞은 전을 직접 담근 막걸리와 함께 내줬다. 오징어회무침도 꼬들꼬들하니 맛이 참 좋다. 마을에 손님이 있을 때면 마을위원회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음식 당번을 하신단다. 오늘 당번 어머니는 금평마을에서 오셨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섯 개 마을이 함께 살아가는 앵강다숲의 모습이 어떨지 점점 궁금해졌다.

## # 다섯 개의 마을이 모여 새로운 하나의 마을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에 위치한 앵강다숲마을은 앵강만을 둘러싼 다섯 개 마을이 함께 모여 권역으로 개발된 곳이다. '앵강다숲마을'. 앵강의 앵은 꼬꼬리 앵(鶯)을 쓰고, 다숲의 다는 많을 다(多)를 써서, 숲이 많고, 바다의 파도소리가 꼬꼬리가 우지짓는 구슬픈 노랫가락과 같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마을의 전경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개 숲이 잔잔한 바다를 둘러싼 모습이다. 그 안에 신전마을, 용소마을, 원천마을, 금평마을, 화계마을 이렇게 다섯 개 마을이 용기종기 모여 있다.

앵강다숲권역 개발은 앵강만에 위치하던 군부대가 금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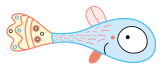


새롭게 생긴 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앵강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권역 내의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삼아 새로운 마을을 하나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앵강만을 둘러싼 마을중에서 정서가 비슷한 5개 마을이 마을을 모았다.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모습의 마을을 만드는 데 5년이 걸렸다. 마을 어르신들은 오래 전부터 군부대가 있어서 앵강만의 숲이나 갯벌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감격해 했다.

마을 센터가 위치한 곳은 신전마을이다. 화계마을 머릿돌을 지나고 용소마을회관을 지나 신전마을에 이르니 나무로 된 앵강다숲 현판이 우리를 반긴다. 신전마을은 가장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다섯 마을 중간에 있고, 큰 길도 있어 진입이 쉽다보니 권역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주변에는 널찍한 운동장과 풀장, 운동기구, 숙박시설 그리고 연꽃공원까지 다양한 시설이 아기자기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군부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병영 막사로 꾸며진 숙박시설이 인상적이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이름을 붙인 네 동의 막사형 숙박시설은 대규모 단체인원도 수용할 수 있어 수련회나 워크숍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바다가 보이는 신전숲에는 캠핑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끼리 야외에서 놀기엔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들었다. 날씨 좋은 여름날, 차 트렁크에 텐트 하나만 싣고 훌쩍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다섯개 마을이 모여  
앵강다숲마을을 만드는데  
5년이 걸렸대요!



신전숲에서 바라본 바다는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웠다. 시리도록 푸른 바닷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는 바닥이 보일만큼 맑아서 마치 고급호텔의 수영장을 보는 것 같았다.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던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뭐하러 큰 돈 쓰며 외국에 나갈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앵강만을 내다보니 꽤 큰 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노도'다. 옛날에 배를 짓는 노를 만들어 팔았다고 해서 '노도'라고 한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지은 서포 김만중의 마지막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다. 남해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어서 유배지로 많이 이용되었는데, 유배 온 지식인들은 이 곳에서 많은 문학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서포 김만중을 비롯해 자암 김구, 약천 남구만 등이 남해의 유명한 유배문학 작가다. 남해의 유배문학은 조정을 근심하고 한양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여느 유배지의 문학과는 달랐다고 한다. 대부분이 세속을 떠나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남해에 직접 와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세상사 걱정을 모두 잊을만하다. 내가 조선시대 유배나온 관료였어도 조정이 그리지 않았으리라.



## # 남해는 농한기가 없어요

바닷가로 난 길을 따라 옆 마을인 화계마을로 갔다. 10분 정도 걸으니 금방 옆 마을에 다다랐다. 화계마을로 들어서니 알록달록한 집들이 눈에 띈다. 집 외벽이 에메랄드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같은 색으로 집들을 칠해놓으니 통일성이 있어서 시골마을답지 않게 마을 길이 정돈되고 깨끗해보였다.

집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밭에는 겨울인데도 초록색이 피어나고 있었다. 마늘이란다. 남해는 따뜻해서 한 해에 이모작을 하는데,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남은 자리에 마늘을 심고 이듬해 봄에 수확하고 다시 모내기를 한다고 한다. 남해의 마늘은 아주 매워서 효능이 좋기로 유명한데,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특히 남해의 흑마늘은 효능이 좋아 진액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데, 남해의 주요 특산물이다. 한창 마늘밭의 잡초를 췌아내는 데 손길이 많이 갈 때라 그런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유난히 많이 보였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곳 앵강마을에는 농한기가 없다. 농한기인 겨울에 마을 회관을





찾아가면 오래 만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앵강마을에서는 뵈 수가 없었다.

겨울이지만 마늘과 노지 시금치 수확에 바쁘기 때문이다. 남해와 통영 등지의 노지 시금치는 인기가 많아 남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남해의 노지 시금치는 노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기 때문에 포기가 땅에 붙어 퍼지며, 잎이 많고 길쭉하다. 특히 단맛이 많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일반 개량종 시금치보다 저장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아닌게 아니라 시금치 맛이 달달해 식사 때 시금치를 몇 그릇이나 비웠다. 마늘과 노지 시금치로 남해는 겨울에도 활기가 넘쳤다.

### # 선상낚시체험, 어부체험, 갯벌체험... 신나는 어촌 체험하기

앵강다숲마을은 반농반어 마을로, 다양한 어촌체험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체험활동인 선상낚시체험과 어부체험 그리고 갯벌체험을 하기로 했다. 남해도에 온 만큼 바다를 실컷 즐겨야지~!

이튿날 아침, 아침밥을 든든히 챙겨먹고 선상낚시체험을 하기 위해 원천마을의 선착장으



로 갔다. 젊고 잘생긴 선주님이 우리를 반겼다. 앵강다숲마을의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 마을사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는 분이란다.

팀장님의 '베드로 호'를 타고 건너편 작은 돌섬 앞으로 가니 바다 위에 하얀색 집이 둥둥 떠있다. 해상펜션인 이른바 유어장이다. 바다 위에 집을 지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 발상이 참 기발하다. 발전기를 돌리면 에어컨부터 전기장판, 조리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TV까지 안되는 게 없단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절에 개의치 않고 낚시하기 안성맞춤인 듯 싶다. 낚시로 건져 올린 물고기를 바로 회를 쳐서 먹을 수 있도록 피크닉 탁자까지 마련하고 있으니 바다 위의 펜트하우스가 따로 없다.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주니 너무 부러워하셨다.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 각자 낚시대를 하나씩 들었다. 미끼를 끼워 바다를 향해 휘던졌다. 작은 고기가 물면 낚시대가 탁탁거리고, 큰 고기는 흔들흔들하는데, 그 때 탁 잡아채는 게 필요하다. 낚시를 하다보면 인생을 배운다더니 그 말은 곧 인내심을 배운다는 말인가보다. 두 시간가량 기다렸지만 낚시는 허탕이었다. 우리가 안타깝게 보였는지 감사하게도 선장님께서 이른 아침에 잡은 전복과 해삼, 그리고 노래미를 회로 쳐주었다.





자연산 전복을 바다 위에서 그대로 회로 먹기는 처음이었다.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이었다.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이라니 더 맛이 좋은 것 같았다. 남해는 전복 양식은 거의 하지 않고 모두 자연산을 잡아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한다. 선장님의 배를 한 번 탔던 손님들은 그 맛에 반해 돌아가서도 선장님을 통해 직거래로 수산물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선장님이 작업한 물량의 대부분은 당일 택배로 운송된단다.

선장님은 수산학을 전공한 후 명태발이 원양선을 타고 홋카이도나 뉴질랜드까지 나간 경험이 있는 바다의 베테랑이다. 1998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원양선이 홋카이도에서 철수하면서 원양업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 후 4~5년 동안은 아내와의 약속으로 어업이 아닌 다른 일에 종사했다. 그러나 바다가 보이는 남해섬에 살다보니 결국 다시 어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선장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선장님은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와 함께하는 진정한 바다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 하나가 있다는 선장님은 두 척의 배 중 하나를 딸의 이름을 따서 '그레이스'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선장님의 모습에서 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던 까닭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매일 바다로 나가는 가장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대어의 꿈은 포기하고 선장님 배를 타고 작업현장에 따라가기로 했다. 아침에 미리 던져놓은 하얀색 스티로폼을 찾으러 갔다. 자기의 표식이 있는 스티로폼 부표 두 개에 통발이 달려있다. 통발을 힘으로 끌어올린다. 평상시에는 기계로 작업하지만 겨울철에는 물량이 적어 직접 손으로 한단다. 영차~영차~, 선장님 손에 따라 올라오는 통발 속에는 빨락도 있고 전복도 있고 털게도 있다. 너무 작은 크기의 치어가 올라오면 다시 바다로 놓아줬다. 재미있어 보여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섰다. 어이쿠! 통발은 어찌나 무겁고 또 바닷물은 얼마나 무거운지 두 팔을 걷고 온 힘을 다해 겨우겨우 끌어올렸다. 끌어올린 통발에서 물고기가 팔딱거리는 것을 보니 기분이 짜릿하다.



겨울이라 물고기들도 추워서 바다에서 움직이지 않는지 어획량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 어획량 보존 때문에 요즘에는 배 값도 비싸고 어업허가증도 신규발급을 잘 해주지 않는 등 어항이 전체적으로 불황이라는 게 선장님의 말씀이다. 수산물이 새로운 대체 식량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요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어항을 보존하고 개발하여 다양한 수산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부체험은 앵강다숲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마을 어른들은 처음에는 다소 방관하는 분위기였는데, 점차 여행객이 많아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선장님도 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거래 통로도 많이 생겨서 부수입이 창출된다고 했다. 앞으로 홍보만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면 마을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부체험은 선사남시체험과는 다르게 TV 방송프로그램 '1박2일'에서처럼 배를 타고 달리면서 직접 그물을 끌어올리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생업과 체험활동 참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마을위원회에서 시스템만 잘 구축해놓는다면, 더 많은 마을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여행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레저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험을 마치고 노도를 한바퀴 돌아 물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남해는 개불과 바지락이 유명하다. 남해까지 왔는데 그 유명하다는 바지락 한 번 캐보지 않고 돌아가기엔 너무 아쉬워 갯벌로 나갔다. 짹짹 장화를 신고 한 손에는 바구니, 다른 손에는 삽을 들고 갯벌체험을 지도해주실 팀장님을 따라 나섰다. 아침에는 딱 차있던 바다가 오후가 되니 저기 멀리 목단도에 닿을 듯이 갯벌이 드러나 있다. 갯벌을 밟으니 찢찢찢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균형을 잃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한 발씩 내딛었다.

썰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나니 만조에는 보이지 않던 돌무더기가 보인다. 돌밭이라는 원시적 어업 도구라고 한다. 석방렴이라고도 말하는데, 돌을 초승달 모양으로 쌓아놓으면 썰물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원리이다. 갯벌 위에는 파란색과 적갈색 해초들이 널려있다. 김과 파래다. 김을 모아 깨끗이 씻어서 김국을 끓이면 시원한 게 일품이라 한다. 바짝 말려서 네모나게 구운 김만 먹어봤는데, 김국은 어떤 맛인지 궁금해졌다. 가만히 보니 갯벌 위에는 수많은 구멍이 뽕뽕 뚫려 있었다. 그 구멍 속에 조개, 개불, 가재, 게 등이 살고 있단다. '갯벌은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본격적으로 바지락을 캐기로 했다. 갯벌체험 팀장님이 자리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한 곳에 딱 앉는다. 삽으로 별로 깊게 파지도 않았는데 바지락이 열 개, 스무 개 마구 쏟아져 나온다.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처럼, 흙 반 바지락 반이다. 알맹이만 쓱쓱 골라 조금 고여 있는 물에 흔들어내면 바지락인지 돌맹인지 구분이 되었다.

바지락을 캐는 사이 체험 팀장님은 다음에 오는 체험객들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지락이 많이 나오는 자리를 미리 찾아보고 있었다. 체험객들을 위해 자리를 보러 다니는 팀장님의 모습에서 감동이 느껴졌다. 어촌체험이 즐거운 이유는 체험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지도해주는 어르신들과의 만남 때문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으로 마을을 가득 채워가는 것이 시골 농어촌 마을로의 나들이가 가진 매력인 것 같다.

### # 리더의 헌신과 주민 간의 소통으로 일구어낸 앵강다숲

앵강다숲마을은 다섯 개 마을이 모여 권역으로 개발된 만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하나의 마을로 운영되는 체험마을사업과 다르게 여러 개 마을이 함께 하는 권역 개발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마을이기주의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앵강다숲마을은 이러한 마을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의 권역마을을 조성해낸 성공적인 모범 사례다.

물론 앵강마을도 지금의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마을 간 갈등이 컸다고 한다. 사업선정 시 기본계획에는 예산의 절반 가량이 마을쉼터 조성, 등산로 정비, 친환경퇴비사 조성 등의 마을별 사업에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마을별 사업을 해버리면 권역단위사업의 취지가 퇴색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권역단위사업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마을을 모아 한 마을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한 권역 공동체를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마을을 설득하는 데만도 1년이나 걸렸다. 기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은 다른 사업비를 통해 모두 해결하였고, 지금도 앵강다숲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은 마을 가구 수에 상관없이 다섯 개 마을이 똑같이 분배하고 있어 불만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권역사업은 마을별사업에 비해 그 어려움이 더 큰데, 이 경우 사업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위원회의 리더십이라고 한다. 다섯 개 마을이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며 리더들의 헌신적이 노력이 있었기에 다섯 개 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이 권역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앵강다숲마을의 성공은 리더의 헌신에 더하여 주민들이 주축이 된 자발적 사업이었기에 가능했다. 지자체에서 다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장님은 앵강다숲마을 개발사업이 좋았던 이유는 돈이 따라와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라고 한다. 실제로 앵강다숲마을은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교육에 책정하였는데, 수차례의 교육으로 주민들의 자치 의식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무장님은 '정기적인 교육이 성공요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했다. 앵강다숲마을은 이제 막 조성을 끝내고 동지를 틀기 시작한 공동체이다. 앞으로 이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비용부담과 수익창출은 기본적인 고민이며,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20년, 30년, 100년, 아니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일이다.

앵강만을 둘러싼 다섯 개 마을은 권역단위 마을사업 덕분에 주민들 간 소통이 크게 증진되었다고 한다. 작년에는 다섯 개 마을주민들이 모여 센터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벌였다. 마을마다 음식을 준비해오고, 센터에서는 비용을 제공하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 앞으로 격년마다 정기화하기로 했다.

투자비용이 많은데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사무장님은 "경제적인 수치를 떠나 이미 투입비용을 넘는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을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일들이 결국 마을공동체의 소중한 무형의 자원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마지막으로 사무장님은 마을의 향후 미래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사시는 어른들이 재밌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그게 우리 마을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맞다. 그 말씀이 백번 옳다. 인구 감소로 도시 뿐 아니라 농어촌마저도 고유의 공동체 가치를 상실해가는 요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공동체 가치를 보존해 가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앵강다숲마을 체험을 다녀온 뒤, 가장 좋은 여행지는 어디일까 생각해봤다. 좋은 여행지란 '나중에 가족들과 꼭 한 번 다시 와야지'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이다. 앵강다숲마을 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식당의 칠판에 적힌 말이 그 정답이다.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물섬 남해 앵강다숲!'. 누구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 다시 한 번 발길을 닿게 만드는 곳,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잃어버린 농어촌의 가치를 보존해가는 곳, 이것이 남해 앵강다숲마을이 지닌 매력이다. 우리 가족과 함께 꼭 다시 가고 싶다, 남해 앵강다숲마을.



★ **찾아가는 길**

**서울, 대구, 부산에서 오는 길**

경부고속도로 → 대전 → 대전고속도로(대전-진주 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사천 · 삼천포IC → 창선 · 삼천포대교 → 창선교 → 1024지방도 → 이동면소재지 → 앵강만휴게소 → 앵강다숲권역

**광주에서 오는 길**

남해고속도로 → 하동, 남해IC에서 좌회전(남해대교방면) → 남해대교 → 남해읍 → 이동면 → 1024지방도를 만나면 우회전(이동면소재지) → 앵강만휴게소 → 앵강다숲권역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오는 길**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우등을 타고 4시간 5분 소요. 한 시간 간격으로 버스 있음.  
(시외우등 남흥여객 22,600원)

★ **앵강다숲센터 둘러보기**



★ **주변관광지**



★ **체험 프로그램** [www.agds.co.kr](http://www.agds.co.kr) / 문의전화 055-863-0964

**선상낚시체험과 어부체험** **어촌계장** 문운민 011-587-4532, **청년회장** 김상우 010-3322-8975

**체험시기**: 연중 / **체험장소**: 남해바다 원천마을 선착장 / **준비사항**: 낚시도구, 수건 등 개인용품, 간식거리, 지팡이 등  
**체험방법**: 미리 앵강다숲마을에 전화해서 일정을 상의한 후 담당자를 지정받는다

**갯벌체험**

**바지락캐기체험**

**체험시기**: 12월~4월 / **체험장소**: 앵강만 갯벌 / **준비사항**: 장갑, 호미, 장화, 여벌의 양말과 옷 등 / **체험 방법**: 썰 속을 호미로 슬쩍한 헤치면 바지락, 고동, 각종 갯벌 생물들이 나온다 / **체험 비용**: 1인 10,000원

**개불잡기체험**

**체험시기**: 12월~4월 / **체험장소**: 앵강만 갯벌 / **준비사항**: 장갑, 삽, 장화, 여벌의 양말과 옷 등 / **체험방법**: 갯벌의 숨 구멍을 찾아 삽으로 빠르게 판다. 계속 파 내려가다가 개불이 보이면 빠르게 낚아챈다 / **체험 비용**: 1인 10,000원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체험시기**: 연중 / **체험장소**: 신전친환경단지 / **준비사항**: 장갑, 모자, 바구니 / **체험 방법**: 시기별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지정하여 신청한다 / **체험비용**: 1인 6,000원

**자연공예 체험하기**

**체험시기**: 연중 / **체험장소**: 앵강다숲마을 센터 / **준비사항**: 장갑, 모자, 바구니 / **체험 방법**: 앵강만 갯벌에서 주운 조개 껍질에 그림을 그려보는 조개껍질 공예와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체험비용**: 1인 6,000원

★ **앵강다숲마을 안의 5개 마을**

**용소마을**

마을 위쪽 용문사 골짜기 아래 이무기가 살던 '용소' 라는 뜻이 있어 마을 이름을 '용소리' 라고 부르게 되었다. 고려 시대 지어진 용문사와 귀촌마을로 조성된 아메리칸 빌리지가 용소마을의 주요 자랑이다.

**화계마을**

마을 앞 바다에 모란꽃을 닮은 '목단도' 라는 섬이 있어 마을이름을 '화계' 라고 불렀다고 한다. 화계 느티나무와 목단도가 마을 자랑이다.

**신전마을**

숲이 많아 '살밭' 이라 불렸으며 한자표기로 '신전' 이라 하였다. 신전숲과 신전들, 신전갯벌 등 다양한 자원이 공존하는 마을이다. 과거 군부대가 있던 자리다.

**금평마을**

남해군 대표 명산인 금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산 보리밭, 상주 해수욕장 등 관광명소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원천마을**

남해원님이 미조 쪽에서 정사를 보고 돌아오다 머물던 원(院)이 있던 곳이라 하여 원천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원전숲과 원천리 활어위판장이 마을 자랑이다.

## 전북 임실치즈마을

#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 사람들

글 김현우

고향은 고마운 존재다.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도시의 편안함에 젖어 고향의 존재를 잊고 지내지만 고향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반갑게 맞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향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사람 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임실 치즈마을이다.



## ‘이 곳은 원래 느티마을이었다’



전라북도 임실군 금성리에 소재한 ‘치즈마을’.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3시간 반 정도를 달려 임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뒤, 그 곳에서 5분가량 차량으로 이동하면 치즈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 마을에 도착하니 그간 내린 눈으로 마을이 하얗게 물들어 시골 정취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눈과 흙에 수북이 쌓인 눈은 편안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었고, 임실과 전혀 연고가 없는데도 바로 엇그제 다녀온 시골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이런 감상에 젖으며 슬슬 체험 준비를 하였다.

### # 나눔과 공동체의 가치가 이어져 오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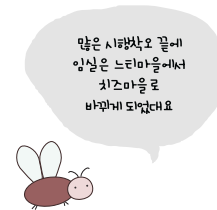
마을에 도착하자 총무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기대했던 나에게 표준어는 다소 의외였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총무님은 이 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다보니 자연스럽게 표준말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을의 이덕근 할아버님에겐 치즈마을보다 느티마을이 더 익숙하다. 할아버지는 “**이 곳은 원래 느티마을이었어**”라는 말로 마을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말처럼 치즈마을은 원래 100여 그루의 느티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느티마을’로 불렸다. 옛날에는 동네 입구에서부터 마을 곳곳에 수령이 천 년 이상이 된 느티나무가 즐비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 아끼고 보호했다고 한다. 장씨(長氏) 일가가 태평성대를 보내며 살던 이 느티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이후 50여 년간 아무도 이 마을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 진달래꽃, 살구꽃 등이 만발하며 아름다운 정취를 되찾아 가기 시작했다. 이때 충청도 공주에서 이기(李驕)란 선비가 전주 이씨의 발상지인 전주를 순례하다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인 이 곳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곳을 보자마자 명당으로 여겨 마을 중앙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기 선비의 직계 후손인 이진하 정보화위원장님은 집 주변을 가리키며 “여기가 거기랑계”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기 선비가 정착한 후 전주 이씨뿐만 아니라 청주 한씨, 순창 설씨 등이 이주해 화성마을, 중금마을, 금당마을 등 자연부락으로 번성했다고 한다.

‘느티마을’에서 ‘치즈마을’로 유명해진 것은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본명 : 디디에 세스테벤스)가 산양 2마리를 이끌고 금성리에 도착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성리는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사람들도 할 일이 없는 가난한 동네였다. 이를 보고 지정환 신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치즈 생산을 제안하였다. 산에 나무 대신 풀이 있으니 산양을 키우고, 양은 일 없는 사람들이 키우면 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속된말로 ‘어이없어’ 했다. 당시 사람들에게 치즈는 대중화되지 않은 생소한 식품이었고,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 없는 처지에 치즈는 사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정환 신부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전국에 몇 대 없던 보물 1호인 바이크를 팔아 산양을 구입했고, 치즈기법을 배우기 위해 고국을 몇 차례 방문하는 정성을 보였다. 그러자 마을사람들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합심하여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임실은 한국 최초의 치즈 발상지가 되었고, 마을의 이름도 ‘느티마을’에서 ‘치즈마을’로 바뀌게 되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임실은 느티마을에서  
치즈마을로  
바뀌게 되었대요

벽화와 포토존. 많은 아이들이 이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

### # 체험장으로 출발~ 서울 촌놈의 경운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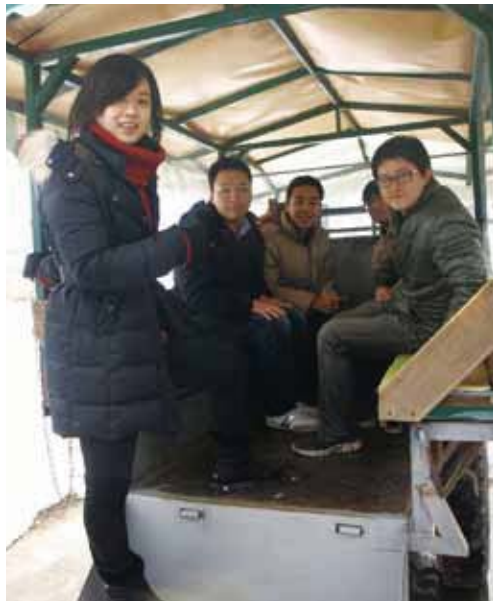
치즈마을의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접수하기 위해 접수처로 달려 가보니 이미 접수를 끝내고 체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접수를 하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밥 생각이 간절했다. 이때 우리를 반긴 것은 '치즈 돈가스'였다. 돈가스에 치즈를 듬뿍 넣어 만든 치즈 돈가스는 맛도 맛있지만 일명 '무한리필'이 된다는 점에서 기뻐다. 순식간에 돈가스를 해치우고 경운기를 이용해 정보센터 주변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곳저곳에 각종 벽화나 장식품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진 촬영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덧 체험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되어, 경운기 한 대에 올라탔다. 우리를 운송할 경운기는 짐칸에 천장과 창을 만들어 바람과 눈을 막을 수 있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속도도 느리고 덜컹거리는 경운기를 체험장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한 재치가 돋보였다. 비록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흙길 위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경운기 안에서 비로소 농촌에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체험마을을 몇 군데 다녀봤지만 경운기를 탈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요즘 대부분의

농촌에서도 경운기보다 트럭이 더 많이 보인다.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내가 경운기를 타봤을 리 없다. 그렇기에 경운기 체험은 내게 색다른 재미를 주었다. 천천히 가는 경운기에 몸을 싣고 눈이 쌓인 들판을 바라보니 정말 농촌에 왔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다.

경운기 체험은 여행객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치즈마을에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에게만 경운기 운행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에게 경운기 운행이 일종의 '용돈벌이'였다.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에게 줄 용돈을 직접 번다는 사실에 뿌듯해했다. 또한 경운기를 운행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도 만족스러워 했다.

사실 이 같은 제도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농촌과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경운기 체험



### # 모차렐라 치즈체험과 피자체험에 빠지다

경운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체험장에 도착했다. 첫 번째 체험은 모차렐라(mozzarella) 치즈 만들기. 체험장에는 우리 6명을 포함해 30여 명 9개 팀이 있었다. 이 중에는 가족 단위도 있었고 학생끼리 온 팀도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온 박영미 주부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방문이란다.

“이런 체험 아니면 언제 아이들이랑 얘기나 하겠어요? 애들한테 자꾸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게 되는데 치즈를 같이 만들다 보면 잔소리도 안 하고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라는 말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박영미 주부의 아들인 영훈 군도 치즈 만드는 재미에 빠져 한없이 즐거운 표정이다.

원래 모차렐라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3~4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다 할 수는 없기에 ‘간이체험’으로 대신했다. 치즈를 뜨거운 물에 넣고 발효제 역할을 하는 유산균, 응고제 역할을 하는 레네(rennet)를 넣고 응고를 기다렸다. 뜨거운 물에 넣은 치즈를 20분 정도 후에 꺼내서 펼쳐도 보고, 늘려도 봤다. 그 작았던 치즈가 풍선처럼 펼쳐지고 늘어나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으며, 다른 체험객들도 즐거워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치즈마을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다시 치즈마을을 찾는지 알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신기해하며 누가 더 길게 늘일 수 있는지를 놓고 시합을 하기도 했다. 치즈 하나로 열 살도 안 된 아이에서부터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온 할머니까지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장관이 연출된 것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움’이라는 치즈마을의 모토가 괜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치즈를 만드는 작업은 녹록지 않았다. 실수로 치즈를 다시 뜨거운 물에 넣는 바람에 모양도 이상하고 먹기도 힘든 치즈를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와인 안주를 직접 만들 수 있었기에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모차렐라 치즈체험에 이어 피자 만들기 체험에 도전했다. 어렸을 때부터 피자를 많이 먹었지만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에 너무 기다려졌다. 만들 피자는 일명 ‘치즈크러스트 피자’. 피자반죽과 토핑, 치즈는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우리는 토핑과 치즈를 피자반죽에 적절히 올려놓기만 하면 되었다. 체험 선생님이 피자반죽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 것을 제안해 우리는 각양각색의 하트모양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자신의 피자가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자랑하며 즐거워했다. 우리는 각자 만든 피자를 먹고, 남은 피자는 저녁 간식거리로 챙긴 뒤 체험장을 빠져 나왔다.



## #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 사람들

모차렐라 치즈체험과 피자 체험을 마치고 다시 마을센터로 돌아왔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치즈마을 내에 있는 '산들미향'이라는 음식점으로 향했다. 이 곳은 치즈마을 음식점답게 모든 음식에 '치즈'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독특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도 치즈가 들어가고, 삼겹살에도 치즈를 올려 먹었다.

우리는 삼겹살과 함께 모차렐라 치즈와 퀘소블랑코(quesoblanco) 치즈를 구워 먹었다. 모차렐라 치즈는 삼겹살 위에 올려 구웠고, 퀘소블랑코 치즈는 불판에 직접 구워 먹었다. 느끼할 것 같다는 생각에 섯 손이 가지 않았으나, 막상 먹어보니 생각 밖으로 부드러웠다. 삼겹살의 거친 맛을 치즈가 감싸주는 듯한 맛이었기에 우리는 좀 더 편안한 느낌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치즈가 곁들여진 고기와 함께 가벼운 술이 곁들여지자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위원장님과 총무님은 마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치즈마을에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있다.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역시 이러한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평온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던 집성촌이 폐허가 된 것은 결인들을 학대하고 천시했기 때문이란단다. 마을의 악명을 들은 한 도사가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에 우뚝 서 있던 요랑바위를 해암(害岩)으로 몰아가 파괴하도록 설득했고, 이에 마을 사람들이 요랑바위를 파괴하자 그 속에 선혈(鮮血)이 비추었고 이후에 전염병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며 마을이 폐허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게 들리는 전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전설이 아직도 전래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을 사람들이 '사람과 나눔'을 중시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실 나눔과 공동체를 말하기는 쉽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나눔과 공동체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운영위원회는 매년 체험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상당액을 기부하고 있다. 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나눔의 전통을 몸소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마을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농사가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체험마을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체험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체험을 통해 함께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다른 체험장을 만들어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 마을 어르신의 말씀이 마을의 가치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을들이랑 다른 거지. 우리는 돈 못 벌어도 행복해. 농사짓고 사람들이랑 놀면 되거든. 그게 다야.”**

많은 사람들이 마을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 체험객의 수나 수익 금액에 주목한다.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고, 보람을 느끼는가에 있다. 농촌 마을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가치를 망각한 채 도시의 시각으로, 효율성의 잣대로만 마을을 바라보려 했다.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동안 간과했던 중요한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니 숙박시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연간 50,000명이 넘는 체험객이 다녀가는 마을인데, 정보화센터 2층 외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게다가 이 역시 단체 고객 위주여서 가족단위가 숙박하기 위해서는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마을 집들을 민박으로 개조하거나 새로운 숙박시설을 짓는다면 지금보다 더욱 멋진 농촌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았다.

## #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는 길

마지막 날 아침, 태양 열판이 집집마다 달려있는 것이 인상적인 중금마을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퀘소블랑코 치즈 체험을 하며 마을체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 떠날 때도 하얗게 채색된 눈 위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가득했다. 아이들도, 경운기를 운행하는 할아버지도, 이를 지켜보는 마을사람들도 모두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이었다. 사람의 채취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하루가 조금 넘는 시간을 보냈을 뿐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에 편안하고 행복해졌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을을 떠났지만 마음만은 떠날 수가 없어 마을에 남겨두기로 했다. 어느새 또 다른 안식처가 된 것이다.



### ★찾아가는 길

#### 1. 대중교통 이용 시

남부터미널에서 06:30부터 19:00까지 총 16회 운행(배차 간격 30~90분), 약 3시간 30분 소요

#### 2. 승용차 이용 시

- 경부고속도로 - 천안JC - 천안논산고속도로 - 논산JC - 호남고속도로 - 전주JC - 남원방면 26번 국도 - 17번 국도 - 임실 - 치즈마을 (약 3시간 30분 소요)
- 대전방면  
유성IC - 호남고속도로 - 논산JC - 호남고속도로 - 전주JC - 남원방면 17번 국도 - 임실 - 치즈마을(약 2시간 20분 소요)
- 부산방면  
서부산IC - 남해고속도로 - 창원JC - 마산외곽도로 - 산인JC - 남해고속도로 - 대전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생초IC - 통영대전고속도로 - 함양JC - 88올림픽고속도로 - 남원IC - 임실, 전주방면 17번 국도 - 임실 - 치즈마을 (약 3시간 40분 소요)
- 광주방면  
동광주IC - 호남고속도로 - 고서JC - 88올림픽고속도로 - 순창IC - 27번 국도 - 임실 강진 - 30번 국도 - 임실 - 치즈마을

### ★주변관광지

#### 옥정호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드라이브 코스가 아름답다. 물안개와 호수 주변의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보유하고 있어 꼭 가봐야 할 곳이다.

### ★셰리프 프로그램

#### 생각하는 정원

경운기 타기 체험, 모차렐라 치즈체험, 퀘소블랑코 치즈체험, 치즈 돈가스체험, 산양유비누 만들기 체험, 피자만들기 체험



전북 완주 안덕마을  
힐링캠프가 따로 없어요~

글 정현정

‘귀신사’는 우선 이름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영원을 돌아다니다 지친 신이 쉬러 들어오는 자리.  
이름에 비하면 너무 보잘 것 없는 절이지만 조용하고 아늑해서  
친구는 아들을 데리고 종종 그 절을 찾는다고 했다.

(양귀자 ‘숨은 꽃’ 중에서)

모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양귀자의 소설 속  
설명처럼 모악산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안덕마을은  
치유와 휴식의 공간 그 자체였다.

## # 출발의 설레임

동장군이 한발 물러선 수요일 아침 전주행 고속버스는 서울을 지나서 천안IC를 지나 호남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했다. 건조해 보이는 겨울풍경을 뒤로하고 2시간 30분 남짓 달린 버스는 우리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로 데려다 주었다. 전주에서 모악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714번 지방도를 타고 5분 정도 더 가니 완주군 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안덕마을이 나왔다. 자동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은 흙길에 딸나무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황토 짙질방을 지나 마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유영배 촌장님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들어갔다.



유영배 촌장



## # 깡촌마을의 화려한 비상과 마을공동체

유영배 촌장님은 “마을이 생각보다 볼품없죠?”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었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 특산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렇게 일궈냈습니다.” 빠른 호흡으로 이어가는 어조에서 강인함과 자신감이 묻어 나왔다.

“우리마을은 체험장 하나하나 심지어 여러분이 목계 될 숙소 벽 하나하나까지 마을주민들이 지분을 올리고 미장을 한 곳이에요. 그뿐 아니라 짙질방 벽 역시도 마을 주민들이 모악산에 올라가 직접 약초를 캐 훈증하고 거기에 우리마을 황토를 섞어서 바른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직접 하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촌장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답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농민들의 70%가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안덕마을은 몇 년 전만 해도 70%가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어려운 산촌마을이어서 딸나무는 모악산에서, 끼니는 집앞 텃밭에서 근근이 키워 먹었을 정도란다.

### tip 01

#### 황토방의 효능

황토속의 미생물이 각종 중금속과 공해물질, 인체의 나쁜 독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아궁이에서 직접 때는 온돌과 황토방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이 몸의 노폐물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여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황토의 정화작용은 아토피와 부인병, 현대인의 만성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토음식개발이나 자연친화적 농산물 생산 등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보니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마을에서 자생하는 것을 이용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안덕마을의 찜질방과 숙박시설인 황토방이라고 한다. 이렇듯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곳이니 전국의 어느 찜질방과는 확연히 달랐다. 마을주민들이 매일 아침 산에 가서 뽕감나무를 해 온 것으로 불을 때고, 찜질방 곳곳에 모악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들을 담아 두었다. 찜질방 벽 역시 황토와 약초를 개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안덕마을의 찜질방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인지 촌장님의 말에서 알 수 있었다.

“장관상도 받고 모범마을 사례로 소개되는가 하면 체험마을을 시작하려는 마을대표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마을이 주민 공동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먼저 체험마을을 기획했고, 초기 자본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들었어요. 성공 여부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서로 힘을 합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덕마을에서의 ‘공동체’는 단순히 공동으로 작업을 하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삶 그 자체였고, 안덕마을의 새로운 역사이자 발전의 초석이었다.

## 장관상도 받고 모범마을 사례로 소개





### #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공간

드디어 안덕마을의 자랑인 찜질방에 도착했다. 찜질방 마니아로 알려진 정미영 사무관은 이런 찜질방은 처음이라며 즐거워했다. 서울의 찜질방은 인테리어만 화려하고 온도가 높아도 땀이 잘 나지 않는데 비해 안덕마을 찜질방은 땀이 금방 난다는 것이었다. 안덕마을

의 찜질방은 섭씨 35도 정도의 찜질방과 40도 가까이 되는 고온 찜질방 두 곳이 있는데, 이글루같이 생긴 모양에 천장이 매우 높아 말소리가 웅웅거리면서 울려 퍼졌다.

찜질을 끝내고 나가니 마을 냇가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간단한 운동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이렇듯 안덕마을 찜질방은 도심의 여느 것과 비교해 시설이 매우 단순하다.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을 갖춰 놓고 정성을 들이는 방식이 바로 안덕마을의 찜질방 운영 방식이다. "Simple is the best"라는 광고 문구가 가장 적합하게 들어 맞는 곳이다.

다음 날 아침 모악산에 올랐다. 겨울치고 제법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산행길이 어렵지 않았다. 안덕마을에서 모악산까지 나 있는 산책로는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 곳 역시 원래 나 있던 모악산 등산로를 활용하던 등산객들을 마을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덕마을 주민들이 직접 등산로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 안덕마을 쪽으로 난 등산로는 다른 등산로에 비하여 경사가 높지 않고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코스였다. 등산로의 폭은 좁았지만 낙엽이





진 바다 위를 걷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상쾌했다.

안덕마을 등산로는 긴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겨울철 등산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설(雪)산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안덕마을의 주민 한 분이 짙질방에 땀 나무를 해서 정리하고 있었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늘 하는 일이고 일감이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전했다. 안덕마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비집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산책길이었다.

등산을 끝내자 채소 뷔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마을에서 재배되는 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단이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웰빙식사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배추, 고사리, 시금치, 고추 등이 맛깔스럽게 버무려져 있다. 초록빛을 띤 된장에 버무려진 나물이 눈길을 끌었다. '멜라초'라고 불리는 이 나물은 소화를 도와주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이라고 한다. 알싸한 냄새와 함께 씹쓸한 맛이 독특하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음식이 하나같이 감칠 맛이 났다. 안덕마을의 자랑이기도 한 죽염간장과 죽염된장을 이용하여 조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죽염간장과 죽염된장, 죽염고추장은 안덕마을의 대표적인 유기농 브랜드로 일반 가공 식품과는 달리

멜라초



알싸한 냄새와 함께  
씹쓸한 맛이 독특

직접 쥐눈이 콩을 이용하여 만든 순수 식품이다. 일반제품보다 비싸지만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잊지 않고 주문을 하기에, 올해도 벌써 설 선물로 50박스 이상이 나갔다고 한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한 바퀴 둘러 보았다. 마을은 미치, 장파, 신기, 원안덕이라는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공동연합체 '안덕 파워빌리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4개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연합체로 마을의 주요 사안도 이들이 모두 결정한다고 한다. 4개의 마을이 체험장 아래에 웅기종기 붙어 있는 모습에서 고즈넉함이 느껴졌다. 오후 일정은 쑥뜸 체험이다. 찜질방에서 진행되는 체험코스도 배 위에 훈증한 쑥뜸을 올려 놓고 30분 정도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으로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쑥뜸을 뜰 수 있다고 한다. 원형의 쑥뜸기계를 배 위에 올려 놓자 배 위로 따뜻한 수증기가 몰려 오면서 따뜻해졌다. 가만히 누워있자 눈이 스르르 감기며 졸음이 쏟아졌다. 우리를 깨우는 사무장님의 목소리에 눈을 뜨자 향긋한 쑥 냄새가 가득 퍼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tip 02

쑥의 효능

쑥에는 항산화활성이 높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있어, 몸 안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불포화지방산과 산소의 결합을 억제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낮에 베인 손에 쑥을 짓이겨 상처를 치료했다고 한다. 쑥의 줄기와 잎자루는 약용으로, 어린 잎은 식용으로, 잎은 땀을 뜨는데 쓰인다. 특히 여성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주는데, 쑥은 피의 저장공간인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량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 아랫배가 차가워서 생리통이 있는 경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냉이 많은 여성, 자주 설사를 하는 여성이 먹으면 효능이 있다. 서구화된 현대인의 식습관에도 도움이 되는데, 쑥은 피를 맑게 해주고 섬유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혈압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압을 낮춰준다.







안덕마을의 밤

### # 바비큐 파티와 안덕마을의 명익

저녁에는 식당 옆에 마련된 바비큐장에서 단출한 삼겹살 파티를 했다. 사무장님과 총무님은 숯불 위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안덕마을이 파워 빌리지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등을 들려주었다. 지금이야 마을주민들도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지만, 처음 영농법인을 만들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고 한다. 두 분은 안덕마을의 발전은 지금도 진행형이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닌게 아니라 바비큐장 역시 체험마을의 수익으로 지어진 것인데 아직 자금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안덕마을은 어른들의 소풍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을 위한 공간, 어른들을 위한 휴식이 있는 곳, 조용히 와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안덕마을이다.

대부분의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은 겨울철에는 그 내용이 다소 빈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황토 찜질방은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날 찜질방에서 만난 이상호 원장님은 사상의학에 근거하여 체질별로 건강에 관련된 도움말을 전해줬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인 등 체질별로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식사 할 때 물 마시는 법, 건강한 식습관 등의 강의를 맛깔나게 이끌어갔다. 이상호 원장님은 안덕마을에 있는 민속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황토 찜질방이나 쑥뜸 체험장 역시 처음에는 민속 한의원의 물리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상호 원장님이야말로 안덕마을 발전의 산증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토 찜질방은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호 원장님

## # 숨겨진 명소, 금강굴

찜질방을 나와 금강굴로 가는 길목에는 여러 가지 민속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공예품은 안덕마을 출신의 젊은 목공예가가 만든 작품들이라고 한다. 이 젊은 공예가는 안덕마을의 체험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요절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 금강굴로 가는 길목에 그의 작품을 장식해 놓았단다.

금강굴은 폐광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피서지로 만든 곳으로 찜질방 뒤편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옛날에 금을 캐던 굴 입구가 나온다. 물이 고여있는 통로를 10m 정도 지나니, 시원한 금강굴이 나왔다. 겨울이라 약간 서늘했지만, 여름철에는 찜질로 데워진 몸을 시원하게 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니 안덕마을은 하나부터 열까지 '건강'이라



는 테마 하나로 모든 시설과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2박 3일간의 체험 일정을 마치고 전주로 다시 올라 왔다. 안덕마을은 앞으로 우리 농촌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의 마을이기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 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도 더러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마을주민 모두가 힘을 합하면 최고의 힐링 체험마을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우리 농촌이 나아가야 할 모델 제시



### ★ 추천 일정

#### 당일 코스

오 전 : 쉼뜨뜨기와 한증막 체험

점심식사 : 웰빙 채식뷔페

오 후 : 노르딕 숲 걷기, 건강 기체조, 건강약차 만들기

저 녍 : 통돼지 바비큐 파티

#### 1박2일 코스

첫째날 \_ 오후 : 쉼뜨뜨기와 한증막 체험 / 식이요법 강연회

저녁 : 웰빙 식사

둘째날 \_ 오전 : 노르딕 숲 걷기 / 건강약차 만들기 / 쥐눈이콩 청국장 만들기

점심 : 웰빙 채식 뷔페

오후 : 건강 기체조 /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방문

### ★ 숙박 정보

#### 황토방(독채형)

- 황토방 8명 2동, 10평 2동(기준 인원 4인)

- 한옥식 독채형으로 개별 욕실과 싱크대 구비

- 별도의 체험프로그램 이용 없이 숙박만도 가능

#### 요초당(단체 독채형)

- 고택을 리모델링한 단체 숙소(기준 인원 15~20인까지 수용 가능)

- 스피커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구비한 세미나실 이용 가능

- 내부바닥은 온돌형의 최신식 난방 시설



요초당전경

전남장흥 백자골마을

## 백자 도요지와 친환경에 빠지다

글 김정락

왁자지껄 시끄럽게 술판이 벌어졌다. 직장상사, 컴퓨터와 씨름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였다.

“헤이 범준, 괜찮아?” “안 괜찮아~ 오늘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아 진짜? 짜증나~”

상사부터 애인까지 안주는 많다. 술이 술술 들어가는구나.

그때 단조롭고 신나는 멜로디의 노래가 들려온다.

“잠 못 이룬 서울 사람들~♪

미소 잃어 버린 친구들~♪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어라, 버스커버스키의 ‘서울 사람들’이다.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버스커버스키가 시골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던 폐교가 생각나고,

그 폐교가 위치한 물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 생각나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추억이 생각난다.

그렇다. 장흥 백자골 마을이 생각난다.

## # 하얀 눈과 백자골 마을

백자골? 백자? 조선시대 도자기를 말하는 건가. 도자기로 유명한 곳은 이천이나 강진이 아닌가. 장흥이 도자기로 유명한 곳인가. 머리를 가우똥하게 만드는 궁금증을 안고 장흥 백자골 마을로 떠났다.

“2월 첫 출근길은 몹시 혼잡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눈이 내리고 있고 오늘 오후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하실 때 빙판 길 조심하세요.”

떠나는 날, 라디오가 시끄럽게 전국의 한파 소식을 전했다. 눈과 백자, 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던 중, 밖을 내다보니 라디오에서 유별나게 떠들던 것이 이해가 된다. 슬그머니 걱정이 됐다. 마을에도 눈이 많이 내렸으면 어떡하지. 그 때 벨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한찬본 위원장입니다. 서울에 눈이 많이 온다면데요. 여기는 눈 많이 안 오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휴~ 다행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군. 근래에 느껴보지 못했던 세심한 배려가 내려가는 발걸음을 한층 가볍게 해 주었다. 백자골마을로 가는 길은 창 밖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눈에 익숙한 도시의 풍경은 사라지고 나무와 풀, 산과 들, 푸르른 하늘이 눈 앞에 펼쳐졌다. 가슴이 탁 트일 만큼 시원한 풍경이지만 계절의 힘은 무시할 수 없나보다. 잎이 없는 나무와 황량한 눈발은 을씨년스럽다. 개나리가 피는 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시멘트 투성이인 도시 풍경에 비하니 산과 들이 주는 안온함이 견줄 데 없이 따뜻했다.

## # 종이로 수납장을 만든다고? 지승공예의 힘

마을에 도착하니 한찬본 대표와 문병갑 이장을 비롯한 마을분들이 환한 미소로 일행을 반겨줬다. 마치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정겹다. 우리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문 이장님



덕으로 이동했다. 지승공예를 하기 위해서다. 방으로 들어가니 공예 선생님이 계셨다. 이곳에 온 지 5년이 되었다는 박혜경 공예 선생님은 온화한 인상으로 마치 이웃집 누나를 만난 느낌을 줬다. 체험에 앞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승공예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선생님의 작품이 방 이곳저곳에 널려있다. 휴대전화기 줄이나 컵받침 등의 소품도 있지만, 그릇과 가방, 수납함 등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공예품이었기에 매우 새로웠다. 고전적이며 투박한 이미지에서 작품의 품위가 느껴졌다.

지승공예는 일명 ‘노여개’라고도 하는데 종이를 꼬고 엮어서 만드는 공예를 말한다. ‘지(紙)’는 종이를 말하며 ‘승(繩)’은 서로 얽힌 사슬모양을 뜻한다. 종이를 꼬아 실 모양으로 만든 후 이것들을 서로 엮어서 공예품을 만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공예의 재료는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선비들이 공부하던 종이, 벗겨진 창호지 등의 한지가 주종



을 이룬다. 생활 속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선조들의 슬기로우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승공예라고 한다.

드디어 본격적인 체험에 들어갔다. 지승공예의 기본은 지승(紙繩)을 만드는 것인데, 한 쪽에 쌓여있는形形色색의 지승이 은은한 빛깔을 뽐내고 있었다. 지승은 한지에 물을 묻혀 돌돌 말아서 만드는데, 선생님이 노련한 손놀림으로 한지를 꼬아서 지승을 똑딱 만들어 냈다.

## 지승공예의 기본은 지승(紙繩)을 만드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잘 못해요”라는 문 이장님의 말씀에 ‘한지 마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얇게 말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먼저 말았던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종이를 버리고 말았다. 결국 우리일행은 포기하고 말았으며, 체험에 쓸 지승은 모두 선생님께서 만들어 줬다.

우리가 만들 작품은 잠자리 휴대전화기 줄이다. 전통 공예와 최신 IT기기 액세서리와의 만남인 셈이다. 여러 가지 지승공예품을 보다가 잠자리 휴대전화기 줄을 보니 너무 단순하고 쉬워 보였다. 하지만 막상 체험활동에 들어가니 너무 어려워 여기저기서 한탄의 소리가 들렸다. 모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휴대전화기 줄을 완성했다. 체험이 끝나고 나니 옆에 전시돼 있는 지승공예품 하나하나가 달라 보였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지 그 가치를 어렵פות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 # 석화가 아닌 추억을 먹는 '자연석화구이체험'

지승공예 체험이 끝나고 나자 배꼽 시계가 밥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장흥은 산, 들,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먹을거리가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자연석화구이로 유명한 남포수산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종종 석화구이를 먹지만 그에 비할 것이 되겠냐는 생각에 절로 군침이 돌았다. 가는 도중에 한 위원장님은 옆의 산을 가리키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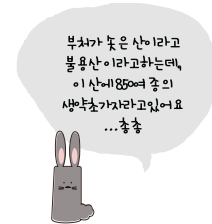
“여기가 부용산입니다. 부처가 솟은 산이라고 해서 불용산(佛聳山)이라고 하며, 약다산(藥多山)이라고도 해요. 이 산에 850여 종의 생약초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변씨 성을 가진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서 변강쇠가 이 곳 약다산에 있는 약초를 먹고 강해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요.”

나도 약다산에 있는 약초를 모두 먹어보고 싶다는 발칙한 생각을 하는 찰나 갑자기 덜컥덜컥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오랜만에 달리는 비포장도로였다. 덜컥덜컥 흔들리는 것이 흥에 겨워 저절로 탈춤을 추는 것 같아 색다른 재미가 느껴졌다. 다른 관광객들도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면 같은 말을 한다는 게 한 위원장님의 설명이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관광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남포수산에 도착하자 어느새 사방이 온통 새까매졌다.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정도로 별이 많았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활활 타는 장작 위에서 돌덩이 같은 석화가 구워지고 있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앞치마를 하고 목장갑을 끼고 눈을 보호하기 위한 큰 안경을 착용했다. 손에는 껍질을 벌리기 위해 조각칼을 들어 올린다. 그렇게 석쇠에 둘러 앉아 있으니 공터에서 불장난을 하고 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자연석화는 양식에 비해 알맹이가 작지만 맛이 훨씬 좋고 영양가도 좋아요.”

고환석 선생님은 자연석화의 맛을 자랑하며 생약초로 담근 술을 권했다. 장작불에 자연석화 여기에 멸치로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생약초 술까지 곁들이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맛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 부모님과 함께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식석화는 큰 조개 하나를 열면 큰 알맹이가 하나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자연석화는 돌덩이 같은



석화 여기저기에 껍질이 숨어있으며, 이를 열면 조그마한 알맹이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어서 독특한 재미가 있었다. 어떤 석화는 껍테기를 벗겼더니 알맹이는 없고 온통 진흙뿐이었다. 순간 “이게 바로 천연 머드팩이죠”라며 한 위원장님이 그 진흙을 손에 바르시더니 내 얼굴에 문혔다.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 지의 여부를 떠나 그 상황 자체가 즐겁고 신났다.

술도 적당히 들어가고 석화로 배도 채우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을 무렵, 한 무리의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온다. 마을 사람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나누더니 내기 율놀이가 벌어진다. 이긴 팀은 석화 한 바구니를 따게 된다. 어쩌다 보니 내가 우리 팀 대표가 됐다.

“도다, 도”

“모모모모모”

“웃이요~”

“에이~ 낙이네 낙!”

율놀이가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낙이 두 번이나 나온다. 일행들의 눈초리가 매섭다. 하지만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는 법. 낙도 있었지만, 운이 잘 따라 줬을까, 아니면 서울에서 온 손님에게 호의라도 베풀 것일까. 내기 율놀이의 결과는 우리 팀의 승리다. 공짜로 얻은 석화 구이를 더 먹고 배가 터질 것처럼 부풀러 올랐다. 술과 석화, 좋은 사람들이 있는 분위기가 흥을 돋운 것일까. 명절에도 안 하던 율놀이가 이렇게 신나는 놀이었다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얻은 기분이다. 먼 길을 와서 그런지 너무 흥분하며 놀아서 그런지 슬슬 피로가 몰려온다. 시계 바늘이 어느덧 9시를 지나고 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다. 우리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 술과 석화, 좋은 사람들





## # 적토미, 친환경 농업의 희망을 보다

식사를 마무리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오늘 밤 잠을 잘 곳은 폐교를 리모델링한 생약초체 협학습장이다.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나니 한 위원장님이 막걸리를 들고 왔다.

“우리마을에 왔으면 이 막걸리는 먹어봐야 합니다. 적토미로 만든 막걸리인데 맛이 기가 막혀요.”

‘적토미’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쌀로 척박한 산간지 땅에서 잘 자라며 친환경 농업에 의해서만 재배된다고 한다. ‘콜라틴’이라는 적갈색 색소가 풍부해 붉은색을 띄며 향과 맛이 고소하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 주는 폴리페놀이 일반 쌀에 비해 200배 가량 많아 피부노화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단다. 하지만 적토미는 재배가 어렵고 수확량이 적어 생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백자골마을의 쇠똥구리작목반 회원들이 7년에 걸쳐 친환경 유기농 농법으로 적토미를 재배했다. 초기에

는 수확량이 적어 일 년 내내 농사를 짓고도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한다.

“작목반이 처음에는 17가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7가구만 남았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떠난거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잘 이겨내셨네요.”

“꼬라지죠. 전라도 사람들 꼬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서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작목반 이야기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찾았다. ‘이런 분들이 오로지 농사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잔에 막걸리를 채웠다. 적토미로 담근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와는 달리 분홍빛을 띤다. 잔에 따라 놓으니 은은한 분홍빛이 참 보기좋다. 보기에 좋으니 술이 절로 들어갔다. 요거트와 비슷한데, 톡 쏘는 맛이 있고 조금 시큼했다.

“쇠똥구리작목반이라는 이름이 특이해요.”

“쇠똥구리는 생태지표로 활용하는 곤충이에요. 친환경 유기농법을 지속하자 사라졌던 쇠똥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쇠똥구리는 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물입니다.”

적토미와 쇠똥구리 작목반 이야기를 하는 내내 한 위원장님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에 희망이 살아있고 백자골마을, 더 나아가 우리 농촌의 미래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 tip 01 적토미

통일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쌀로 산간지의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며 친환경 농업에 의해서만 재배되는 것으로 친환경 쌀의 결정체라고 불린다. ‘콜라틴’이라는 적갈색 색소가 풍부해 밥을 지으면 팔팔 색을 띄며 특유의 향과 맛이 나 고소하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 주는 항산화기능의 폴리페놀을 일반 쌀에 비해 200배 가량 더 함유하고 있어 피부노화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백자 도요지'

아침에 일어나자 한 위원님의 안내로 숙소인 생약초체험학습장을 둘러봤다.

“버스커버스커가 유명해지기 전에 여기서 자고 갔어요.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작은 음악회도 했죠. 체험장 한 쪽에 그림도 직접 그려줬습니다.”

TV에서 볼 때도 음악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렇듯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기기에 그 표정이 그대로 얼굴에 묻어난 듯 했다.

이어 도착한 곳은 백자 도요지다. 재송마을이라는 원래의 이름 대신 백자골마을로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 도요지 때문이다. 이 곳에는 가마터가 40여 기 정도 있는데, 마을 차원에서 관리·보호한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조선 시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릇을 생산하던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장님은 가마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유재란 때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도자기 장인들이 수없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일본으로 간 도자기 장인 중 조선 도공의 후예인 심수관가는 지금도 대대로 일본 가고 시마에서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죠. 제14대, 제15대 심수관 선생이 우리

마을을 직접 방문했는데, 그만큼 이 곳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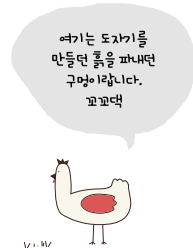
백자골마을은 지금도 마을 차원에서 심수관가와 꾸준히 교류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도 가고시마의 심수관가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도요지를 보존하고, 장흥 백자 도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마을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역부족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현재 도요지 주변을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세차게 부는 바람이 소중한 문화재 보호에 무관심한 우리를 꾸짖는 소리없는 외침처럼 들렸다.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와봐요~”

갑자기 도요지 한 쪽 귀퉁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대표님이 우리에게 손짓한다. 그 쪽으로 가보니 땅에 사람 몸통만한 구멍이 있다.

“여기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파내던 구멍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구멍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많이 놀았죠. 한 번 들어가 보세요. 하하”

썩 내키진 않았지만 구멍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보다. 구멍 안으로 슬그머니 다리부터 넣어 본다. 45도 정도로 기울어진 구멍 안 쪽으로 다리가 쑥 들어가더니 온 몸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구멍이 크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안 쪽으로도 한참 더 구멍이 이어져 있다. 마치 두더지가 된 듯 색다른 경험이다. 구멍 안 쪽을 살펴본 후, 나오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만만치가 않았다. 대표님이 웃으시며 손을 내밀었으며, 그 손을 잡고서야 겨우 나올 수 있었다.

“와~ 구멍이 정말 깊네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계속 파내다 보니 구멍이 점점 깊어졌어요. 이런 구멍이 이 쪽에만 여러 곳에 있습니다.” 좋은 도자기를 만드려면 좋은 흙이 필요한 법. 좋은 흙을 얻기 위해 구멍을 만들고 여기서 흙을 퍼냈다고 한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간간한 장인정신으로 평생을 바쳤을 조상들을 생각하니 이 곳을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워졌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백자골마을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지승공예나 자연석화구이처럼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체험활동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절경한 바깥 풍경마저 아름답게 보였다.

##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간간한 장인정신

### ★찾아가는 길

장흥군청에서 회진항 방향으로 23번 국도를 타고 8km쯤 달리면 용산면에 도착. 용산에서 관산 방향으로 1.2km 달리면 조선백자도요지 이정표와 재송마을 표지석을 발견할 수 있다.

### ★주변관광지

#### 편백나무숲 우드랜드

4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한 숲이다. 억불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목재문화체험관, 전통한옥, 황토흙집, 치유의 숲, 편백소금집 등이 마련돼 있다.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통해 아토피 등도 치유할 수 있다.

#### 토요시장

우리나라 최초의 토요시장. 탐진강 옆에 있으며, 매년 열리는 물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있다. 특히 장흥 한우와 표고버섯, 키조개로 이루어진 장흥 삼합을 맛볼 수 있다.

#### 희망마을

장류체험, 다도체험 등 전통식품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민들이 직접 담근 장류를 판매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에서 개최한 세계녹차콘테스트에서 2008년, 2011년에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은 청태전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다.



전남 나주 이슬촌마을

## 이슬촌의 아침은 상쾌해요

글 유재형

풀잎에 글썽이는 아침 이슬을 보며  
풀잎에 마음을 매달아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리럽지만  
마음은 투명하게 글썽이는 이슬,  
맑고 둥글게 맺힌 이슬이고 싶습니다.  
〈이태수 ‘아침 이슬을 보며’ 중에서〉

## # 이슬이 많아 이슬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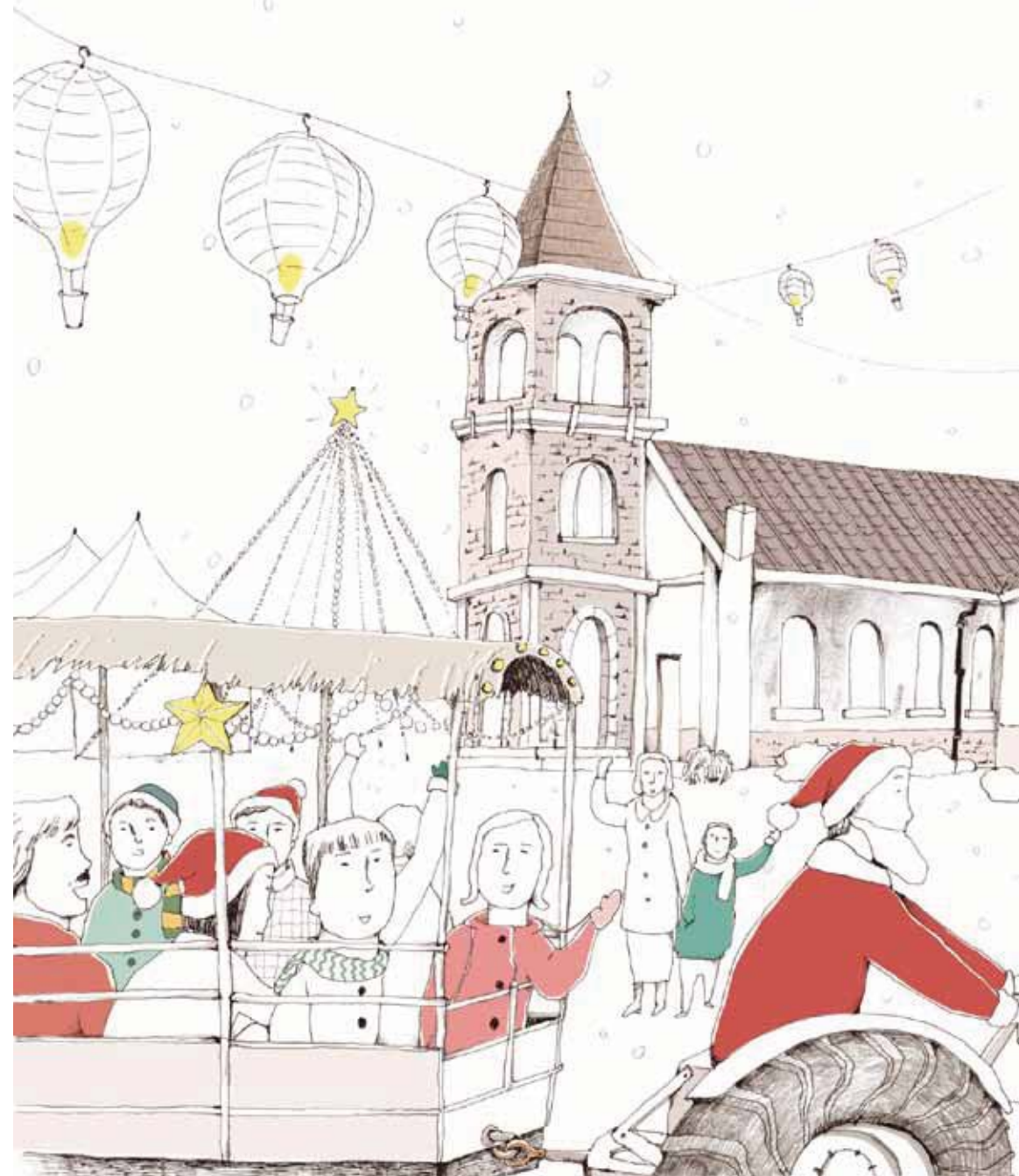
이름만큼이나 상쾌하고 순수한 이슬촌마을은 '마을 주민의 99%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과, 농촌마을 중 최초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농촌 사람들의 후한 인심과 미소 짓는 입가 끝에 걸린 순수함, 아침마다 곳곳에 맺혀지는 이슬들이 '이슬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곳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순수함 가득한 이슬촌을 거닐어 보고, 말로만 듣던 '이슬촌 크리스마스 축제'에는 어떤 따뜻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번 마을을 방문한 수습 사무관들은 유재형(28, 대변인실), 이수현(27, 어업정책과), 김재경(32, 수산정책과), 조민경(27, 식품산업정책과) 등 4명이다.

끈끈한 정(情)으로 전통문화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축제문화를 만들어가는 전남 나주의 이슬촌 마을.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쌓아온 이 마을의 정신적 기반은 웬만한 외풍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우선 마을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슬촌마을의 본래 이름은 계량(桂良)마을이다. 2004년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받으면서 마을 특성에 맞는 이름을 공모했는데, 당시 총무님이 제안한 이름이 바로 '이슬촌마을'이었다. 마을 뒤로 해발 200m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농토가 이어져 있다. 이 때문에 해가 빨리 지고, 산그늘이 일찍 드리워지면서 하루 일교차가 커 이슬이 많이 생긴다. 이 같은 마을 특징에 착안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이슬촌'이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남서쪽에 위치한  
전남 나주의 이슬촌마을로 떠나보자!





노안 천주교회

### # 고즈넉한 성당과 끈끈한 단합

KTIX를 타고 용산역에서 2시간 50분만에 도착한 나주역.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준 이경화 사무장님은 젊고 활기가 넘치시는 분이였다. 그 순간 나는 이 마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문득 들었다. 마을리더의 역량이 그 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수준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정도, 분위기는 물론 마을 소득수준까지 좌우하는 것을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사무장님과 함께 차를 타고 10여 분간 이동해 이슬촌마을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성당이였다. 하얀 겨울의 조용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한다고 하니 그 즈음에 다시 찾아도 좋을 듯 싶었다. 노안천주교회는 1927년 건축된 호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지방 문화재 제44호)이다. 붉은 벽돌을 쌓아올린 후 그 위에 다시 붉은 아스팔트 지붕을 씌운 이 성당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구심점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다고 한다.

도대체 이 성당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일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은 1894년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으며, 현재 주민 99%가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교우(敎友)이니 특별한 유대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마다 전국의 많은 성당들이 이슬촌마을로 수련회나 여름캠프를 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주민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여서 좋은 점은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성님 위원장님은 예상했던 대로 ‘끈끈한 정’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마을 행사는 대부분 성당을 중심으로 열린다고 한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나머지 1%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으나, 그들도 모두 잘 융화된다는 말에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다. 일례로 우리를 안내 해주신 김정호 총무님은 귀농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을주민들과 사이가 무척이나 돈독해 보였다.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을의 종교적 특성이 아닌가 싶다



보리캐기 체험

### # 보리도 캐고 계란도 줍자

이슬촌마을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 체험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해 보았다. 자~ 보리캐기 체험을 향해 출발! 가을에 씨를 뿌린 보리는 5~6월쯤 수확해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직 보리이삭이 나오지 않은 겨울철에도 호미 등으로 캐서 풀 자체를 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의 타깃은 바로 이 어린 보리 싹이었다. 즉, 보리캐기는 겨울철에 덜 자란 보리 싹을 호미로 캔다는 의미다.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캔 보리 싹을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잘 몰랐던 사실이라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유정란 줍기



‘그렇게 깨면 내일 아침 보리 된장국을 먹지 못할 것 같다’는 사무장님의 말에 우리는 정신없이 보리를 켜다. 자급자족의 체험 시스템은 노동에 대한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해 주었다. 겨울철인데다 바람까지 불어 처음엔 춥기도 했지만 푸르른 보리삭 한 뿌리 한 뿌리를 깨기 시작했다.

이어서 유정란 줍기 및 달걀꾸러미 만들기 연계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정란이란 암탉과 수탉을 한 우리 안에 넣고 길러서 생산된 계란으로, 부화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무정란에 비해 영양가도 더 풍부하고 가격도 비싸다). 우리의 할 일은 암탉들에게 살짝궁 다가가 살며시 계란을 가로채 오는 것. 농장주인의 말대로 암탉들에게 “미안해~”를 속삭이며 암탉의 체온이 느껴지는 따끈따끈한 계란들을 주웠다. 한 명이 계란 한 판(30개)씩을 딱딱 채워 담은 후 곧바로 달걀 꾸러미를 만들러 이동했다.

마을회관에서 담소를 나누시던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살갑게 반겨주셨다. 그리고 나서 곧 이 지푸라기의 마법사(?)들이 계란 꾸러미 만드는 시범을 보여주는데 순식간에 깔끔한 계란 꾸러미가 탄생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한 번만 더 보여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허허 웃으시며 느릿느릿한 손동작으로 새끼를 꼬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몇 번이나 보고 나서야 우리는 얼핏 모양은 비슷한 영성한 달걀 꾸러미를 만들 수 있었다. 물론 그날 저녁 이 꾸러미는 바로 해체되고 유정란은 맛있게 삶아져 우리의 야식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체험한 활동은 이슬촌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천연염색, 떡메치기, 농산물 수확, 미꾸라지잡기 체험, 양초 만들기, 생태놀이 체험, 농사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홈페이지 참조 [www.eslfarm.com](http://www.eslfarm.com))이 방문객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유정란이란?  
암탉과 수탉을 한우리에  
넣고 길러서 생산된  
계란이네요. 배야~





배즙



배 수확 체험

## 나주하면 배!

나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당연히 배다. 달달하고 시원하며 아삭한 배! 이슬촌마을에서는 4곳의 농가가 배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농가가 '나주배 태정태세'라는 브랜드로 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슬촌에서는 직접 배를 따서 먹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배를 수확할 수 있는 기간에 방문해야 한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방문하면 달달하고 아삭한 배를 직접 따서 맛볼 수 있다. 체험 비용은 3~4개 따는 데 대략 5,000원 선이다. 그렇다면 배의 수확시기가 아닌 때에는 나주배를 먹어볼 수 없는 것일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슬촌마을 한쪽에 과일즙류를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 곳에서 배를 이용한 배즙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슬촌에서 생산되는 배즙은 일반 판매를 위한 배즙과 학교 급식용으로 만드는 소포장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가 맛본 것은 바로 급식용 배즙으로 마치 마트에서 파는 푸딩처럼 컵에 포장되어 있어 먹기에도 간편했고 맛 또한 일품이었다. 마을을 체험하면서 한 박스 사갖고(혹은 주문)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특산지에서 직접 사는 농산물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이슬촌에서는 100% 리콜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안심할 수 있다.

##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해지는 곳

이슬촌마을은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약 5일 간(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월 20일 전후) 화려하고 눈부신 옷으로 갈아입는다. 바로 크리스마스 불빛축제가 시작된다. 성당을 포함한 거리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하고 여기저기 산타복장을 한 마을주민들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산타양초 만들기, 트리 만들기, 산타 트랙터 타기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마을 가운데에 무대를 설치해 지역가수나 풍물패, 마을주민 밴드가 공연을 펼치며, 문화나눔을 실천하는 기업들도 동참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축제의 일자별 세부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자.



### 이슬촌 해피크리스마스 축제

● 21일 ● 개막 점등행사 | 이슬촌 아이들 환영 공연 | 방문객어울림 한마당 ● 22~23일 ● 크리스마스트리존 점등 | 지역 가수 초청공연 | 체험 진행 ● 24일 ● 크리스마스트리존 점등 | 놀이패공연 ● 25일 ● 크리스마스트리존 점등 | 캠페이너 | 모두 즐기는 한마당 | 폐막 ● 26~31일 ● 크리스마스트리존 점등





농촌마을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 것은 이슬촌마을이 전국 최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성당 건물과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 점에 착안해 시작했다. 2007년 ‘이슬촌 불빛으로 여기저기 사랑가득 행복가득’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이슬촌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축제 대표마을로 성장했다. 실제 농어촌체험마을 정보에 관심있는 사람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이슬촌마을’하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축제’를 떠올릴 정도다. 평소엔 조용하던 이 조그만 마을에 5일 동안 5,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와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축제를 운영하는 데 워낙 많은 조명과 전기설비가 들어가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와도 흑자가 나지는 않는다고 한다. 추운 겨울철 연인,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바로 이 곳, 이슬촌 크리스마스 축제를 강추한다!

## # 슬픈 전설의 울고넘는 ‘이별재’

이슬촌마을 뒤편 병풍산의 중턱 고개 능선에는 슬픈 전설을 안고 있는 ‘이별재’라는 고개가 있다. 이야기인즉슨 옛날 옛적에 혼례를 막 올린 신혼부부가 신부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같이 산을 넘던 중에 산적들이 나타나 신부를 데려가 버렸다는 것이다.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다 보니 마을주민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 예컨대 산적이 아니라 호랑이가 물어갔다는 말도 있다. 어찌되었든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별재’에서 생이별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한 사연으로 이별재는 KBS TV 프로그램 ‘전설의 고향’에도 등장했다고도 한다. 이별재는 금성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언저리에 있어 등산객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하다. 동쪽의 노안면과 서쪽의 문평면을 가로 지르는 해발 230m 지점에 있는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루어진 나주시 명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명산로를 내면서 광장도 만들었다. 또 마을 주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둘러져 있는데 이별재가 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코스 중턱에 걸쳐져 있어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니 등산이나 트래킹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만이다.



## 이슬촌의 아침은 상쾌해요

야식으로 낮에 주운 유정란 꾸러미를 짹짹 풀어 삶아 먹은 뒤, 부른 배를 두드리며 따뜻한 방에서 등을 지진 지 일곱 시간 만에 눈을 떴다. 한겨울 아침이지만 바깥 공기는 상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서 폐속까지 상쾌함이 전달됨을 느끼며 김성님 위원장님 댁으로 향했다. 아침식사 초대를 받은 것이다. 정성 가득한 가정식 반찬에 우리가 어제 캔 보리쌀을 이용한 보리 된장국이 나왔다. 우리는 유정란에 이어 보리 된장국을 맛보며 '이것이 바로 자급자족형 농촌체험'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직접 캔 식재료에 위원장님의 손맛이 더해져 맛을 보기 전부터 이미 10점 만점에 10점을 외치고 있었다. 마침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순간, 그 구수함은 가히 비할 데가 없었다. 맛집 평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미술랭가이드 평점 3개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미각적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슬촌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아침 일정에 이렇게 쓰인 제목이 있다. '이슬촌의 아침은 상쾌해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이슬촌에서 농촌 인심이 가득한 아침식사를 하고 나와 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누구도 입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상쾌함'이란 감정을 서로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 ★ 찾아가는 길

#### 서울 → 대구 (기차 이용 시)

서울역 → 동대구역, KTX : 약 1시간 40분 소요, 새마을호 : 약 3시간 소요, 무궁화호 : 약 3시간 50분 소요

#### 서울 → 고령 (버스 이용 시)

남부터미널 1일 5회(10:08, 12:00, 14:00, 15:00, 16:45) 4시간 10분 소요

#### 대구 → 고령 (버스 이용 시)

서부정류장 시외버스(배차 5~10분 간격, 30분 소요)

#### 대구 → 고령 → 개실마을 (버스 이용 시)

서부정류장 시외버스(합천 방향) (배차 30분 간격, 40분 소요)

#### 고령 → 개실마을 택시이용 10분 소요

#### 고속도로이용

중부내륙 → 동고령IC → 88고속도로 → 고령IC → 대진 → 88고속도로 고령IC(쌍림면) → 좌회전(고령읍방면, 1km) → 고곡삼거리 좌회전(합천 방향, 3km) → 귀원삼거리 직진(합천 방향, 다리 건너기) 1km → 합거리 개실마을 도착

#### 국도이용

국도26 → 국도33 대구 → 국도26호선(고령) → 쌍림 귀원삼거리 → 국도33호선(합천방면) → 합거리 개실마을 → 합천

### ★ 주변관광지

고령 대가야 박물관(054-950-6071), 고령 대가야 왕릉전시관

### ★ 체험프로그램

연만들기, 엿 만들기, 유과 만들기, 한옥체험, 예절교육, 대나무 물총, 딸기수확 등

## 제주 가시리마을

# 제주의 모든 것을 만끽하다, 가시리

글 김재경

‘바람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아가씨도 많다네...’

가요 한 소절을 흥얼거리며 꼬불꼬불한 한적한 시골길 위에 서 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곳은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한국 최고의 관광지, 제주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화려한 곳이지만, 여기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요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시골 마을 어귀, 오늘 내가 둘러보아야 할 마을이다.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고 했던가. 여느 시골마을 같아 보이지만 주변 곳곳에서 묻어나는 정취가 마치 제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만 같은 ‘가시리마을’이다. 이 곳에서 특별한 이야기와 역사를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한껏 품고 설레임이 가득한 발걸음으로 마을에 들어섰다.



## # 시간을 더해주는 마을,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있고”

그 누군가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쉬움이 서린 마을.

마을 어귀를 지나자마자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충의사’는 마을의 유래와 닿아 있는 역사적 인물의 사당이다. 고려 말 이성계 제거에 실패하고 제주도로 유배 온 대제학자 한천은 식솔을 데리고 이 곳에 왔다. 그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에게 학문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천이 머물던 주변 일대가 가시 오름이었기에 마을 이름은 ‘가시 오름 마을’이 되었으며, 후대에 ‘가시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알고보면 정철의 고려가요 <사미인곡>과 무관한 ‘가시리마을’이지만, 충절을 다하지 못하고 멀리 제주도로 떠난 학자의 서러운 한이 느껴졌다. 충의사를 지나면 마을의 삼거리 앞에 마을문화정보센터인 ‘가시리디자인카페’에 이르게 된다. 마을 주민들의 소통장소이면서, 관광객에게는 마을탐방의 시작이자, 마지막 관문소와 같은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본격적인 마을 탐방을 앞두고 설레임이 가슴을 적셔왔다. 새로움을 찾아나서는 발자국 소리에 저 멀리서 누군가 화답이라도 하듯 청아한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 # 녹산장, 갑마장 길... 제주 특유의 마(馬)문화 만끽

가시리마을은 제주도 내 여러 마을 중에서도 목축문화의 진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곳이다. 조선 최대의 산마장인 녹산장과 우수한 말을 길러냈던 갑마장이 멋지게 펼쳐져 있는데, 갑마장 길은 가시리디자인카페를 출발하여 당목천, 따라비오름, 큰사슴이오름, 다목적광장, 행기머체, 소뽕지당, 안좌동 마을까지 총 20km에 이른다. 드넓게 펼쳐져 있는 광활한 농장을 보니, 답답한 도시 아래에 먹먹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아울러



녹산로

목축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시리마을 주민의 수고를 한 눈에 엿볼 수 있었다. 제주 산업의 근간, 목축문화를 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마을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를 지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녹산로’다. 가시리마을의 ‘녹산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운 특별한 길이다. 양 옆으로 드넓게 펼쳐진 광활한 목장과 오로지 제주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름들이 펼쳐져 있었다. 양 길가에 펼쳐진 유채꽃밭은 아직 아무것도 피지 않았지만, 봄이 되면 노오란 유채꽃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치 유채꽃 축제를 미리 본 것처럼 가슴이 설레었다. 녹산로를 따라가다 보니 말과 관련된 여러 조형물들이 보였다. 그 중 ‘테우리 동상’이 눈에 띄었는데, 테우리는 말을 기르는 목자를 말한다.

“테우리는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노역이예요. 말을 진상하기 위해 테우리들은 초원에서

마을 공동목장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어요. 말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에 말이 죽거나 도망치면 테우리 집안은 파산을 면하기 어려웠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은 물론 처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하니 테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마을주민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목동의 힘든 생활이 연상되어 가슴이 저려왔다. 사실 '목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은 낭만적인 직업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아마 누구나 어렸을 때 읽었던 알폰스 도데의 <별>이라는 작품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그 작품에서의 목동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밤하늘의 별과 함께하는 목동만을 상상하곤 했을 것이다. 알고보면 참으로 힘든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고된 목동의 삶이었을 텐데 말이다.

테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공원을 지나자 '마을 공동목장'이 나타났다. 곧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을 위원장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입을 다물 수 없었다. 10만 평이 넘는 광활한 대지와 그 양옆으로 펼쳐진 오름, 그리고 저 멀리 성산 일출봉이 하나의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멋진 곳이 우리나라, 제주도라고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순간 우쭐해졌다. 유채꽃이 피지 않는 계절이어서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가시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마을 공동목장에는 현재 '다목적 광장'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곳에서 다양한 공

마 조형물



테우리 상





목축박물관

연과 행사, 축제를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유채꽃밭 걷는 길, 승마체험, 마차길 등을 조성해 가시리마을을 특성화할 계획이란다. 바다도 화산송이로 조성해 제주도만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했다. 큰사슴이오름 주변을 걸어가다 오름 밑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노루를 보고 있자니,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고있는 곳이 바로 가시리마을이 아닌가 싶었다.

이어 '목축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목축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장과 카페, 전망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단순한 전시위주가 아니라 주변 목장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었다.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박물관 외관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감마장 길은 이 외에도 가시천, 꽃머채, 잣성길 등 다양한 목축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올레이다. 제주도에 지정한 올레길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공미가 가미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제주의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고있는 곳



## # 제주의 아픔을 간직한 새가름과 애기무덤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에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내용을 살펴보면 '4·3사건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다는 구절이 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지만, 사실 제주도에 는 지울 수 없는 멍에와 같은 슬픈 역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 픈 역사 '제주 4·3사건'.

가시리마을 역시 제주 4·3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제주도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바로 가시리였다. 가시리마을에서만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300채가 넘는 가옥이 소실되었다. 특히 가시리마을에서 제주 4·3사건의 흔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새가름 표지석'이다. 예전에는 새가름마을이 가시리마을 안에 있었으나 4·3사건으로 마을이 잿더미가 된 후 복구되지 못한 채 마을의 표지석만 남아있다. '새가름 표지석' 외에도 가시리마을에는 4·3사건의 흔적인 '애기무덤'도 존재한다. 현재 게스트 하우스인 '타시텔레' 마당에 4개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 갓난아기의 무덤이 저의 형이예요. 당시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두 형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저의 가족들이 여기에 묻혀있는 거예요.”

마을 위원장님의 나지막한 소리는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진주알 하나 가 탄생하기 위해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조개처럼, 아름다운 섬 제주도 역시 이 렇듯 아픈 역사가 있기에 더욱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싶다.

'새가름 표지석' 4·3사건으로 마을이 잿더미가 된후 복구되지 못한채 표지석만 남아있어요



V.V.V



tip 01

### 4·3 사건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한 미군정 체제의 사회문 제와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미군정과 군정관리들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억 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5,000~30,000명 가량의 주민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그 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규명을 하게 되었다.

## # 마을 전체가 문화를 입다

이어 도착한 곳은 ‘가시리디자인카페.’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마을 사업을 의논하며, 관련 결과물을 전시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며 독서도 한다.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이자 놀이터다. 또한 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센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사실 이 곳은 2009년까지만 해도 허름한 마을회관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마을 전체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면서 디자인카페가 탄생했다. 디자인카페의 백미는 외관이다.

벽면에 길이가 다른 연필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마을 위원장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벽면에 붙어있는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가시리 마을의 세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나가면 연필 하나를 떼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면 연필을 붙이는 식이죠.”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듯 참신한 마을을 만들어 낸 것이다. 디자인카페 뒤쪽

에 자리한 ‘가시리 문화센터’는 마을 주민들의 문화교육 공간이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난타, 타악기, 밴드 등 주민들의 소모임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영화, 연극, 스포츠 댄스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도 이용된다. 시골 마을이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단박에 무너졌다. 자유롭고 풍성한 문화생활을 영유해서인지 그 열매가 곳곳에서 맺어졌다. 마을주민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는데, 특히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들이 영화를 만들어 독립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했던 문화생활이 자연스럽게 표출됐다고 생각하니 박수가 절로 나왔다. 마을 전체가 함께 고민해 문화가 담긴 마을을 만든 가시리마을의 주민들이 부러워졌다.

문화센터에서 나와 삼거리를 지나 걷다보면 ‘가시리창작지원센터’를 볼 수 있는데, 이 곳은 문화예술인들의 레지던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해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카페와 내부모습



문화센터 내 공연장과 내부 다용도실





차만들기 체험 \_ 술잎 다듬기 → 뒤는 작업(9번) → 유념작업(4번)



매년 4월이면,  
가시리 유채꽃 큰잔치 축제가  
열린다고요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이  
예요. 마을주민을 위해 주 1회 강연도 하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야 하거든요. 마을 주민들  
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기준을 듣고 나니 문화센터가 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예술가와 마을주민이 소통하는 이 곳에서 나도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든 좋다. 함께라면 말이다.

우리는 가시리마을의 또 다른 문화명소를 찾아 발길을 옮겼다. 작은사슴이오름에 위치한  
'참, 곱다(茶)'. 야생화와 야생초를 이용해 천연염색도 하고 차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문  
화체험 공간인 셈이다. 여기서는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전통방식으로 차를 만들기 때문  
에 차를 만들기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술잎 차를 마시니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상쾌해졌다.

가시리마을은 매년 4월이면 1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광장이 온통 유채꽃으로 가득한 '가  
시리 유채꽃 큰잔치 축제'가 열린다. 이 때, 마을 주민들이 문화센터와 창작지원센터를 통  
해 배우고 익힌 다양한 공연과 전시물도 함께 선보인다고 한다. 따뜻한 봄이 되면 가족들  
과 다시 한 번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 환상의 축제 현장을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설레고 행복해졌다.





### #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 고유의 맛을 지키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먹는 재미가 아닐까? 가시리마을에도 가시리만의 특색을 지닌 맛 있는 먹거리들이 곳곳에 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루에 1,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정도라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만큼 제주도 내에서도 가시리마을의 음식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제주도의 토종돼지고기는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시리의 토종돼지고기는 제주도 내에서도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드디어 그 유명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삼겹살과 목살이 너무 빨갛게 나와 의아해했으나,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면서 참 토종 돼지의 육즙이 진하게 배어 나왔다. 그간 맛봤던 그 어떤 돼지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었다. 제주도만의 고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몸국 역시 독특했다. 가시리의 몸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돼지사골을 우려 만든다고 한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음식 노하우를 전승하고 있다는 가시리마을.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음식 레시피를 녹취,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맛의 비결이었던 모양이다. 역사를 지키고 아름답게 계승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 금강산도 식후경 가시리 음식



## # “와방장강고릅서” 가시리마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짐을 싸며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가시리마을은 관광지로 알려진 제주도 내에서도 제주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최근에는 해안을 따라 올레길이 만들어지면서 그 인기가 절정에 달한 제주도. 하지만 제주도 고유의 역사와 모습을 간직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가시리마을이 의미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공의 미가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는 곳이 바로 가시리마을이다.

비록 우리는 겨울의 한 모습만 보고 왔지만,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풍광과 따뜻한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따뜻한 정과 자연을 만끽하러 가시리마을로 달려가고 싶다. “직접 보고, 자고가서 얘기하라”는 제주도 방언

“와방장강고릅서”가 입을 맨돈다.

## 제주도 고유의 역사와 모습을 간직한 곳

### ★ 찾아가는 길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가시로 565번길 20

#### 1. 대중교통 이용 시

제주시외버스터미널 → 가시리마을까지 버스로 1시간 정도 소요(제주시 터미널 064-753-1153, 서귀포시 터미널 064-762-3248)

#### 2. 승용차이용 시

제주국제공항 → 국립 제주박물관으로 직진 → 97번 지방도로 → 성읍민속로 표선 방면으로 우회전 → 성읍사거리에서 우회전 → 가시리사거리에서 좌회전 → 6km이동 후 삼거리에서 좌회전 → 가시리디자인카페 도착

### ★ 주변관광지

#### 성읍민속마을

제주도의 옛 마을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곳. 거센 바람에 지붕이 날아갈까봐 돌로 눌러 놓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조선시대 정의현감이 집무하던 기관인 일관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선 세종 때 축성된 성곽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 188호로 지정.

#### 제주허브동산

약 180여 종의 허브와 250여 종의 야생화가 가득한 정원과 작은 동산들, 2,000여 평의 체험감귤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웰빙체험관에서는 천연비누, 허브워터, 허브오일, 허브차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다.

####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도에 하나뿐인 민속촌 테마공원으로 1964년에 개장. 제주 고유의 민속자료 약 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생업생활용구, 관혼상제용구, 전통놀이기구 등 고유의 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전시품과 100여 채에 달하는 전통가옥, 장터 풍경이 인상적이다.

## 제주 아홉굿마을

# '아홉 개의 연못과 아홉 가지 Good!'

글 나인지

“감수광?”, “귀눈이 왁왁하우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제주도 사투리를 찾아보며 들뜬 마음으로 재잘대는 사이 어느덧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마을에 도착했다. 따뜻한 남쪽 섬 제주에도 1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마을은 여느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아늑했다. 감귤나무와 돌담을 보고나서야 이 곳이 제주도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이장님이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소탈한 이장님의 모습은 마을과 닮아있다.



## 아홉굿, 아홉 개의 연못 그리고 nine good

머무는 동안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마을회관에 짐을 풀면서, 기꺼이 마을회관을 내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함을 느꼈다. 마을의 구석구석을 눈에 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에 1박 2일은 너무 짧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밖으로 나와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을 따라 다니기 시작했다. 아홉굿마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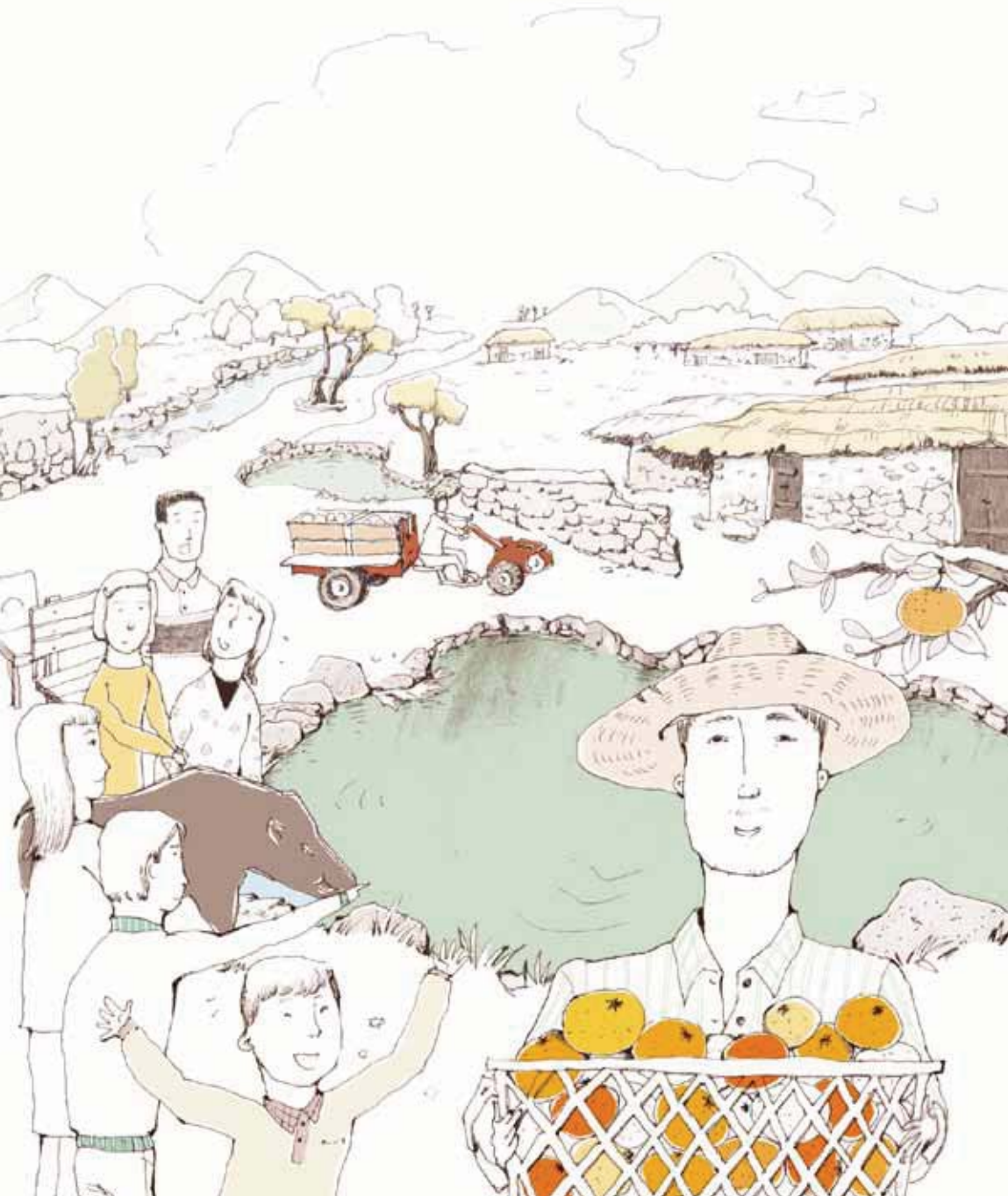
‘아홉굿’의 ‘굿’은 구덩이를 뜻한다. ‘굿’하면 대부분 무당이 귀신에게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절하여 달라고 비는 의식을 떠올릴 것이다. 나도 그랬었다. 구덩이를 의미하는 말임을 알고 난 후에는, ‘제주도 사투리로 구덩이를 굿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덩이라는 의미의 ‘굿’도 엄연히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라고 이장님이 설명해주었다. 믿기 힘들어서 찾아보니 정말 ‘굿:구덩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아홉굿마을은 구덩이가 아홉 개 있는 마을일까?



아홉굿마을이 위치해 있는 낙천리는 점토와 물이 풍부한 곳으로, 1670년 경 주물기술자 여산 송씨(송가금)가 정착하여 불미업(풀무업, 대장간)을 시작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대장간 주물 틀의 재료로 점토가 사용되는데, 불미업이 번성하고 마을에 사람이 점점 모여 들면서 점토를 많이 파내 큰 구덩이가 여기저기 만들어졌다. 낙천리는 또 강수량이 많아, 내린 물이 점토질의 구덩이에 고이면서 자연스럽게 연못과 샘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못이 아홉 개가 되어 아홉굿마을은 아홉 개의 연못이 있는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다. 물이 귀한 제주도지만 낙천리만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아홉 연못을 목욕용, 식수용, 빨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했는데,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이곳에서 공급했다고 한다. 주변 마을 아낙들이 낙천리 연못에 와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줄줄이 이고 가는 것을 보고 ‘물허벅’이란 말까지 생겼다고 하니, 그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 같다. 이렇듯 아홉굿마을의 연못은 마을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마을의 가장 오래된 연못은 어디일까? 놀랍게도 사람이 살기 전에 멧돼지가 구덩이를 파서 만든 저갈(猪巨)물이라고 한다. 이장님은 직접 저갈물을 보여주며 그 유래를 알려줬다. 취락이 형성되기 전 멧돼지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 흙을 파내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후 저갈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차츰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우리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돼지가 연못을, 그것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던 말인가. 그러나 이장님의 설명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저갈물은 낙천리의 심장이자 역사의 근원지로 자리 잡고 있으니, 전설 속 멧돼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현재 아홉 개 연못은 몇몇 개가 합쳐졌다. 아홉굿마을은 이제 아홉 개의 연못이 있는 마을에서 아홉 개의 좋은(good) 것이 있는 즐거운 마을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자신들의 안락



한 삶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마을을 방문하는 손님에게도 아홉 개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주민들이 푹푹 뭉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을은 특히 단합이 잘 돼요.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개발위원장, 자문위원  
장들이 마을 일에 협조를 잘 해주거든. 이장으로서 정말 감사하죠.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  
니까~.”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Good~’을 외쳤다. 아홉굿마  
을에 가서 아홉 good을 찾아보자!

### 쉬어가세요~ 1,000개의 의자와 잣길

아홉굿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회관 앞에 마련된 다양한 나  
무의자들이었다. ‘의자마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예쁜 모양에 재치있는 이름을 가진 의자  
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1,000개의 의자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이 곳으로 끌어당겨 마을  
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1,000개의 의자는 저마다 이름이 있다. 마을에 의자를 왜 만들었는지, 의자마다 이름을 붙  
일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이장님은 ‘의자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마  
을주민들 스스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완성했고, 이를 계기로 마을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의  
욕이 높아졌다며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2007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마을주민들이 직접 만들었지요. 1,000개 만드는 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의자만들기는 현재 개발위원장님인 당시 이장님께서 양기훈 제주MBC 라디오 프로그램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 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추진했다고 한다. 도시생활에 지친 방문  
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순수 나무의자 1,000개를 만



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랜 기간 정성스럽게 만든 의자들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이름을 주민들끼리 짓지 않고 '의자닉네임 전국 공모'를 통해 이름을 선정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의자닉네임 공모전이 아홉굿마을이 의자마을로 소문나고 방문하는 여행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름짓기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자가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그리고 당선된 사람들에게 제주도 방문 상품권을 증정하고 이들을 의자마을 선포식에 초대하여 홍보효과를 높였다.

의자닉네임 공모전의 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지성부인'과 '그려려니'라는 닉네임으로 당선된 남녀가 의자마을 선포식 때 처음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한 것이다. 마을 한 귀퉁이에 '박지성부인'과 '그려려니'라는 이름이 붙은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인연이란 게 정말 있나, 참 신기하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

1,000개의 의자들을 지나 마을 돌레를 감싸고 있는 잣길에 들어섰다. '잣길' 이름부터 참 예쁘다. 자갈한 돌이 깔려있어서 잣길이라한다. 길에 돌담이 쳐있어 운치를 더한다. 길 양편의 밭에는 유채꽃을 심어 놓았다고 하니, 지금이 봄이 아닌 것이 한스러웠다. 짙은 먹색의 구불구불한 돌담길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노란 유채꽃과 어우러지면 얼마나 더 멋질까. 5월에 다시 와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잣길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마을 선인들의 지혜와 역경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이 길은 화산폭발에 의해 흘러내린 돌무더기를 걷어내고 농토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낙천리와 인근마을을 연결하는 통로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사람과 물건이 잣길을 통해 오고 갔다. 삶의 일부였던 이 길에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들이 쌓이면서 길 이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의 모습은 옛날 모습과는 다르다고 한다. 4·3사건으로 인해 마을이 폐허가 되면서 잣길도 훼손된 것이다. 이후 오랫동안 그늘 속에 묻혀 있다가 제주시의 지원으로 2011년 11월 886m가 복원되어 올레길 13코스에 편입되었다.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정말 다행이다. 해질녘, 잠시 잣길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구름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그 뒤로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멋지다. 잣길과 마을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져 이 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 마을의 숨은 보물, 황토

아홉굿마을의 토양은 황토이다. 마을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황토에서 자란 농산물은 맛과 영양이 일반 농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며 자랑했다. 아홉굿마을에서는 감귤, 보리, 콩,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당도가 높고 찰지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제주도라 그런지 꿀 맛이 특히 궁금했다. 황토 꿀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우리는 직접 따서 먹어보기 위해 개발위원장님의 감귤농장으로 향했다. 농장까지는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에 이장님의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15명이 타니 트럭 짐칸까지 꽉 찼다. 타기 전에는 '이렇게 추운데 짐칸에 어떻게 타지'라는 걱정을 했으나 막상 타고 보니 추운 줄도 모를 정도로 신이 났다. 오히려 금방 내리는 게 아쉬웠다. 농장에 도착하자 개발위원장과 마을주민들이 일손을 멈추고 반겨줬다. 탐스럽게 열린 꿀과 반짝반짝 짙은 초록빛 잎사귀 그리고 붉은 황토가 어우러진 드넓은 농장에 들어서자 여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 “와 정말 예쁘다!” “이 곳이 진짜 제주도구나!”

우리는 감귤 수확에 필요한 장갑과 가위를 챙겨 농장 안쪽에 있는 귤나무로 갔다. 가장 맛있어 보이는 귤을 골라 드디어 첫 수확을 했다. 색깔이 정말 곱다. 군침이 돌아 바로 껍질을 깎았다. 보통 귤과는 다르게 껍질이 얇으면서 질긴 듯했다. 귤을 반으로 갈라 입에 넣었다. 시원하고 상큼하면서 기분 좋은 단맛이 난다. 정말 맛있었다. 앞으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홉굿마을 귤을 주문해서 먹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누구에게라도 자신있게 권할만한 맛이다. 드셔보세요!

황토에서 자란 보리는 또 어떨까? 아홉굿마을은 보리로도 유명하다. 보리빵과 보리수제비는 이 마을의 향토음식이며, 보리빵 떡은 제사상에도 올린다. 그렇다면 보리빵과 보리수제비를 안 먹어볼 수 없다. 첫째 날 밤 야식으로 보리빵을 샀다. 보리빵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먹어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보리빵을 주문하자 그 자리에서 찌주었다. 보리빵이라고 해서 짙은 갈색일 줄 알았는데, 아홉굿마을의 보리빵은 상아색에 가까웠다.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으며 보리가루와 밀가루, 설탕, 소금, 계란, 막걸리, 우유가 재료의 전부라고 한다. 마을주민이 직접 반죽하여 만들기 때문에 상품이라기보다는 이웃이 만든 간식거리 같은 느낌이다. 탄성을 자아내거나 ‘맛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특별한 맛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쫄깃하고 담백한 것이 소박하게 맛있었다. 질리지 않아 저녁을 먹었는데도 계속 손이 갔다. 막 찌서 따끈따끈할 때도 맛있지만 식으면 더 쫄깃하고 찹져 또 다른 맛이 났다.

다음날 아침엔 보리수제비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마을에서 재배한 채소로 맛을 낸 육수에 수제비 반죽을 얇게 떼어 넣었다. 반죽이 찢지면서도 손에 엉겨 붙지 않았다. 국물이 보글





보글 먹음직스럽게 끓기 시작하자 우리는 수제비 반죽이 채 익기 전인데도 숟가락을 들었다 뛴다하며 부산스러워졌다. 드디어 수제비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현지에서 수확한 좋은 재료만 써서 그런지 국물 맛이 깔끔하고 시원했다. 수제비도 쫄깃쫄깃 입에 감겼다. 자 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맛이다. 우리는 순식간에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국물까지 싹 비웠다. 황토보리도 역시 다르구나!

황토 활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황토로 집도 지었다. 제주도의 전통가옥은 돌로 쌓은 벽에 흙을 발라 단단히 하고 지붕에 굵은 밧줄로 바둑판처럼 푹푹 얽은 지푸라기를 올린다. 비와 바람이 많은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제주선인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아홉굿마을 주민들은 황토와 보리지푸라기를 사용해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안락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4·3사건 이후 마을의 전통 초가집은 모두 사라졌다. 한 채도 남아있지 않다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잣길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초가집은 아홉굿마을이 2003년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지정된 후 지어진 것이다. 마을에서 나는 보리짚과 황토를 사용하여 옛날 방식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지었다고 하니 그 가치가 작지 않다. 숙박시설과 농기구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우수한 우리 전통 문화를 일깨워 주는 좋은 학습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주민들의 삶이 황토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황토는 아홉굿마을 주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숨은 보물이다.

## 든든하게 받쳐주는 숨은 보물



## 구석구석 재미있는 마을이야기

아홉굿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보리수제비를 먹고 이장님과 마을 산책에 나섰다. 찬바람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마을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발길 닿는 곳마다 이어졌다.

낙천리는 한경면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수는 15개 리 중 세 번째로 적다. 제주도 마을에서 몇 안 되는 돈사 없는 마을이라고 한다. 차도 많이 다니지 않았다. 띄엄띄엄 있는 집들은 저마다 밭을 끼고 있고, 밭에는 나지막한 돌담이 쳐있다. 마을 풍경이 정갈하다. 조금 더 들어가니 담벼락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제주도에 전해져오는 10개 설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소박하고 깨끗한 마을에 아기자기함을 더해준다. 이장님께서 그림 속 설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제주도 탄생과 관련된 설문대 할망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

설문대 할망은 몸집이 아주 크고 힘이 센 할머니로 치마폭에 흠을 가득 담아 지금의 한라산이 있는 자리로 운반했는데, 운반 도중 치마에 난 구멍 사이로 조금씩 쏟아진 흠이 오름이 되고 마지막에 부은 흠은 한라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라산이 너무 높아 보였는지, 할망은 봉우리를 툭 꺾어 바닷가로 던져버렸다. 남서쪽으로 날아간 그 봉우리가 바로 산방산이란대. 실제 한라산 백록담과 산방산 밑의 둘레모양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 참 신기하다. 벽화를 지나 얼마간 걸으니 큰 연못이 보였다. 몇 개의 연못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바로 그 연못이다. 수심이 4m 정도 되며 지금은 농업용수와 민물낚시터로 이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큰 연못에서 발걸음을 옮긴 지 얼마 안되어 독특한 연못이 눈에 들어왔다. 아홉 개의 연못은 없어졌지만 마을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주민들이 마을의 연못 하나에 아홉 구(九)자 모양으로 경계를 지어 자그마한 아홉 개의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곳엔 여전히 아홉 개의 연못과 그것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있다.

이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데, 문득 길 옆으로 깊게 파인 독특한 지형이 눈에 들어왔다. 숨골이다. 낙천리는 해발 80m의 분지지형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수해가 없다.

### tip 01 제주설화

설문대할망 이야기 외에 세 신(고을나, 양을나, 부을나)이 한라산 북녘 기슭의 모흥혈(毛興穴, 지금의 삼성혈)에서 솟아나 동쪽 바닷가에서 밀려온 목함 속 세 여인과 각각 혼인하여 탐라국을 세웠다는 삼성혈(三姓穴) 설화, 설문대 할망이 낳은 500명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죽을 끓이다가 술에 빠져 죽은 줄도 모르고 고기죽이라며 맛있게 먹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그리며 울다가 바위로 굳어졌다는 오백장군이야기 등이 있다.





빗물이 모여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인 숨골 덕분이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숨골로 물이 빠져 홍수가 안나요.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연못이 마르지 않지. 하하하.”

이장님의 말씀에 ‘이곳은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마을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여행이 끝났다. 아쉬움 속에 떠날 준비를 하고 그새 정이 든 마을주민들과 긴 인사를 나눴다. 아홉굿마을의 소소한 일상, 아픈 역사, 재미있는 전설, 갈등과 화해, 웃음과 감동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차에 막 오르려는데 이장님께서 산책 중에 딴 것이라며 금굴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을에서의 이틀을 되새기며 금굴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는다.

### ★찾아가는 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916번지

##### 1. 승용차 이용 시 : 승용차(일주도로)

공항 → 신제주방향 우회전 → 한림방향 우회전 → 애월 → 한림 → 신창 → 한원방향 우회전 후 직진 → 낙천

##### 2.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1시간 30분 소요, 3,000원)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창 가는 버스 승차 → 신창에서 낙천리 가는 마을순환버스로 환승

### ★주변관광지

#### 올레13코스 용수-저지(총 15.3km, 4~5시간)

용수포구(절부암) → 충훈묘지 사거리 → 복원된 밭길 → 용수저수지 입구 → 특전사 숲길 입구 → 고목 숲길 → 고사리 숲길 → 낙천리 아홉굿마을 → 낙천갯길 → 용선달리 → 뒯동산 아리랑길 → 저지오름 정상 → 저지마을회관

### ★생각하는 정원

1만 2천여 평의 정원에 아름다운 분재와 정원수, 연못과 폭포 등이 조화롭게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1992년 개원 이래 세계전문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2008년 11월 11일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한 관광지 등급평가제에서도 도내 일등관광지로 선정되었다.

### ★오설록 녹차박물관

한국 최초의 차(茶)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명칭은 오설록 티 뮤지엄(o'sulloc tea museum). 가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만들어진 대표적인 찻잔이 전시되어 있고, 차를 제조하는 과정과 차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야외에서는 24만 평 규모의 차 재배지를 관람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는 한라산과 광활한 다원(茶園) 풍경이 내려다보이며, 박물관 주변 정원에는 연못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 ★셰어링 프로그램

제주음식체험 : 보리빵, 보리수제비, 보리강정, 토마토잼 만들기

농 사 체 험 :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감귤, 고구마, 감자, 옥수수 수확

연못낚시체험 : 대나무낚시대를 이용하여 붕어, 미꾸라지잡기

전통문화체험 : 풀무체험(무쇠술 만들기), 민속놀이체험(등돌들기, 투호)

천연염색체험 : 감물염색 등

## epilogue



### .1 조은지

2박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올 수 있겠냐는 주변의 회의적인 반응과는 달리, 마을 어른들은 갑자기 책을 쓰겠다고 들이닥친 우리를 사무관이 아니라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익숙치 않은 농어촌 체험에 힘들기도 했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어촌이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점을 새삼 느꼈다. 그 풍부한 이야기들을 지면에 미처 다 살릴 수 없어 아쉽지만, '전래동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의 사람내음 가득한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퍼지기를 바란다.



### .2 김정락

제주도 아홉곳 마을을 시작으로 가시리마을, 고령 개실마을, 임실치즈마을, 장흥 백자골마을, 남해 앵강다숲 마을을 다녀왔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곳이 없는 것처럼 내가 다녀 온 마을 모두가 나에게겐 소중한 즐거운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면 좋은 풍경이 있다. 하지만 시골의 매력은 단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다. 해외로만 가려 하지 말고 사람냄새가 물씬 나는 우리 시골마을을 먼저 둘러보기를 모두에게 추천한다.



### .3 김지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한참을 걸려 도착한 마을이었다. 마을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따사로운 웃음에 함께 한 동료들 모두가 즐거웠다. 몸은 고되었지만, 행복한 출장이었다! 감사합니다.



### 이진희 4.

'농어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전래동화(田來童話)'. 처음 책을 쓰기 위해 우리 농어촌을 찾을 때만 해도 책 제목처럼 아름답고 푸근한 우리네 농어촌 이야기를 기대하며 길을 나섰다. 출장을 간다고 보다는 동기와 여행을 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농어촌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우리 농어촌도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변화를 따라 잡으려 인간힘을 쓰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였다. 아이들의 재잘거림이나 울음소리로 듣기 힘들었고, 만난 마을분들 대부분이 흰머리가 성성한 어른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마을사람들이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신입사무관으로서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 많은 책임감이 느껴진다. 우리들의 책은 이렇게 끝을 맺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이유이다.



### 김고은 5.

이번 책자는 우리 각자가 마음의 고향을 만들고 오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되었다. 과연 우리가 그 마을들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가치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가 다녀온 마을들은 이제 너무나도 특별한 고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내가 다녀왔던 가시리 마을, 아홉곳 마을, 개실마을, 백자골마을 등에서의 시간들을 가만히 눈을 감고 돌이켜 보면 어느 곳 하나 추억이 되지 않은 데가 없다. 보글보글 너무도 맛있게 끓여진 청국장 찌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을 애정을 담아 한 그릇 가득 담아주셨던 민박집 아주머니, 가는 길이 심심할까봐 유과를 쥐어 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 오랜만에 젊은 사람 만나니 너무 신이 나신다며 밤새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것이 바로 내가 고향마을에서 느끼고 온 정(精)이라는 것의 실체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우리 시골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내 가슴 속에 이루 새겨진 향수의 근원이라.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마을 방문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나만의 고향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기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함께 다니면서 느꼈기에 나는 하나가 아닌 다섯 개, 아니 열세 개의 마음의 고향을 갖게 되었다고 위안을 삼는다.



## .6 조솔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농어촌 마을 책 발간 작업. 산따라 물따라 이곳 저곳 다니다 보니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 본 적 없던 나에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상쾌한 바람과 드넓게 펼쳐져 있던 자연환경은 나를 완벽하게 매료시켰다. 그 속에서 살고있는 농어촌 사람들의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삶을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를 반겨주셨던 모습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던 흥미진진한 마을 전설이야기, 자꾸자꾸 손이 가던 마을 음식들. 모든 것이 눈에 선하다. 아름다운 농어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조심스레 첫 발을 내딛어 본다.



## .7 나인지

매일같이 모여 책 주제 선정에 골머리를 앓았던 게 잊그제 같은데, 벌써 책이 나오다니 시간이 참 빨리도 간다. 제주도에서 시작으로 전국의 농어촌마을을 다니면서 쌓은 경험과 그 때 느낀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동기들에게 고맙다.



## .8 이수현

우리나라의 수많은 마을에는 각각 개성 넘치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동기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탐방하며 그 간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래동화'를 통해 우리가 보고 느꼈던 마을들의 매력에 흠뻑 빠졌으면 좋겠다.



## 김재경 9.

귀농귀촌, 체험마을과 같이 최근 농어촌마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관심 속에 우리 동기들이 농어촌마을에 대하여 책을 쓴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농어촌마을의 가치를 발견하고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덤으로 우리 동기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추억을 안고 앞으로의 공직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미영 10.

“집이 농어촌이신 분?”  
“...”

이번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도시에서 보낸 신입사무관 15명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근무하기 전에 우리나라 '농어촌' 과 '사람들' 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마을체험 중에 들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농어촌에 대한 애정만큼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시행착오도 있지만 용기있게 나아가는 우리 농어촌과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조민경 11.

기억에 남는 겨울, 평생 기억할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2 김현우

책을 쓴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시작된 농어촌마을 탐방. 하지만 동기들과 함께 마을을 탐방하며 그간 느끼지 못했던 농어촌마을의 매력에 흠뻑 빠져 버렸고, 그동안 느꼈던 부담감은 어느새 설레임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고, 마을을 거닐며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데 이 책이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13 정현정

농어촌마을 체험이라는 게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가까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마을 귀 동산을 오르고, 기차에 내려 한 시간가량 털털거리는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달려갈 때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편할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러나 30년 넘게 도시 생활을 하고, 딱히 그 생활에서 벗어날 필요를 못 느꼈던 나에게 농어촌마을을 찾아가는 것은 어릴 적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와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는 것과 같았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새롭고, 계속 생각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미소지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준 체험이었다.



## 이지연 14.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랐고 할머니, 할아버지마저도 도시 출신인 나에게는 '시골'이란 명사에서 느끼는 향기나 소리가 없었다. 농촌, 어촌이라는 단어는 '6시 내고향'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나 보던 간접 경험에 불과했다. 농식품부에 신입으로 들어와 정책을 처음 접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내가 모르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겁이 많이 났다. 농어촌에 대해 무지한 애송이가 농어촌 및 농업 정책을 다룬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나를 비롯한 수습사무원 동기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국에 숨겨진 농어촌마을을 찾아 방문하고,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농어촌 생활을 경험하면서, 조금이나마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골', '농어촌'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냄새가 있다. 코끝이 알싸하면서 발끝이 간질간질해지는 따뜻한 냄새 말이다. 이번 책자 집필의 계기가 없었더라면 내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이 어땠을까 싶다. 우리 농어촌마을의 생생한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을 온전하게 활력있는 정책으로 옮길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책자 집필에 도움을 주신 농식품부 국과장님 이하 사무관님들 그리고 앵강다솜마을 회장님 및 사무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습 동기들과 함께 특히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한 김고은 사무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유재형 15.

현장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야 우리 농어촌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우셨을 텐데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더욱 친해진 우리 54회 동기들! 모두 즐겁고 보람찬 공직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

# 전래동화

(田來童話) 농어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

인쇄일 | 2012년 5월 17일

발행일 | 2012년 5월 17일

---

기획 | 농림수산식품부

지은이 | 농림수산식품부 수습사무관 15인

발행인 | 서규용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주소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화 | 02-503-7200

<http://www.mifaff.go.kr>

---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02-333-6555)

인쇄 | 현대원색문화사(02-2272-4338)

---

ISBN : 978-89-962016-4-9 (비매품)